



10

1977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7. 10호

(루게 360)



◆◆◆◆◆◆◆◆◆◆

## 차 례

◆◆◆◆◆◆◆◆◆◆

조선의 행복 .....	2
위대한 사회주의교육강령을 문학창작에 철저히 구현하자! .....	17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은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위대한 강령	21
당이며, 그대의 숨결을 안고 .....	30
길이 빛나라, 혁명주권이며! .....	31
혁명의 불새들은 초소로 간다.....	32
위대하여라, 주체의 교육강령이며!.....	33
설레이라 벼바다, 강냉이바다여 .....	34
크나큰 믿음을 주시여 .....	41
단조공의 노래 .....	43
풍년작황의 들판을 거닐며 .....	44
가을날, 렬차를 타고가며 .....	45
보호자.....	46
벼꽃이 피는 밤 (외 1 편).....	50
땀흘린 권리로 이 모든것 바라볼 때 .....	51
행복 .....	52
남녘의 시인들이여 그대들은 승리하리라!.....	61
첫 로동생활을 돌이켜보게 하는 길동무 .....	63
따로외우고싶은 시 .....	64

## 조선의 행복

강을 따라 굽이굽이 뻗어오른 길은 좁고 험하였다. 승용차는 자갈 많은 강변길을 울리면서 천천히 달려갔다.

량강도와 함북도일대를 현지도하시고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차안에 계시었다.

차창밖으로는 양들이 풀을 뜯고있는 나지막한 언덕들이 소리없이 오르내리면서 지나갔다. 이따금 차창에 키낮은 소나무들과 강냉이밭들이 가리우고 물에 젖은 돌벼랑이 막혔다가는 시원히 푸른 공간이 열리면서 다시 낮은 풀언덕이 계속되곤하였다. 차안은 자주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였다. 수령님의 얼굴에도 생각깊으신 표정이 어리었다. 그이께서는 어제 신문에서 젓소관리를 특별히 잘하여 많은 젓을 짜내고있는 옥천리 소방목공 남혜경이에 대한 기사를 읽으시고 그 처녀를 만나시려고 가시는 길이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유리를 내려놓은 차창으로 강을 내다보시었다. 넓고 흰 강바닥에 많지 않은 물줄기가 흘러내리고있었다. 강물은 낮은 굽을 따라 강저편으로 치우쳐 흐르고있었는데 거기에는 군데군데 허물어진 강언덕의 낭떠러지들이 솟아있고 장마때 밀려온 큰 돌들이 물속에 곱처럼 웅크리고있었다.

《이 강이 옥내천이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생각에 잠기시여 나직이 물으시었다.

《그렇습니다. 이 강을 따라오르면 비류산골짜기가 열리고 거기서 좀 더 가면 혜경이 일하는 방목지가 보입니다.》

옆에 앉은 군당위원장이 말씀올렸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여전히 강을 바라보시었다.

《그 처녀는 동북에서 나왔는지?》

《그렇습니다.》

《나이는 스물세살이요?》

《예.》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알릴락말락 고개를 끄덕이시며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시었다.

혜경이!...

잊지 못할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시는 그이의 심정은 저으기 설레이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중대장으로 싸우다 희생된 한 혁명전사의 딸을 벌써 스무해가까이 찾으시고계시었다.

어제 옥천리 소방목공 남혜경이에 대한 기사를 읽으셨을 때 그이께서는 저으기 흥분하시었다. 어쩌면 이름도 나이도 다 같은 이 처녀가 그이께서 찾으시는 유자녀일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시였던것이다.

그리하여 수령님께서서는 혜경이의 소관리경험도 들어보시고 그를 직접 만나보시기도 하실겸 현지도과정에 옥천리에 들리시기로 작정하신것이였다.

어느덧 혜경이를 생각하시는 그이의 눈앞에는 아득히 흘러간 그날의 가슴저린 추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목재소 지하공작원 오윤심이 사령부에 찾아온것은 1940년 11월이였다.

윤심은 지하공작임무를 마치자 사령부에 급히 알려야 할 적정보고를 가지고 지체없이 공작지를 떠났다. 적들의 감시는 매우 삼엄하였다.

윤심은 끝없이 펼쳐진 밀림의 바다속을 걷고있었다. 그는 한시도 긴장을 놓을수 없었다. 등에는 세살난 어린애가 업혀있고 품에는 지하조직의 공작보고가 있었다.

당시 적들은 광활한 지대에서 소부대활동을 하고있는 항일유격대를 《토벌》하려고 지구 《토벌대》와 소지구 《토벌대》, 《유격토벌대》까지 만들어가지고 혈안이 되어 날치던 때였다.

윤심은 끝내 적의 《유격토벌대》에 걸려들었다. 밤이였다. 추격이 시작되였다.

윤심은 있는 힘을 다하여 숲속을 지르고 골짜기를 빠져나왔다. 화전촌의 두서너 불빛이 언덕

밑에 반짝거리고 석포강의 소란한 물소리가 후려치듯이 안겨왔다. 윤심은 강쪽으로 달려가며 배를 찾았다. 문득 샷대가 가로질린 배 한척이 갈밭속에 있었다. 윤심은 미처 배에 오를념을 못하고 첨버덩거리며 갈밭속을 밀고 달려나갔다. 사뭇치는 물이 허리에 차올랐다. 윤심은 허겁지겁 고물에 매달렸다. 물살은 급하고 배는 어디게도 움직였다. 강쪽에 다달은 적들이 왁작 고아치며 총을 쏘기 시작한다. 세상모르는 어린것은 아무리 달래어도 울기만 하였다. 적의 총알은 우박처럼 날아왔다.

벌써 총알에 샷대가 부러지고 배전이 구멍나고 치마폭이 찢겨 달아났다. 배간에는 물이 차올랐다.

윤심은 당황하고 급박하여 두손으로 물을 푸기 시작하였다. 세찬 물결에 배머리가 돌아갔다.

윤심은 고여오르는 물속에 발목을 잠그고 황급히 어둠속을 돌아보았다. 갈밭숲 여기저기에서 적의 총구가 내뿜는 짧은 불빛들이 보였다. 산채로 잡으라고 고아치는 부르짖음은 강안에 꽉 찼다.

어떻게 하는가?...

윤심은 눈앞이 막막해졌다. 물이 차오르는 배를 더이상 저어갈 힘도 없었고 어깨를 넘는 물을 아이를 업고 건널수도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직의 보고도 전하지 못한채 아이도 윤심이라도 잡혀죽을수 있었다.

그렇다면?... 윤심은 빠른 물살에 견잡을수 없이 떠내려가는 배전을 붙잡고 기수없이 복잡한 생각을 누벼가고있었다.

이제는 아이와 헤어지는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혁명가로서, 어머니로서 할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었다. 윤심은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강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벌목촌이 있고 거기엔 나무가 있었다. 배가 가라앉지 않고 내려만가면 혜경이는 구원될수 있을것이였다.

윤심은 어깨를 허비는 어린것의 손을 꼭 움켜잡았다.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았다.

적들의 총소리, 고함소리는 각일각 지척으로 가까와졌다. 윤심은 마지막으로 혜여지는 어린것

에게 젓 한모금이라도 빨려주고 싶었으나 그럴정황이 못되였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풍덩 물속으로 뛰어내렸다. 얼음같이 찬 물이 온몸을 휘감았다. 놀란 어린것이 어머니의 목을 그러안았다. 윤심은 숨이 막혔다. 떨리는 손으로 물속에서 띠개를 푼 윤심은 가슴앞으로 아이를 돌려안았다. 그리고 한손으로 배전을 잡아당겼다.

어머니의 모진 마음을 알아차린듯 어린것은 공포에 질려 윤심의 저고리앞섶을 움켜쥐였다.

《혜경아, 혜경아!》

윤심은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어린것을 억지로 떼여 배간에 들여놓았다. 그리고는 어린것의 몸부림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은채 배전을 확 떠밀었다.

《엄마-》

어린것의 애처로운 비명소리가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윤심은 주저앉을듯이 허둥거렸다. 가슴을 치고 어깨를 넘는 물이 사정없이 윤심이를 덮치였다. 그러나 윤심은 넘어지지 않았다. 주먹을 부르짖고 입술을 깨물며 일어난 윤심은 단호히 적들을 쏘아눕히며 강을 건너가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크고 깊은 강은 아니였다. 그러나 윤심은 천신만고로 그 강을 건너갔다.

총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강안에 차고넘치는 모든 소음이 윤심에게는 죄다 어린것의 울음소리로만 들려왔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가!

윤심은 숨가쁘고 지친 몸을 가까스로 움직여 대안의 물버들을 휘여잡았다. 땅우에 올라선 윤심은 몸의 균형을 잡을수 없었다. 휘청거리는 다리에 젖은 치마가 휘감겼다. 젖은 저고리 앞가슴도 바람에 선편거렸다.

윤심은 경황없이 앞섶을 더듬었다. 저고리 한쪽 고름이 떨어져버렸다. 가슴이 철렁하였다. 어머니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던 어린것이 고름을 움켜쥔채 가버린것이다.

《혜경아!》

윤심은 금시 물속으로 뛰어들듯이 팔을 벌렸다. 강물은 대안의 물버들술처럼 컴컴하였다. 노호하는 물소리는 귀를 멍멍하게 만들었다.

윤심은 정신없이 아래로 내리달렸다. 어둠속의 나무가지들이 채찍처럼 후려쳤다. 윤심은 땅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혜경아,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혜경이 아버지, 저를 용서해주세요!》

윤심은 일어섰으나 앞이 보이지 않았다. 걸을 수가 없었다. 다래와 머루와 뽕나무가 엉키고 아가위, 조가시가 찢리는 숲속을 윤심은 아픈줄도 피로운줄도 모르고 걸었다. 그러다가도 문득 고풍이 떨어진 앞가슴으로 찬바람이 불어지날 때마다 윤심은 소스라치듯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한참씩 지나온 숲속을, 캄캄한 어둠속을 망연히 들여다보았다.

바람이 불고 수림이 설레었다. 밤하늘에는 별도 없었다. 어디나 캄캄한 어둠뿐이었다. 그 어둠속 보이지 않는 공간속에서 락엽이 떨어져내렸다.

아프고 피로운 가슴속을 허비며 떨리는 곡조가 솟아올랐다.

바람차고 눈썹인 황막한 광야에  
흰옷입고 떠난 사람 얼마이던가

입에서가 아니라 심장속에서, 눈물만이 아니라 피까지도 흐르는 비통한 호소, 비분의 호소가...

녀인은 고름없는 저고리앞섶을 움켜쥐고 또다시 밀림속을 헤쳐가기 시작하였다.

장군님께서 작은 불무지를 사이에 두고 오래 동안 윤심이와 마주앉아계시었다. 그이의 앞에는 공작보고를 싸가지고온 아이의 빈 띠개가 놓여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장풍자락이 펼쳐졌다.  
(아이의 어디로 흘러보내고 이 띠개만을 들고 왔단말인가!)

말없는 윤심이를 내려다보시는 그이의 심중은 아프시었다.

장군님께서 천천히 일어서시어 풍막밖으로 나오시었다. 새벽이었다.

눈이 오고있었다. 이해의 첫눈이 내리고 있는 것이었다.

장군님께서 하염없이 천막앞을 거니시었다.

2년전, 지금보다 조금 이른 가을철에 윤심은 혜경을 업고 밀영에 찾아왔었다. 강호의 소환을 앞두고 그의 일을 대신할 윤심이를 장군님께서 불러주셨던 것이다.

적들의 경계를 헤치고 먼길을 걸어온 윤심은 몹시 지쳐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지친것은 혜경이었다. 돌도 채 차지 못한 어린것이 보름가까이 편한 잠 한번 자보지 못하고 어머니 등에 업혀오느라니 오죽이나 힘들었으랴.

장군님께서 혜경을 안으시며 네가 벌써 어머니 등에 업혀 혁명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장군님께서 윤심이에게 과업을 주시면서 혜경을 품에 안으시고 오래 숲속을 거니시었다. 머루알같은 까만 눈으로 줄곧 장군님을 올려다보며 욕심스레 주먹을 빨던 그 애의 귀엽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시었다.

손끝으로 볼을 건드리면 그것이 젖꼭지인줄 알고 입을 벌리던 혜경이, 나무우에서 새가 울어도 그 애는 팔을 벌리고 밝은 해빛이 눈을 스쳐도 방긋방긋 웃곤하였었다.

《이 애가 뭘 달라고 손을 내미는데 어쩐다? ... 여긴 술방울밖엔 없고...》

장군님께서 붓꽃 한송이를 꺾어 어린것의 손에 쥐여주시었다. 그리고 꽃을 물자고 입을 벌리는 어린것의 보통보통한 손을 사랑스레 잡으시고 말씀하시었다.

《오랜만에 나를 찾아온 너에게 이 붓꽃밖에 쥐여줄것이 없구나. 이제 조국을 해방하고 돌아가면 너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것을 다 안겨주마.》

장군님께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어린것을 달래시듯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시었다. ...

그런데 그 애가 어디로 갔단말이나?

어머니의 고름을 움켜쥐고 석포강물우에 울며 떠나려갔을 그 애의 모습이 너무도 눈에 생생하시어 장군님께서 선자리에서 움직이시지 못하시었다.

혁명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전진하고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형님, 동생, 누나를 다 잃고 피바다에 눈물을 뿌리며 떠난 우

리 혁명가들이 그 얼마나 많은가!...

피로 물든 삼천리, 폭압과 탄압의 쇄사술에 묶이운 조국강토...

장군님의 마음은 비분에 사무치시고 가슴속에서 분노가 용솟음치시었다.

실로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조국력사에 이같은 민족수난은 있어보지 못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윤심이의 마음속에서 수난당한 조국의 아픔과 그것을 딛고 일어난 혁명가의 굳센 의지를 보시었다.

민음이 가시었다. 혁명에 모든것을 바친 그의 마음이 뜨겁고 그의 절개가 고결한 그만큼 전사를 아끼시는 장군님의 심정은 열렬하시었다.

문득 그이께서는 어디선가 가까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었다.

《누구요? 윤심동무요?》

《그렇습니다, 사령관동지.》

《그런데 왜 나왔소?》

《사령관동지, 날이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어슴푸레 드러나기 시작한 수림의 우듬지를 바라보시었다. 말쑥이 없으시었다.

차라리 그가 장군님앞에 눈물을 보이고 맘껏 울음이라도 터뜨렸던들 이다지 마음 저리시지 않으셨을는지 모른다.

그이께서는 고개를 드시고 눈오는 하늘을 바라보시었다. 쏟아지는 눈발은 보이지 않으나 어두운 공간에 부드럽게 차있는 어떤 미묘한 가락이 들리고있었다. 그 미묘하고도 은근한,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을 산란케 하는것 같은 그 음향은 끝내 그이의 가슴속에 더운 눈물을 뿌리고야말았다.

윤심이를 채봉대원들의 천막에 보내신 장군님께서서는 사령부통신원을 찾으시었다.

《석포강나루에 내려가보시오. 강호중대장이 도착하기전에 어린것의 행방을 알아야겠소.》

강호중대장은 윤심의 남편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처창즈방향에서 활동하고있는 강호중대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시게 위해 그를 사령부로 부르신 것이었다.

《사령관동지, 꼭 찾아보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잠못드신 이 밤을 역시 뜬눈으로

밝힌 통신원이었다. 그이의 얼굴에 비낀 심뇌의 빛을 가슴아프게 바라본 통신원은 고개를 숙이고 눈오는 밀림속을 걸어갔다.

새로운 임무를 받게 될 강호중대장은 이튿날 아침에 나타났다.

머리에 커다란 털모자를 쓰고 허벅다리에 목갑총을 드리운채 눈을 차며 걸어오는 중대장의 모습은 익세고 담차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너무도 반갑고 기쁘시여 두팔을 벌리시고 마주걸어나가시었다.

《강호동무!》

《사령관동지!》

장군님께서서는 숨차게 뛰여온 중대장을 힘껏 안으시었다.

《이게 얼마만이요? 웅근 한해나 헤어져있었구만.》

중대장은 눈에 덮이는 모자를 밀어올리고 대답을 올리려 하였으나 목이 메였다.

《그래 중대동무들은 다들 건강하오? 정치지도원동무는 어떻게 지내오?》

《중대에 대한 걱정은 조금도 마십시오. 모두들 건강합니다.》

《하긴 동무도 건강이 좋아졌소.》

장군님께서서는 팽팽한 가슴앞으로 엇갈려 돌아간 가족떠를 바라보시며 크게 웃으시었다.

사령부 풍막안으로 들어오신 장군님께서서는 눈에 축축해진 중대장의 외투를 받아 한쪽에 개여놓으시고 그와 마주 앉으시었다. 설새없이 껌벅거리는 중대장의 그 특징적인 큰눈을 바라보시는 장군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여있었다. 한동안 중대장과 이야기를 나누신 장군님께서서는 보초소로 내려가시었다. 사령부 통신원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통신원이 돌아오기까지 몇시간을 그이께서는 보초소주위를 거니시었다. 끝없는 공간에 가득히 차흐르는 눈을 장엄하고도 어떤 목메이는 생각을 불러일으키시었다. 그이께서는 이 나무, 저 나무로 천천히 옮겨가시며 눈덮인 가지들을 잡으시었다.

오래 헤어져있던 동무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의 행방을 아시지 못해 반가운 상봉을 마련해주시지 못하시는 이 순간

의 장군님 심정은 과연 어떠하시랴... 그이께서는  
고요히, 소리없는 밀림을 둘러보신다. 뿌연 눈발  
속에 솟아있는 산들은 어쩐지 천천히 낮아지는것  
같았고 밀림은 줄기차게 쏟아지는 눈사태 저쪽  
으로 멀어져가는것 같았다. 벌써 산언덕과 골짜  
기와 숲의 들쭉날쭉한 굴곡들은 평평히 메워지기  
시작하였다.

장군님께서는 걱정이 드시었다. 숲속의 길들이  
최다 메워지고 방향조차 알수 없게 되면 통신원  
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것이다.

다행히 통신원은 무사히 돌아왔다. 그러나 혜  
경이 소식은 끝내 알아오지 못했다.

장군님께서는 비분과 통분함에 잠기시여 통신  
원의 보고를 받으시었다. 애처롭고 참혹한 정경  
이 보이는것 같으셨고 분노가 솟구치시었다. 그  
이께서는 답답하시고도 비분강개한 심정속에 한  
동안을 무겁게 서계시다가 걸음을 떼시었다.

천막으로 돌아오신 장군님께서는 강호더러 사  
냥을 나가보라고 하시었다. 강호에게는 뜻밖의  
말씀이시었다. 그러나 전혀 아무런 사정도 알지  
못하는 강호는 즐겨 그이를 따라나섰다.

장군님께서는 숙영지의 뒤등성으로 오르시었다.

거기에는 우산모양으로 눈을 뒤집어쓴 작은 개  
암나무들이 펼쳐져있고 검푸르게 보이는 이깔나  
무숲이 묵묵히 눈속에 잠겨 서있었다. 언덕밑의  
개울에서는 물소리가 들리고 젓빛같이 부드러운  
물김이 피어오르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개울을 건너 맞은편 등성으로 오  
르라고 하시었다.

강호는 미끄러운 강언덕을 절반 지치면서 내려  
갔다. 발밑에서는 조약돌이 밟히고 눈우에 머리  
칼처럼 돌아난 속새풀들이 옷자락을 스쳤다. 개  
울을 건느려고 징검다리처럼 놓인 돌을 건드려보  
던 강호는 물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바닥  
이 말갈계 보이는 물속에서 번쩍번쩍 은빛을 내  
는 잔고기들이 빠른 속도로 오르내리고 자재들이  
몽롱한 집게발들을 벌리고 느리게 돌바닥을 기  
여다니고있었다. 이따금 기슭에서 떨어져들여간  
뿌연 눈들이 덩어리가 되어 흔들흔들 움직이면서  
떠내려오고있었다.

갈수록 커가는 즐거움과 누를길 없는 감격이

북받쳐올라 강호는 반달음쳐 둔덕으로 올라갔다.

강호의 유쾌한 모습을 대하시자 그이께서도 마  
음이 가벼워지는것 같으시었다. 사실 장군님께서  
는 기분을 전환하시고싶으시었다. 그러지 않고는  
강호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기 어려우셨고 그를  
위로하실수도 없으시었다.

장군님께서는 큰 마음으로 성큼성큼 산마루로  
오르시었다.

《딱, 딱, 딱》

갑자기 딱따구리의 나무쫓는 소리가 밀림을 울  
리기 시작하였다.

《쉬쉬쉬, 후유후유 후유후유-》

고요히 정적속에 잠들었던 밀림이 일시에 활기  
에 찬 소음을 울리며 설령대기 시작하였다. 나무  
우에서 눈들이 흩어져내리고 삭정이들과 묵은 술  
방울들이 떨어졌다.

강호는 털모자의 귀덮개를 말아올리고 귀를 기  
울였다. 분명 어디선가 노루의 울음소리가 울린  
것 같고 가까운 숲을 건드리며 지나가는 짐승의  
살그락소리를 들은것 같았다.

《이것 보오, 강호동무!》

저만치 앞서신 장군님께서 부르시었다. 강호는  
헐썩거리며 뛰어올라갔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  
졌다. 눈우에서 무엇인가 덩굴며 갈개를 친 자리  
가 있었던것이다.

《새끼곰들이 놀았소.》

분명히 두마리의 새끼곰이 엄지를 따라나왔다  
가 엎치락 뒤치락한 자리였다.

한놈은 산마루로 또 한놈은 산중턱으로 달아났  
다.

《어느놈을 따라갈가?》

장군님께서는 옆구리에 한손을 짚으시면서 물  
으시었다. 강호는 한번에 두놈 다 잡고싶다고 말  
씀올렸다.

《이런땐 한놈을 쫓아야지 두놈을 따르다간 다  
놓치고마오.》

장군님께서는 산마루로 오르시었다. 강호는 곰  
의 발자국을 사이에 두고 장군님옆에서 걸었다.  
그의 마음은 창공으로 훨훨 날듯이 기뻐다. 장군  
님을 모시고 나온 오늘의 사냥은 영원히 잊지 못  
할 크낙한 즐거움으로 될것이였다.

《강호동무?》

《예?》

그는 습관적으로 허벅다리의 목갑총에 손을 가져갔다.

《동무가 ××목재소지하공작임무를 마치고 밀영으로 들어온것이 언제였더라?》

《38년 12월이었습니다.》

《그렇지, 벌써 두해가 가까와오는군.》

장군님께서는 감개무량해하시였다.

《어제 그쪽 조직에서 공작보고를 가지고 공작원이 들어왔소.》

강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의혹, 알지 못할 기대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긴급한 적정보고를 가지고 왔소.그 동문 그동안 아주 잘 싸웠소.》

《사령관동지, 누가 들어왔습니까?》

강호의 가슴은 울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어깨우의 목갑총끈을 바로 잡아 놓으시면서 웃음어린 눈길로 잠시 강호를 바라보시였다.

《윤심동무가 왔소.》

《예?!》

강호는 눈속에 발을 묻은채 벗어섰다.

《동무를 불렀는데 마침 윤심동무도 왔구만. 이제 내려가면 만나보시오. 그동안 윤심동무가 보내준 공작보고들은 국경연안의 적군수집결처들과 병영들을 소멸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소. 지하공작 2년동안에 몰라보게 자랐소. 장한 일이지. 사람들은 투쟁속에서 성장하고있소. 우리 혁명은 이렇게 줄기차게 자라고있는것이요.》

강호는 갑자기 심장이 멎는듯한 충격을 받았다.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쩔바를 모르며 옷깃의 눈을 털었다.

《강호동무.》

어느새 누운촉백나무 저편으로 돌아가신 장군님께서 부르시였다. 강호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면서 그이 옆으로 뛰어갔다. 가슴에 사무치는 행복과 함께 갑자기 더위를 느낀 강호는 모자를 벗고 땀을 씻었다. 그의 눈에는 광채가 어리고 김이 서린 얼굴은 붉어져있었다.

《저 앞을 좀 보오.》

강호는 그만 큰소리로 환성을 올릴번하였다. 등판이 편편한 커다란 엄지곰이 새끼곰들을 랑옆에 거느리고 산마루로 오르는것이 보였다. 엄지를 따라가는 재빛의 새끼곰들은 역시 장난바치들이였다.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는 엄지의 앞뒤를 실새없이 돌아가며 뒤편을 놓고 그러다가는 도토리처럼 내리막을 굴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엄지곰은 발을 멈추고 새끼들이 따라오기를 기다렸다가 눈에 쌓여 하얗게 된 장난바치들을 활아주기도 하고 발로 툭툭 털어주기도 하면서 다시 나란히 눈속을 걸어가군하였다.

《우리 나라 백두산지대에 분포되어있는 갈색곰이요. 발바닥이 넓고 눈이 작은게 특징이지.》

《성미도 온순합니다.》

《그건 어떻게 아오?》

《곰의 굴에서 한번 자본적이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놀라와하시였다.

《그것참 희한한 이야기로군.》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강호는 기분이 들썩해졌다.

《지방공작을 나갔다 돌아오던 길에 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바위굴에 찾아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줄 알고 한잠 자고나니 곰이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저런, 곰이 보초를 서주었군.》

유쾌한 웃음소리가 밀림속을 울려갔다.

장군님과 이야기를 하고있는 사이에 곰은 등성을 넘어갔다.

강호는 깜짝 놀라 장군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벌써 거기에 대해서는 잊으신듯 골짜기아래로 걸음을 돌리시였다. 강호는 발이 옮겨지지 않았지만 그이를 따라서는수밖에 없었다. 그는 차츰 빈손으로 돌아오는 이 사냥에 이상스런 예감을 받았다.

강호는 좀 주저하며 그러나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다.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나 생긴게 아닙니까?》

장군님의 얼굴에는 문득 지울수 없는 서글픔이 가슴을 답답하게 누르는 피로움이 스쳐지났다.

그이께서는 강호의 어깨우에 손을 올려놓으시였으나 말씀을 못하시였다. 다시 걸음을 옮기신



그이께서는 눈에 덮여 땅위에 낮추 드리운 나무가지를 흔들며 눈을 털어주시고는 먼 앞만 바라보시였다.

《운심 동무가 어린것을 잃고 빈몸으로 돌아왔소.》

강호는 가슴이 철렁하였으나 완강히 아무 기색도 나타내지 않았다.

장군님의 표정은 엄숙해졌다.

《마음을 굳게 가지고 내 이야기를 듣소, 강호 동무.》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내쳐 말씀을 못하시였다.

강호는 경건히 그이를 우러렀다.

《저에게 미치는 개인적슬픔이 무슨 큰 슬픔이겠습니까? 저는 어떤 일에도 견디어낼수가 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눈속에 멈추어서서 움직이지 않는 강호의 팔을 다정히 잡으시였다.

《걸으면서 이야기하지, 걸으면서...》

눈은 갈수록 더 많이 내렸다. 하늘은 온통 줄기차게 쏟아지는 눈의 흰 세계였다. 고요히 귀를 기울이면 대기를 스치며 흐르는 눈소리가 금시 와- 하고 들려올듯싶었다. 나무우에서는 때없이 폴썩폴썩 눈이 무너져내리며 나무가지들이 흔들렸다.

장군님께서서는 마치 쏟아지는 눈사태에 호흡이 가쁘시기라도 하신듯 사이사이 숨을 돌려가시며 오래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모자우에는 두툼게 눈이 쌓이고 어깨를 지나간 목갑총끈은 깊이 패워들어가 있었다.

강호는 묵묵히 말이 없었다. 애처롭게 가슴을 찢어주던 생각은 이미 지나갔다. 쓰라린 시련이 지나간 마음속에는 다만 허전하고 쓸쓸한 여운만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 마음속의 사라져가는, 하나 오래도록 조용히 가슴을 허빌것 같은 그 여운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다.

사방 어디라 없이 눈꽃이 흩날리는 산정의 눈길에 깊은 심려에 잠겨 서계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다시 우러르는 순간 강호는 무어라 말 못할 한량없는 숭엄함과 목메이는 걱정을 안고 번쩍 고개를 들었다.

《사령관동지, 준엄한 혁명의 길위에 무슨 희생

인들 없겠습니까? 함께 손잡고 싸우던 귀중한 혁명동지들도 수없이 잃은 저희들입니다. 어린 딸 하나 잃은 슬픔이 무슨 큰 슬픔이겠습니까.》

《강호동무!》

강호는 혁하고 바람을 삼키며 눈을 습벅였다.

《하도 혁명이 귀중하고 조국이 귀중하기에 가슴에 사무치는 모든 슬픔을 묵묵히 참고이기는 혁명가들이지만 우리가 당한 가슴아픈 참상이야 어찌 잊을수 있겠소. 우리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해놓고도 혁명의 길위에 쓰러진 전우들과 희생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처자들을 오래오래 잊지 못할것이요.》

《사령관동지!》

강호는 그만 장군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딸 잃은 피로움에서만이 아니였다. 한 전사의 신상에 미친 아픔을 덜어주시려고 그토록 심려하시며 사랑과 은정을 안겨주시는 그이의 한없는 고마움에 목메여울랐던것이다.

(사령관동지, 진정 사령관동지를 위해서라면 이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순간까지도 불굴의 용사로 싸우고 사령관동지를 모시고라면 이 세상의 한 끝까지라도 웃으며 가겠습니다!)

끝없이 흐느끼는 강호의 등을 더듬으시는 장군님의 눈시울도 젖어들기 시작하시였다.

이날밤 장군님께서서는 보초소를 돌아보시고계시였다. 한 보초소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높지 않은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어떻소, 정황이 없소?》

《없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한쪽 무릎을 눈속에 굽히시고 한참동안 수립속을 살펴보시였다.

《눈오는 날에는 모든 물체가 움직이는것처럼 보이오. 총소리를 잘못 냈다간 귀중한 동무들의 휴식을 방해할수 있소.》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장군님께서서는 정치위원더러 며칠동안 정치학습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경위중대장에게 몇명의 대원을 주어 적의 배후를 치고 돌아오라는 임무를 주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몹시 바쁘신 시간을 보내시였다.

우선 강호와 윤심을 즐겁게 해주시기 위해 다채로운 사업들을 조직해주시고 그들과 자주 만나담화하시느라 시간이 없으시였으며 역사적인 소할바령회의 이후 팽활한 지대에서 소부대활동으로 들어간 초시기의 투쟁을 지도하시기 위해 백두산동북부의 수림속에 머물러계시는 이 며칠 동안에도 여러곳에 통신원을 보내시어 투쟁을 지도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강호에게도 앞으로 백두산서남부 지대에서 투쟁을 벌릴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고 여기서 부닥치게 될 난관과 사업들에 대해 상세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어느덧 강호중대장이 사령부를 떠나게 되었다. 천막앞에는 경위중대원들과 재봉대원들, 작식대원들이 나와있었다. 재봉대원들속에는 군복입은 윤심이기도 서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강호중대장과 함께 나중에 장풍속에서 나오시었다. 유격대원들이 강호중대장을 에워쌌다. 강호중대장이 작별인사를 나누자 장군님께서 말씀하셨다.

《윤심동무도 함께 따라오시오.》

재봉대원들이 윤심의 등을 떠밀었다.

《가야 해요. 중대장동지를 기쁘게 해드려요.》

윤심은 처녀시절에조차 느껴보지 못한 수집음과 행복을 안고 사령관동지의 뒤를 따라갔다. 장군님께서서는 윤심을 중대장과 나란히 앞에 내세우시었다.

《윤심 동무, 저 앞의 골짜기둔덕까지 중대장동무를 바래다드리시오.》

장군님께서서는 한손을 드시어 이빨나무숲 언저리에 길게 옆으로 뻗은 눈부신 흰 언덕을 가리키시었다.

두사람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어 사령관동지를 우려했다.

장군님께서서는 대견히 미소를 지으시었다.

《어서 갔다오오 어서!》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윤심이가 돌아올 때까지 한자리에 오래 서계시었다.

잠시후 사령부도 천막을 걷고 행군길에 올랐다.

두줄로 늘어선 길지 않은 종대였다. 기관총을 세운 대오의 앞에는 붉은기가 날리고 뒤에는 재봉대원들이 따라갔다. 행군 때이면 언제나 그러하시듯 장군님께서서는 대오의 앞에서 뒤로,뒤에서 다시 앞으로 오가시며 대원들을 보살피시었다. 그이께서는 처음으로 배낭을 지고 총을 멘 윤심의 곁에서 잠간씩 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불편해하는 행군자세를 바로잡아주시었다.

《행군이 힘들지 않소?》

《힘들어도 참고 견디여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련이 더 많을것이요.》

《그래도 견딜수 있습니다, 사령관동지.》

장군님을 우러르는 윤심의 얼굴에는 소년처럼 붉게 홍조가 떠돌고있었다.

《동무의 밝은 얼굴을 보니 내 마음도 밝아지는 군. 기쁘오.》

장군님께서서는 붉은 기폭이 날리는 대오의 앞쪽을 바라보시며 윤심에게 힘을 주시듯이 말씀하시었다.

《이런 땀 노래를 부르는게 좋지!》

누군가 대렬속에서 선창을 떴었다.

칼바람 추운 겨울 물러갈 때에

꽃피여줄 붉은 바람 일어났도다

목메이는 감격과 사무치는 걱정을 안고 윤심에도 유격대원들도 따라불렀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온 지구우에

룩대주와 오대양은 붉어지노니

대오는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밋밋한 등판에 이르렀다. 여기서 대오는 잠간 멈춰섰다. 사령부와 재봉대가 헤어져야 하는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재봉대를 안전지대로 보내시고 항일유격대의 소부대들을 지도하시기 위해 적들의 《토벌대》가 옥실거리는 백두산동북부의 수림속을 계속 행군하실 계획이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떨어지기 아쉬워 울먹이고있는 재봉대원들의 손을 하나하나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울지들 마시오. 이제 멀지 않아 또다시 만나게 될것이고 해방된 조국으로 웃으며 돌아갈터인데 우리 웃으면서 헤어집시다.》

그러나 윤심이와의 이 리별이 마지막리별이 되실줄이야 어찌 아셨랴.

장군님께서는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는 혁명가들의 대오에 강호중대장과 윤심이가 없어 헤아릴수 없는 아픔과 심중의 괴로움을 느끼시며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시었다.

.....

승용차는 높지 않은 언덕을 뚫아오르고있었다. 길좌우에는 이랑이 짧은 서덜밭이 펼쳐져있었다. 거기서는 몽당수수와 콩들이 자라고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콩이파리들이 번져져서 흰 파도 이랑이 일어나고 탐스러운 수수이삭이 설레었다.

강에서는 빨래하는 녀인들의 물방치소리가 청청 들려왔다. 웃동을 벗어버린 사내애들이 반두질하는 모습도 보였다.

남혜경...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다시 그 가슴아픈 회상을 이어가시었다.

강호중대장을 보내시고 재봉대와도 헤어지시고 백두산수림속을 행군하시게 되셨을때 수령님께서는 걸음이 옮겨지지 않으시여 다시 석포강류역으로 대원을 파견하시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웅근 두해나 지난 뒤에야 그 애의 소식을 아시었다.

혜경이는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있었다. 석포강류역의 양가촌마을농민이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구원한것이였다.

농민의 행방은 알수가 없었다. 어디론가 몸을 숨겨버린것이였다. 혜경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만도 수령님께는 크나큰 위안이 되시었다.

해방된 조국에 돌아가면 혜경이를 꼭 찾자, 석포강물우에 울며 떠내려간 그 불쌍한 어린것을... 윤심이와 강호의 가슴에 고이고 맺힌 쓰라린 아픔과 눈물도 씻어주고... 얼마나 좋으랴! 두고두고 옛말을 하면서 살아보자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었다.

그런데 윤심이도 강호도 오지 못하고 혜경이마저도 오늘까지 찾지 못하신것이다.

얼마나 많은 나날을 수령님께서는 그 애때문에 심려하셨는가! 윤심이를 생각하시여도 혜경이가 떠오르고 강호를 생각하시여도 그애가 그리워지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해빛에 번뜩이며 흐르는 강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시었다. 묵묵히 명상에 잠긴듯한 외나무다리가 지나갔다.

《저것이 옥천리관리위원회입니다.》

무릎우에 손을 올려놓고 단정히 앉았던 군당위원장이 말쑥올렸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토방이 달린 기와집 한채를 바라보시었다.

차가 몇자 키가 크고 얼굴에 강파로와보이는 관리위원장과 손에 철필을 쥔 회계원처녀가 뛰어나왔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관리위원장을 차에 태우시고 다시 떠나시었다.

승용차는 방목지로 들어가는 골짜기어구까지 올라갔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돌 많은 산골길을 걸으시었다. 날씨는 무더웠다. 땅에서는 열기가 오르고 나무잎들은 번들번들 진을 흘리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이마의 땅을 훔치시면서 자주 골안을 올려다보시었다. 걸음보다 마음이 앞서시었다.

드디어 방목지에 이르시었다. 작은 시내가 흐르는 골안이였다. 잡관목들을 깨끗이 쳐낸 풀판은 탐스럽게 푸르렀다.그 풀판 여기저기에 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큰 소나무들이 서있었다. 마침 소들이 물을 먹으러 개울로 내려오고있었다. 코투레도 고삐도 없는 소들은 야생하는 들소의 무리들 같았다. 흰저고리에 풀판처럼 파란치마를 입은 처녀가 긴 회초리를 휘두르며 소들을 몰아오고있었다.

개울바닥에 내려오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다가오는 처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시었다. 처녀는 명랑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뛰어왔다. 그는 소들이 물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회초리를 휘두르면서 물가에 한줄로 세워놓았다. 물속에 소들의 그림자가 비껴 물빛이 온통 불그레해졌다. 소들은 조심히 발을 옮겨놓으면서 땀난 주둥이로

물냄새를 맡더니 숨가쁘게 들이키기 시작하였다.  
먼저 물을 마신 소들은 채찍의 세례도 아랑곳  
않고 물속에 들어가 더운 가슴을 식히고있었다.  
처녀는 돌아가며 소들의 잔등에 물을 끼얹기 시  
작하였다. 해별에 달아오른 등에 물을 반자 소들  
은 어질게 주둥이를 드리우고 느침을 흘리면서  
낮게 소리를 내었다.

처녀는 물이 흐르는 소들의 목을 그러안고 맑  
은 목청으로 웃었다.

《야, 이것들이 그저 막 좋대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유쾌하게 웃으시었다. 그리고 강변의 조약돌을  
밟으시며 올라가시었다.

인기척에 놀란 처녀는 이쪽을 돌아보았다. 순  
간 처녀는 물을 걷어차면서 한걸음 물러섰다. 너  
무도 갑자기, 너무도 뜻밖에 경애하는 수령님을  
뵈은것이였다.

《수령님!》

처녀는 환희에 벅찬 감격으로 탄성을 올렸다.  
물밑은 물때가 오른 돌들이 깔려있었다. 흥분한  
처녀는 한손으로 치마자락을 걷어쥐고 넘어질것  
처럼 비칠거렸다.

《이리 나오라구, 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처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었다. 처녀는 물묻은 손을 치마자락으로 훔  
치며 어쩔바를 모르다가 어망결에 그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돌우에 올라섰다. 건강하고 탄력  
있는 처녀의 몸에서는 싱싱한 풀냄새마저 풍기는  
것 같았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해빛에 감실감실하게  
탄 처녀의 통통한 손을 잡으시었다.

《어제 신문에서 동무네 소식을 읽었소. 장한  
일들을 하였소.》

순진한 처녀의 눈에 환희의 불꽃이 빛났다.

《수령님, 저희들은 해놓은 일이 별로 없습니  
다.》

처녀는 다만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우  
유를 더 많이 먹일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일을 좀 시작해보았을뿐이라고 말씀올렸  
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래 일해보니 어땠가, 젖소에서

째 젖을 많이 낸직한가고 물으시었다.

어쩌면 신심보다도 호기심이 어린것 같은 처녀  
의 눈에 생각깊은 표정이 비껴갔다.

《이제는 소들이 우리 지방 기후에 익숙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젖통이 크지 못하고 한  
번에 짜는 량이 적은게 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저희들은...》

처녀는 좀 자신없이 말쑤드렸다.

《젖을 많이 내게 하느라고 자주 뜨물을 받아다  
먹입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번씩 젖통이 불기  
만 하면 아무때건 짍니다.》

《동무들은 참 그럴듯한 생각을 했소.》

뜻밖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치하하셨다.

《젖소는 관리하는것도, 젖짜는것도 다 특성에  
맞게 해야 하오. 동무들의 경험은 젖소를 치는  
다른 농장들에서 본받을만한 가치가 있소.》

처녀의 얼굴에는 막을수 없는 기쁨이 피어났다.  
그는 첼버덩 물에 들어가더니 점박이 한놈을 끌  
어다 앞에 세워놓았다.

《이게 젖이 잘 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한창 푸살이 올라 통통  
한 소잔등을 쏘아보시었다.

《협동농장들에서도 자체로 젖소를 쳐서 유치원,  
탁아소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일수 있겠습니까.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기특하게 처녀를 바라보시었다.

《동북에서 나왔는지?》

《예.》

《이름은 남혜경이고?》

《그렇습니다.》

《고향은 어디나?》

처녀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떠올랐다.

《한곳에서만 살지 않아서 똑똑한곳이 없습니다.  
그저 양마강기슭의 류벌촌에 있었습시다.》

《석포강쪽에서는 살지 않았나?》

《거기서는 살지 않았습시다.》

《여기 좀 앉으라구, 앉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먼저 돌에 걸터앉으시  
며 무릎우에 팔굽을 꼬이시었다. 처녀는 치마폭

으로 무릎을 감싸고 그이의 앞에 앉았다. 반쯤 고개를 숙이고 조약돌을 만지작거리고있는 처녀를 머리우에서부터 굽어보시며 수령님께서는 마음을 울렁이시였다.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나?》

《제가 한살때 집을 떠났습니다.》

《한살때?... 그래 어머니는?》

《여섯살때 양마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세살때가 아니구?》

처녀는 놀라운 눈으로 그이를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처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으로 무릎을 쓰다듬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한동안이나 그이께서는 말쑤없이 거니시였다.

《어디 좀더 자상히 말해보지, 응 혜경이!》

어린 처녀의 대답에 혹시나 기대를 품으시고 그이께서는 긴장속에 서계시였다.

《어머니는 소개양이라는 지주놈한테서 머슴을 살고있었습니다. 지주놈은 양마강너머에 아편밭을 가꾸고있었는데 장마통에 마름을 시켜 사람을 실어나르다가 배를 뒤집어놓고 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도 그때 잘못되었습니다. 여섯살난 제가 어머니시체를 건져놓은 갈밭에서 울던 생각이 납니다.》

《...!》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불시에 마음이 허전해지시는것을 어찌하실수 없으시였다. 틀림없이 혜경이라고 믿으시고 찾아오신것은 아니였으나 마치도 큰 기대를 가지셨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신것처럼 서운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런 걸음이 벌써 한두번이 아니시였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으시고 찾아가셨다가 섭섭한 걸음을 돌리신 일이 수십번도 더 되시였다. 사람을 띄워 알아보신 일은 헤일수도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창립식에 나가셨을 때에도 그리고 그후 학원학생들을 만나시는 자리에서도 여기 혜경이라는 애는 없느냐? 동북에서 나온 애는 누구냐? 하고 자주 물으시였다.

그러나 혜경이는 오늘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루도 한달도 한해도 아닌 많고 많은 나날 그애를 두시고 심려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생각나시며 그이께서는 가슴이 아프시였다.

《내 혜경이한테라도 이야길 해야 되겠구만. 혜경이도 불쌍하게 자랐지, 어려서 부모들을 다 여의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다시 돌우에 앉으시며 처녀의 손을 잡으시였다.

사람들은 모두가 긴장해졌고 숨엄해졌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수령님께서는 군당위원장도 관리위원장도 다 옆에들 와 앉으라고 하시였다. 그리고 동무들도 다 알아야 할 사연이고 잊지 못할 이야기라고 하시였다.

사람들은 숨소리마저 죽이고 경건히 그이의 말씀을 듣고있었다.

백두산동북부의 수립속을 울리던 총소리, 아이의 울음소리, 너인의 비명소리... 눈오는 속영지와 잊지 못할 사냥터, 강호며 윤심이와 헤어지시던 때의 가지가지 눈물겹던 이야기들...

세월은 흘렀으나 어제일처럼 눈앞에 생생히 떠오르는 그 모든 추억들을 더듬으시려니 그이께서는 자연 눈언저리가 붉어지시고 음성은 갈리시였다. 아버지, 어머니도 오지 못한 조국에, 그러나 그들의 념원이 꽃피고 열매맺고, 그래서 더욱 귀중한 이 조국에 그들의 어린 딸마저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절통함을 어디에 다 하소할수 있겠는가 그이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속에서는 흐느낌소리가 터져올랐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을 뒤져도 강호중대장의 딸은 나지질 않소. 그 애만 찾아놓으면 내 마음이 것처럼 아프지는 않겠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다. 숲이 설레고 풀잎들이 흔들렸다. 꿀짜기의 풀판 한끝에서 문득 어미를 찾는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매- 하고 길게 들렸다.

《수령님!》

모두들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처녀가 불쑥 일어섰다. 처녀의 맑은 두눈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가 그 동무를 찾겠습니다.》

《뭘 동무가?》

《예, 제가 찾겠습니다. 찾을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처녀의 얼굴을 이윽히 바라보시다가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어떻게 찾는다고 그러나, 동무는 못찾아.》

《수령님, 제가 소식을 내보겠습니다. 아는분들도 있고 동무들도 많습시다.》

수령님의 심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싶어 몸달아오른 처녀의 진정을 들이시자 그이의 마음도 후터워지시였다.

《그러자구, 동무가 찾으면 나한테 알려주고 내가 찾으면 동무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꼭 잇게 해주어야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찾겠습니다.》

처녀는 흐르는 눈물도 씻을념을 못하고 방긋 웃었다.

《기쁘오, 강호의 딸은 못찾았지만 그 애를 만난것만치나 기뻐. 훌륭한 처녀를 알게 된것이 기쁘구만. 혜경이같이 착하고 일잘하는 동무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먼길도 오겠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진정으로 만족하시였다. 이제는 떠나시는 걸음조차 가벼우실것 같으시였다. 이 처녀를 생각만 하셔도 언제든 기쁘실것 같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혜경이도 강호중대장이나 윤심이같은 혁명선열들을 잊지 말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 훌륭한 혁명가가 되라고, 우리의 모든 세대대들이 바로 그렇게 성장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소방목경험도 더 쌓고 더 많은 것을 짜내며 혜경이의 소방목경험을 온 도에 일반화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방목지를 떠나가셨다.

처녀는 끝까지 끝까지 그이를 따라갔다. 그리고 경건히 웃기를 여미고 경애하는 수령님을 배례드렸다.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자애로우신 우리의 수령님이신가!

경애하는 수령님을 눈물속에 우러러 선 방목공 처녀의 가슴은 이순간 말 못할 감격의 소용돌이로 굽이치고있었으니 그것은 이 땅에 오지 못한 영웅투사들과 그들의 어린 딸의 마음까지도 합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원히 따르는 조국의 훌륭한 딸이 되려는 간절한 생각이였다.

며칠이 지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전사의 유자녀를 찾으려고 옥천리를 다녀가셨다는 소식은 삽시에 온 도안에 퍼졌다. 사람들은 누구나없이 흥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정에 목이 메였다.

현지도도사업을 끝마치시고 도당에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61년, 한해의 농업부문사업을 총화하는 농업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고 뒤이어 교육일군열성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매우 만족하시였다. 도내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사업과 함께 교육사업에서도 천리마운동이 힘있게 일어나고있었다. 2일간에 걸치는 회의에서 많은 교육일군들의 토론을 들으시면서 그이께서는 후대교육에서 교원들의 책임성과 그들의 역할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생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우리 조국의 미래인 후대교육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도안의 교육일군들을 축하하시고 청소년교육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말씀하시였다.

회의를 끝마치신 그이께서는 곧 평양으로 올라가실 계획이시였다. 이런 때 한 로인이 그이를 찾아왔다. 칠순이 넘은 로인이였다.

로인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떠나신줄 알고 100리길을 내내 마음조이며 왔다고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인자하게 미소하시며 로인을 휴게실로 안내하시였다.

《앉으십시오. 편히 앉으십시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로인을 안락의자에 앉히시고 친절히 담배를 권하시였다. 그러나 로인은 담배를 받을념도 못하고 경모에 찬 마음으로 한동안 그이를 우러르다가 중요한 사연이 있어 찾아왔다고 말씀올렸다.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안락의자의 팔걸이에 팔굽을 고이시며 너그러운 표정을 지으시였다.

《수령님께서 옥천리를 다녀가셨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습니다.》

로인은 흥분하여 턱을 가볍게 떨면서 말씀올렸다.

《수령님께서 옥천리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달아올라 안절부절못했습니다. 이젠 분명 우리 애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저이기 놀라우신 눈길로 로인을 바라보시었다.

《수령님, 제가 그날밤 석포강에서 그 애를 건졌습니다. 총에 맞아 거지반 물에 잠긴 배안에서 우는 애를 구원했습니다. 그 애의 손에는 저고리고름이…》

《……!!》

수령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파문이 그이의 얼굴에 떠올랐다.

《말씀하십시오, 로인님. 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로인은 말씀드릴수가 없었다. 후들거리는 손으로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흰 명주천에 자그맣게 접은 물건을 꺼낸 로인은 가까스로 눈물을 삼키면서 수령님께 울리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그것을 받아드시었으나 펴보실 생각을 못하시었다. 너무도 뜻밖에, 그러나 언제 한번 잊어본적 없는 혁명전사의 그 유물을 받아드신 그이의 손길은 떨리고 안광은 번쩍이시었다. 방안은 숨哽해졌다. 침묵은 한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이윽고 수령님께서서는 천천히 명주천을 헤치시었다. 거기에는 마치도 선혈처럼 붉은, 그러나 이제 는 많지도 색이 바랜 자주색고름이 개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오랜 세월 농작미에서 종이장처럼 얇게 잠이 든 고름을 조용히 집어드시고 하염없이 쓸어보시었다. 너무나 눈에 익은 고름이었다. 윤심이의 저고리에 한쪽밖에 달려있지 않던 그 자주색 고름이었다. 고름 없는 저고리 앞섶을 움켜쥐고 설음을 참느라 애쓰던 그 밤의 윤심이 모습이 선하시었다.

그 어떤 고난도, 희생도, 슬픔도 다 이겨내며

장군님 따라 혁명을 하겠다고, 기어이 조국을 해방하겠다고 굳은 맹세다지며 떠나갔던 혁명전사… 온갖 시련과 투쟁속에 흘러온 그의 생애는 너무나 짧았고 또한 너무나도 간고했었다.

《로인님, 사연을 좀 더 말씀해주시시오. 그 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진정으로 로인의 이야기를 듣고싶으시었다. 온 종일이라도 사랑하는 혁명전사들을 생각하시며 추억속에 잠기시고싶으시었다.

그러나 로인은 쉽게 말씀드리지 못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 주름깊은 얼굴로 굴러내리고있었다.

백두산 벌목촌의 가난한 벌목군이었던 로인은 그날밤 총소리에 놀라 강으로 달려나갔다가 우연히 아이를 건지게 되었다. 우는 아이의 손에 쥐여져있는 저고리고름을 발견했을 때 로인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사연을 다 알수는 없었으나 필경 나라를 찾는 의로운 일에 몸바친 한 어머니를 생각하였다. 로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를 구원했으며 왜놈들의 수색을 피해 그날밤으로 벌목촌을 떠났다.

그때로부터 정처없는 방랑의 눈물겨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부모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어린것을 등에 업고 거칠은 이국의 산야를 그 얼마나 헤매고 돌아갔던가!…

더듬거리는 로인의 이야기를 들으시던 그이께서는 로인의 손을 꼭 잡으시고 고개를 숙이시었다.

《로인님은 혁명가입니다. 로인님의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수령님!》

로인은 어깨를 떨며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안광에도 눈물이 어리었다.

한동안 뜨거운 감격과 기쁨과 행복의 소용돌이 속에 시간이 흘러갔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아직도 흐느끼는 로인을 조용히 진정시키시고 혜경이 소식을 물으시었다.

그러자 감격의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로인의

얼굴에 막을수 없는 기쁨이 떠올랐다.

《수령님, 그 애가 이번 교육일군열성자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예? 회의에 참가했다구요?》

《예! 제가 그 애의 이름을 몰라 미영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애를 동미영이라고 부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로인의 손을 다시한번 꼭 잡으시었다.

《로인님, 그 애가 어제 회의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상평인민학교 모범교원이 아닙니까?》

이번에는 로인이 어리둥절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몹시 흥분하신 표정으로 방안을 거니시었다.

《나는 그 애가 혜경인줄 몰랐습니다. 그 애의 토론을 듣고 너무 감동하여 나는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혜경인줄은 몰랐습니다.》

로인은 다시한번 목이 메었다. 눈언저리가 붉어졌다.

세상에 이처럼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도 있단말인가!

어느덧 휴계실문이 열리고 복도를 울리는 빠른 발걸음소리가 들려왔다. 혜경이를 데리러 일군들이 떠나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시었다. 이제는 정말 혜경이를 만나게 되누나 하는 형언할수 없는 감격과 함께 그렇게도 사연 많은 이야기와 추억을 남긴 그 애를 보시기만 하셔도 목메이실듯한 걱정이 사무치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한동안 창력을 짚으시고 풀라타 나스의 넓은 일새가 바람에 설렁이는 정원을 내다보시다가 조용히 로인에게 물으시었다.

《로인님, 그 애가 어떻습니까? 어릴 때의 모습은 몹시도 귀여웠는데...》

경애하는 수령님의 음성에는 간절한 그리움이 울리고있었다.

《애가 여간만 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곱고 일도 그렇게 잘합니다. 학교마을에서 15리 떨어진 세집 마을 아이들의 학습지도를 위해 기울인 노력만 해도 여기서는 다 이야기할수 없습니다.》

《혜경이가 어머니를 닮은 모양입니다. 그 애의 어머니가 그렇게 살뜰하고 훌륭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휴계실바닥을 조용히 옮겨디디시며 생각에 잠기시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도 생각많은 날이였다. 얼마나 많고많은 나날을 그이께서는 전사의 딸을 두고 심려하셨는가.

드디어 밖에서 승용차 밋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마음이 급하시여 창문을 여시고 밖을 내다보시었다. 마침 차에서 혜경이가 내리고있었다. 흰저고리에 분홍치마를 받쳐입은 참하고 귀엽게 생긴 처녀였다. 어제 연단에서 눈물을 흘리며 토론하던 그 산간인민학교 녀교원이 틀림없었다. 자주 눈이 막혀 학교에 못오는 산간마을 세집 아이들을 위해 어린 녀교원이 기울인 성스러운 노력을 두시고 수령님께서서는 이 동무가 혁명가요, 이 동무가 바로 교육자요. 나는 이 동무의 모범을 전국의 교원들이 본받을것을 호소합니다! 라고 치하시며 손수건으로 눈구석을 누르시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녀선생이 수령님께서서 것처럼 안타까이 찾으시는 혜경이였단말인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솟구치는 흥분을 애써 진정하시며 계단을 오르는 처녀를 내려다보시었다.

잠시후 휴계실로 혜경이가 들어섰다.

조용히 저고리앞섶을 더듬고 부폰 치마를 쓸어내린 처녀는 깊이 허리를 굽혀 어버이수령님께 눈물겨운 인사를 드리고있었다.

방안은 일시에 격한 감정으로 술렁이다가 물을 뿌린듯이 고요해졌다. 금시 두팔을 벌리시고 달려나가시며 맞으실것 같던 수령님께서서는 격한 표정을 지으시고 처녀의 얼굴만 이윽히 바라보시고 계셨다.

침묵은 한순간 계속되였다. 그이의 표정은 깊고 조용하였으나 끝없는 사색의 파문이 지나갔다.

드디어 그이께서 눈을 슴벅이시었다. 세월은 아득히 흘렀어도 잊지 못할 사랑하는 혁명전사의 그 모습이 너무도 력력히 처녀의 자태속에 비끼



여있었다.

이제 윤심이가 왔느냐, 혜경이가 왔느냐!...

수령님께서서는 두팔을 벌리시고 혜경이의 어깨를 와락 품어안으시었다.

《혜경아!》

처녀는 그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떨며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그이께서는 앞이 보이지 않으시었다.

《너는 어떻게 이제야 왔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알기나 했느냐.》

《아버지, 아버지!》

목메인 처녀의 울음소리는 꿈속에서처럼 들리고 수령님께서서는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었다.

《강호동무, 윤심동무! 동무들이 오지 못한 조국 땅에 와서 혜경이를 만나오... 어머니 가슴을 허비고 갔던 이 애를 오늘에야 찾았소!》

흐느낌소리는 더 높아지고 수령님께서서는 목이 메시었다. 휴계실안의 모든 동지들이 눈물을 흘렸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인민의 행복, 자애로운 수령님을 모신 인민의 감격속에 그들은 울고올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처녀의 손을 잡아 로인의 옆에 앉히시고 이제는 살아온 이야기나 해보라고 하시었다.

처녀는 아직도 눈물에 젖어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면서 어머니 가슴에서 발버둥치며 떨어지던 그 밤의 어렴풋한 인상과 고마운 로인의 은정을 생각하며 오래오래 흐느끼며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가벼운 한숨을 지으시고 그 옛날 밀림속에서 자장가를 불러주시듯 처녀의 어깨를 쓰다듬으시었다.

이제는 다 흘러간 옛날의 이야기다. 그러나 그 기막힌 회포를 오늘에야 풀게 되고 오늘에 풀고도 그날처럼 잊지 못할 아프고 소중한 이 추억이 세월과 함께 덧없이 흘러가버리지는 않을것이다.

그이께서는 창가로 다가가시었다. 한창 숲을 이루고 일어서는 새 도시우에 9월의 밝은 해빛이 찬란히 넘치고있었다.

참으로 간고했던 그날이 있어 오늘이 있고 투사들의 피어린 싸움의 길이 있어 오늘의 이 행복이 열리어있음을 우리 혜경이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수령님께서서는 한손으로 창턱을 짚으시고 조용히 로인에게 물으시었다.

《로인님, 내가 이 애의 아버지가 되여도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로인은 어떻게 대답을 올렸으면 좋을지 몰라 그저 안락의자의 팔걸이만 쓰다듬었다.

《제가 섭섭하다니요? 그럴수 있겠습니까. 이 애가 수령님곁에 있는다면 것처럼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이께서는 부드러운 안면에 너그러운 표정을 지으시고 말씀하시었다.

《로인님께서 얼마나 정을 붙인 애니까? 다만 내가 이 애의 옆에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대신해주고싶고 이 애의 장래까지도 걱정해주고싶어 그렇습니다. 로인님도 평양에 올라가십시오. 가까이에서 서로 오가며 한집안식구처럼 지냈시다.》

로인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씀도 드릴수 없었다. 이 순간의 자기 심정을 나타낼 그 어떤 표현도 로인은 찾을수가 없었다.

이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송수화기를 드시더니 옥천리 소방목공 혜경이를 찾아달라고 하시었다. 며칠전 산간의 방목장에서 그 처녀와 나누신 약속을 수령님께서서는 잊지 않으시고계시었다. 아니, 잊으실수 없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조국해방의 위대한 성전에 고귀한 생애를 바친 투사의 딸과 함께 바로 것처럼 키워야 할 이 나라의 귀중한 딸이 또 먼 방목지에 있다고 언제나 생각하시고계셨던것이다. 이 나라의 모든 아들딸들이 바로 그들처럼 성장하고있었다. 조선은 참으로 위대한 아버기를 모신 행복한 사람들의 조국이었다.

**박유학**

# 위대한 사회주의교육강령을 문학창작에 철저히 구현하자!

강능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교육테제에 접한 우리 작가들은 온 나라 인민들과 함께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으며 테제에서 제시된 모든 과업들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고야말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교육테제에서 사회주의교육은 어떤 원리에 기초하여 어떤 원칙을 틀어쥐고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밝혀주시였을 뿐 아니라 그 모든것을 능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온갖 보장조건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해명하여주시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람,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키우며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는 주체의 대교육전서이다.

테제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며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참다운 길을 명시한 위대한 공산주의적교육강령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길에서 공산주의적인간육성문제, 교육문제를 빛나게 해결하는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힌 사회주의교육의 백과전서적인 총서이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세기에 걸쳐 교육문제, 인간개조문제를 혁명과 건설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내세우시고 그를 빛나게 해결하여 오시는 과정에서 이룩하신 탁월한 사상리론적업적과 현명한 령도, 고매한 덕성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선 첫시기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교육 사상

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것처럼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무료교육과 혁명교육의 빛나는 모범과 혁명인재육성사업의 귀중한 경험들을 창조하심으로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교육전통을 마련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교육사업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심으로써 지난날 무지와 몽매가 지배하던 우리 나라를 100만의 지식인대군을 가지고 력사상 처음으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해나가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되게 하시었다.

실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언제나 근로하는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시고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우기 위하여, 모든 세대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조국의 미래의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온갖 배려를 다 돌려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의 위대한 산물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적교육사상과 혁명적교육리론, 탁월한 령도예술, 불멸의 업적과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그 내용의 심오성과 과학성, 독창성과 풍부성에 있어서 최상의 경지에 오른 우리 시대의 대기념비적로작으로써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과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 것이다.

인간개조의 학설인 이 위대한 테제를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육성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3대혁명을 훌륭히 수행하여 전반적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

공산주의적인간육성과 인간개조의 참다운 교과서인 테제는 우리 작가들을 인간개조와 공산주의적인간육성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혁명적작품창작에 힘있게 고무하여주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교육테제의 제시는 사회주의교육발전에서뿐만아니라 사회주의문학예술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혁명적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뚫어넘치는 감격과 흥분된 심정으로 받아안은 우리 작가들앞에는 지금 테제를 문학작품창작에 철저히

구현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 영예롭고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교육테제를 높이 받들고 건결히 옹호하며 창작에 적극 구현해나가는 것은 우리 작가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성스러운 과업이다.

모든 작가들은 테제를 한구절한구절 깊이 새기면서 그 글줄마다에 담겨진 심오한 진리, 인간교육, 인간개조의 사상, 리론, 방법들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창작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작가들이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작품을 적극 창작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것이다.》**

**《…우리의 교육사업과 문학예술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것을 자기의 기본과업으로 내세워야 하며 그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교육부문일군들은 교육교양의 모든 내용과 방법이 학생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지향되도록 하여야 하며 작가, 예술인들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필봉을 들어야 할것입니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 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인 동시에 사회주의문학예술창조의 기본요구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본질에 있어서 공산주의적 인간육성과 인간개조에 복무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이며 모든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공산주의적인간학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공산주의적인간육성과 인간개조의 문학예술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모든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찬연히 빛나는 위대한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창작에 옹계 구현하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적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개조의 합법칙성과 인간개조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심오하고 명철한 철학적해명을 주고있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교육의 위대한 강령일뿐 아니라 사람들을 주체의 세계관, 참다운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공산주의적 인간학창조의 길을 환히 밝혀주는 위력한 사상, 리론, 실천적 무기로 된다.

우리 문학이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맞게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주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작품창작의 사상주제를 이에 맞게 설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교양하는 작품창작에 선차적주목을 돌려야 하며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인간이 가져야 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사람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세계를 혁명적으로 변혁해나가는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그들에게 투쟁의 지침을 주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세울수 있다.

우리 문학이 주체시대의 혁명적세계관인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의 대백과전서인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형상한 작품을 훌륭히 창작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교육테제와 관련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적교육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주는 작품을 적극 창작해야 한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교육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것처럼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주체교육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으며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의 첫날부터 교육사업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필요한 온갖 대책과 조치들을 다 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세기에 걸쳐 교육분야에서 이룩하신 주체의 사상리론적업적과 풍부한 실천적 경험, 우리 근로자들과 새세대들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감명깊이 형상하여 근로자들과 후대들을 불멸의 주체사상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수령님의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의 최대의 영예이며 자랑이다.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작품을

최대의 충성심을 가지고 창작하여 그 사상예술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맞게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해서는 또한 당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똑똑히 인식시켜주는 작품과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적극 창작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간직하고 어떤 환경속에서도 항일선렬들처럼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여나가는 참다운 근위대, 결사대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에 관한 작품을 적극 창작하여 근로자들과 세대대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의식과 공산주의도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관점으로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작품을 적극 창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필승의 신심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미래를 사랑하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계급교양에 관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에서 시달리던 지난날을 잊지 말고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자라나는 세대대들에게 지난날 침략자들과 계급적원수들이 로동자, 농민들을 어떻게 착취, 략탈하였는가 하는것을 똑똑하게 알려주고 그들속에서 착취계급과 그 제도를 극도로 미워하는 정신을 키워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원칙인 집단주의정신을 키워주는 작품을 창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또한 공산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인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워주는 작품을 훌륭히 창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로동을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일하기를 즐겨하고 로동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내용으로 한 작품을 적극 창작하여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것을 생동하

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조국의 무궁한 융성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사람들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고 사회주의적준법사상으로 교양하며 공산주의도덕과 사회주의생활양식을 가지도록 교양하는 작품을 훌륭히 창작해야 한다.

작가들은 전반적의무교육제도와 전반적무료교육제도를 비롯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혁명적본질과 그 우월성을 감명깊게 형상한 작품창작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세대대들에 대한 교육자, 교양자로, 교육사업의 보장자로 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교육교양사업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주인답게 참가해야 한다는 테제의 사상을 생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도 적극 창작해야 한다.

사회주의교육학에 관한 테제를 창작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온 나라에 혁명적작품을 철저히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을 적극 창작해야 한다.

테제의 중요한 요구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생동안 공부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혁명적작품에서는 학습이 주체형의 혁명가로 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될뿐만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일생동안 혁명의 한길에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변함없이 충직하게 살며 싸워나가게 하는 더없이 귀중한 수단으로 된다는것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온 나라에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가 더욱 빛나게 관철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아동문학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아동문학은 어린이들의 세계관확립과 공산주의적품격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노는 만큼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는 각종 문학작품을 더 많이, 더욱 훌륭히 창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창작을 철저히 대중화하며 청소년들속에서 문학작품을 널리 창작하도록 작가들이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교육테제를 창작에 적극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문학작품의 사상주제를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맞게 설정하고 아동문학에 대한 사회

적관심을 높일뿐아니라 주인공의 성격과 그의 세계관형성과정, 혁명화과정을 테제가 밝혀준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합법칙성에 맞게 진실하게 묘사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은 공산주의적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품모이며 자질이다.》**

**《사람은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할수 있다.》**

교육테제는 우리 시대뿐아니라 공산주의의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품모와 자질을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우리 문학은 테제의 요구를 구현해야만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품모와 자질을 훌륭하게 보여줄수 있다.

테제의 요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창조에서 사상정치성과 문화성, 인간성을 옹골케 결합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문학은 주인공의 성격형상에서 지성세계가 낮거나 미학적정서가 풍부하지 못하게 묘사하는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사상정치성과 문화적소양이 높고 튼튼한 체력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 문명한 인간으로 생동하고 심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문학은 또한 테제의 요구에 맞게 공산주의적인간의 육성과정을 사람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되는 사상혁명과정으로 깊이있게 천명해야 한다.

테제는 공산주의자가 갖추어야 할 사상정신적 품모와 자질은 타고나는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형성된다는것을 밝혀준다.

테제는 또한 사람들이 로동계급화, 혁명화, 공산주의화되는 과정은 단순한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상수양과 조직생활, 혁명적실천과정을 통해서만 진행될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은 사람들의 혁명화과정의 묘사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그 과정을 단순화하는 온갖 그릇된 창작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혁명화과정, 공산주의적인간의 육성과정을 진지하고 심오하게 묘사하는데 주되는 필봉을 돌려야 한다. 혁명화과정, 세계관형성과정을 사상수양과 조직생활, 혁명적실천투쟁과정을 통하여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묘사한 작품만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될수 있고 공산주의적

인간학의 경지에 오른 작품만이 조선혁명위업과 인민대중에게 참답게 복무할수 있다.

문학창작에서 교육테제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체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문학예술에서 주체의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은 문학예술을 우리 인민의 비위와 감정에 맞게,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으로 발전시킨다는것을 말한다.

문학예술을 우리 인민의 비위와 감정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족문학예술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시켜야 하며 문학예술을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당성, 로동계급성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혁명적문학예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학예술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야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적극 반영해야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며 조선혁명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문학예술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적선을 똑바로 세우고 온갖 비로동계급적인 요소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경향을 막아내고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작가들은 주체문학의 선, 로동계급적선을 더 뚜렷이 세우고 범백문학의 그 어떤 사소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문학 창조와 건설에서 더욱 큰 양양을 이룩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모든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육테제를 심장으로 받들고 테제의 요구를 창작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자!

##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은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위대한 강령

오늘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 따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 기치 드높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혁신을 일으키며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주체형의 당 조선로동당 창건 32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은 공산주의운동력 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를 구현하시여 새형의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시고 불패의 전투적 선봉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끄시여 이 땅에 민족적대변영과 룡성의 시대, 영광스러운 로동당시대를 펼쳐주시고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아버지수령님께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우리는 지금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설레이고있으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이 땅위에 천지개벽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주체조국의 인민으로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수령님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가운데는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의 빛발아래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찬란한 성과도 아로새겨져있다.

오늘 우리 문학예술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의 무기로, 혁명의 교과서로 되고있으며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기치로 되고있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주체시대는 문학예술앞에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길을 힘있게 보여줄것을 요구하였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되게 하는 참된 길을 밝혀주는 새로운 문학예술에 대한 시대적요구는 오직 모든 것을 사람, 근로대중을 중심에 놓고 보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우리의 사회주의문학예술에서 처음으로 완벽하게 해결될수 있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천리마의 나라》, 《주체의 조선》에서 민

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초미의 문제로 제기된 자주성의 시대에 상응한 문학예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일대 룡성기가 시작되고있다고 말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이와 같은 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상혁명의 위력한 수단이며 문화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문학예술을 어떻게 창조하고 발전시킬것인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운명과 관련된 원칙적문제로서 우리 시대가 절실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새롭게 창시하시으로써 사회주의문학예술 건설의 가장 곧바른 길을 명시하여주시였으며 로동계급이 혁명적문예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문학예술 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그이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문예전통에 그 깊은 력사적뿌리를 두고있으며 문학예술발전의 세계적추세를 주체적립장에서 완전히 새롭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밝히신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이다. 그것은 또한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주체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혁명적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공산주의적 문예사상과 리론이다.

불멸의 주체적문예사상은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기본원칙들과 방침들, 그를 구현하기 위한 혁명적작품창작실천론, 우리식의 사회주의적영화리론과 독창적인 《피바다》식 가곡론, 소설, 가사, 시, 아동문학에 관한 새로운 문학리론, 음악, 무용, 미술, 교예에 대한 리론과 연극혁명에 대한 리론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특성을 살리며 창작성과를 확고히 담보하게 하는 부문별 예술리론이 전일적으로 집대성된 백과전서적인 사상과 리론이다.

\*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도 문학예술부문에서 사대주의의 여독을 뿌리뽑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까.》**

**《문학예술부문에서 사대주의의 여독을 철저히 뿌리뽑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문학예술이 우리의 혁명위업에 더욱 훌륭히 복무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데 대한 사상은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언제나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문예정책의 근본원칙으로, 그 출발점으로 되며 혁명적문예활동의 기본초석으로 된다.

문학예술건설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자기 나라 혁명위업에 더 잘 이바지하게 하기 위한 합법적요구로 된다.

문학예술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특히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위치와 환경, 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사대주의가 많이 부식되였던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며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온갖 반혁명적문예조류들의 침습을 막아내고 우리 문학예술을 그 어떤 잡사상에도 오염되지 않고 주체의 혈통을 빛나게 이어나가는 주체의 문학예술로 만드는데서 필수적요구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를 세우는것이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는것을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문학예술에서 주체확립의 본질적요구를 명백히 해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예술에서 주체확립의 본질적요구는 무엇보다도 민족예술을 주체로 하여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것이라고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절대로 교조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음악에서도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음악에서는 민족음악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민족적예술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문학예술에서 주체의 본질을 명백히 분석하신데 기초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문학예술에서 주체란 다른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의 비위와 정서에 맞게 하는것인만큼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심리적특성과 민족적감정이 잘 반영되어있는 우리의 민족예술은 응당 문학예술발전의 주체로 되어야 하는것이다.

우리 문학예술이 조선혁명위업에 복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조선혁명의 주인인 조선사람들의 비위와 정서에 맞아야 한다. 조선사

람들의 비위와 정서에 맞는 문학예술만이 그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생활과 투쟁에서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될수 있다.

문학예술을 조선사람들의 비위와 정서에 맞게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민족음악, 조선회화, 민족무용 등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민족예술을 주체로 하여 우리 문학예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문학예술을 민족적예술을 주체로 하여 발전시킨다는것은 민족예술형식을 바탕으로 하고 민족예술을 위주로 하여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 예술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것이라고 해도 우리 예술을 위주로 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비판적으로 섭취하고 우리의것으로 소화하여 민족적인 바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문학예술을 자기 나라 인민의 비위와 정서에 맞게, 민족적형식을 주체로 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에는 모든것을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에 맞게 처리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가 구현되어있으며 문학예술로 하여금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가 명시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이 사상에는 또한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본질상 참다운 민족적예술로 되어야 하며 민족예술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켜야만 자기 나라 혁명과 인민에게 힘있게 복무할뿐아니라 세계문화의 보물고에도 이바지할수 있다는 진리가 구현되어있다.

우리 문학예술이 오늘 민족적바탕을 가지고 빨리 개화발전함으로써 전체 조선인민의 사상감정을 대표하는 참다운 민족적예술로, 자기 민족과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애국적예술로 되어 근로대중의 생활과 로동을 즐겁고 흥겹게 하는데 복무할뿐아니라 세계인민의 절찬을 받게 된것은 전적으로 민족예술을 주체로 하여 문학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예술에서 주체확립의 본질적요구는 또한 사회발전에서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옳게 보여주는것이라는 사상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에는 생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상이 강조되어야 하며 위대한 생활은 어떤 한돌의 탁월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자각한 수백만 근로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맑스-레닌주의적관점이 명백히 나타나야 합니다.》**

생산장성이나 사회발전의 결정적요인이 기계나 물질경제적수단이 아니라 사람, 인민대중이라는 주체의 관점을 작품에 옳게 보여주는것은 문학예술에서 주체확립의 본질적요구로 된다.

그것은 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옳게 보여주어야만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본질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인민대중이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할데 대한 주체 확립의 요구를 문학예술에 옳게 구현할수 있기때문이다.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사람,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옳게 보여줄데 대한 요구는 우리 시대 문학예술이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 될 때에만이 옳게 구현할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우리 문학은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에 예술적으로 해답을 주는 그러한 인간학으로 되어야만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인민대중의 사상정신적힘과 고상한 풍모를 보여줄수 있다. 또한 우리의 혁명문학은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어야만 지난날의 문학과는 달리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할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우리 시대 문학예술을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 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문학예술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게 할데 대한 독창적방침이 구현된 결과 우리 문학예술에서는 사람을 단순히 환경의 산물이나 사회적관계의 총체로 규정되는 수동적존재로 그리던 선행 사실주의문학예술의 근본적약점을 극복하고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 정치적생명과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외부세계에 맹목적으로 순응되지 않고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는것을 예술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예술은 근로인민대중을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력사의 대상으로만 그리던 지난날의 온갖 낡은 문학예술과는 달리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력량으로, 다시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체로, 력사발전의 주체로 된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줄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시대 문학이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옳게 보여주며 조선혁명에 이바지하려면 진정한 조선의 혁명가를 그려야 한다는 사상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이란 인간을 그리는 일인데 어차피 인간을 그려야 하겠지만 어떤 인간을 그리는가 하**

**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엔 바로 동무들이 진정한 조선의 혁명가를 그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조선혁명에 이바지할수 있는 혁명문학을 창조할수 있을것입니다.》**

인민대중은 자연발생적으로는 큰힘을 나타낼수 없고 오직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서만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사회발전의 힘있는 동력으로, 새 력사의 의식적인 창조자로 될수 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심으로 하여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혁명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온 누리에 찬연히 빛내고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슬기롭고 권위있는 인민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의 참다운 귀감인 진정한 조선의 혁명가를 그려야 사회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옳게 보여주는 참다운 주체의 인간학으로 될수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조선혁명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진정한 조선의 혁명가를 형상하게 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에서는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해야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울수 있고 그 길 위에서만이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어나가며 혁명하는 시대의 인간답게 존엄있고 참답게 살수 있다는 혁명적인 인생관을 새롭게 밝혀줄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배워주는 생활과 투쟁의 참된 교과서로, 사람들을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게 하고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자기 나라 혁명위업수행과 자기 나라 인민들에게 참답게 복무하는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게 되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문학예술에서 주체확립의 본질적요구뿐아니라 그 방도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준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근본방도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라는것을 밝혀준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창작의 기초로, 창작 전과정의 지침으로, 창작총화의 기준으로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당정책을 문학예술건설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문예활동의 전과정에 철저히 구현하게 함으로써 문학예술을 주체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그 어떤 잡사상에도 오염되



지 않고 오직 주체형의 피만이 맥박치는 주체의 문화예술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의 문학예술로 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워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다.

문학예술건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하는데 최대의 충성심을 다 발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한 영상을 모시는 사업이 문학예술의 각 분야에서 최상의 사상에예술적높이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당과 혁명, 시대와 력사 앞에서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옹기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에서는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기 위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데서 근본으로 되는 수령형상문제를 정책적요구로 제기하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영화문헌들, 불멸의 기념비 미술작품들과 총서 《불멸의 력사》를 비롯하여 문학예술의 각 분야에 정중히 모셔짐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해와 달이 다하도록 언제나 수령님을 모시고 따라배우려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열어놓을수 있게 되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건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작품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전사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며 당보의 사실처럼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작품에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이 잘 그려지게 되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방도는 또한 혁명적문예전통을 철저히 옹호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이라는것을 밝혀준다. 로동계급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건설하면서 착취계급의 정서와 비위에 맞게 만들어진

선행 문학예술유산에서 가져올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오직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전통을 옹기 계승발전시켜야 그 어떤 잡사상에도 오염되지 않고 대를 이어 주체의 혈통을 빛나게 이어나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로 개화발전할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혁명적문예전통을 옹기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계선을 똑바로 그어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준다.

계선을 똑바로 그어야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전통과 그 이전시기의 애국적문화전통의 차이를 명백히 하고 혁명적문예전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 순결성을 확고히 지켜나갈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적문예전통의 뿌리가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를 완벽하게 구현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문학예술은 혁명적문예전통의 계선을 옹기 그음으로써 혁명적문예전통의 순결성을 눈동자와 같이 옹호고수할수 있게 되었다.

혁명적문예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력사적뿌리를 옹기 찾을뿐아니라 그 계승방도를 정확하게 해결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각 분야에 옮기는 방법으로 혁명적문예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었다.

그리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원작 그대로 영화에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이 마련되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 영화예술이 주체영화로 개화발전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가극에 옮기는 사업을 통하여 주체시대의 요구와 로동계급의 본성에 맞는 《피바다》식 혁명가극이 탄생되고 가극혁명의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또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장편소설로 옮겨지는 과정을 통하여 공산주의운동발전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새형의 혁명소설의 본보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오직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혁명적문예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주체를 세워나갈수 있으며 자기 나라 혁명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날카롭게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사회의 낡은 문화와 자본주의적반동문화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합법적적요구입니다.》**

**《우리에게는 혁명에 어긋나고 인민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부르조아문학예술이 잠시도 발붙일 곳이 없으며 로동자, 농민에게 복무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을 위하여서만 끝없이 광활한 무대가 열려져있습니다.》**

문학예술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날카롭게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로동계급적성격과 혁명적사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적성과 현시대의 요구를 심오하게 반영하고있다.

계급사회에서의 문학예술은 일정한 력사적시대의 사회제도와 어느 한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며 언제나 계급투쟁의 무기로 복무하게 된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철저히 로동계급적성격을 띠는것으로서 온갖 비로동계급적이며 반동적인 문학예술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만 건설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예술에서 계급성이 필요없다고 하면서 로동계급적인것과 부르조아적인것사이의 계선을 똑바로 긋지 않고 로동계급적선을 날카롭게 세우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적인것도 아니고 자본주의적인것도 아닌 범범문학예술이 활개를 치게 될것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로동계급적인것으로 일관시키지 않고 사회주의적인것과 자본주의적인것, 봉건적인것을 한데 뒤섞어놓은 범범문학예술로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벌써 로동계급의 문학예술로서의 고유한 본성을 저버리고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옹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똑바로 세우는것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본다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나가는 과정 즉 로동계급화하여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사상혁명의 위력한 무기이며 문화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문학예술도 로동계급의 요구에 맞게 철저히 혁명화할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자본주의적이고 봉건적인 낡은 문학예술의 잔재가 남아있는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 문학예술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혁명화하는 사업은 온갖 비로동계급적이며 반동적인 문학예술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낡고 반동적인 문학예술을 극복하고 로동계급적선을 세우는것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요구인 동시에 사회의 모든것을 로동계급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혁명화하여 무계급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되는것이다.

문학예술건설에서 로동계급적선을 세우는것은 제국주의문화적침투가 악랄하게 감행되고 온갖 기회주의문예조류의 해독적작용이 우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사상적순결성과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능을 높이기 위한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학예술건설에서 로동계급적선을 세워야 할 요구와 함께 그 방도를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날카롭게 세우기 위해서는 문학예술창작에서 당의 계급정책과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심오히 반영하며 혁명의 동력과 대상을 정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그 어떤 역경에서도 로동계급의 본분을 잊지 않고 견결히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전위투사들과 사회주의현실이 낳은 새로운 주인공들의 전형, 혁명화의 본보기들을 훌륭히 창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의 침략적이며 락탈적인 본성과 착취계급의 착취적이며 매국적인 본성을 예리하게 폭로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생동하게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로동계급적선을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고 복고주의적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주의, 형식주의, 예술지상주의와 《자유화》, 《초계급성》, 《무당성》을 운운하면서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문학예술의 전투적사명과 인식교양적기능을 마비시키는 온갖 기회주의문예조류가 조금도 발붙일수 없게 하여야 한다.

작품창작에서 언제나 로동계급적선을 똑똑히 긋는것은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근본원리이다. 계급선에서의 양보는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진지로부터의 후퇴를 의미하며 부르조아 반동문학예술에 대한 투항을 의미한다.

참으로 계급선을 똑똑히 그을데 대한 방침은 반제반미혁명투쟁의 시대, 누가 누구를 하는 계급투쟁의 시기에 문예작품창작에서 온갖 이색적요소가 발붙일 틈을 절대로 주지 않고 오직 로동계급의 리해관계와 사상미학적요구를 철저히 옹호관철할수 있게 하는것으로서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진행정에서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확고한 지침이다.

문학예술창작에서는 작품의 종자의 발견으로부터 시작하여 혁명적주인공의 립장과 태도, 그들의 세계관형성과정, 부정인물에 대한 평가와 인간관계설정, 엷음새와 감정조직, 속도감과 문장표현 등 창작의 전과정에서 당정책적대와 로동계급적선을 날카롭게 세우고 그와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과도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날카롭게 세울데 대한 방침은 《초계급적인 전인류적인 문학예술》을 표방하면서 사회주의문학예술의 계급적선을 모호하게 만드는 온갖 기회주의문예조류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으로 되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철저히 로동계급의 사상미학적요구를 반영한 로동계급의 문학예술로, 반제투쟁위업에 복무하는 반제혁명문학예술로 되게 하는 전투적강령이다. 이 전투적강령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 문학예술은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막아내고 로동계급적선이 똑바로 선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본보기》로서 근로자들의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으며 우리 시대 반제혁명문학예술의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우리 예술을 본 외국의 벗들이 《조선의 예술은 부패타락한 유흥거리의 상품화된 예술에 대한 준엄한 선고로 된다.》고 하면서 온갖 퇴폐적인 부르조아반동문예조류를 타매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것도 다 우리 문학예술에 로동계급적선을 세울데 대한 방침이 정확히 구현된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훌륭히 구현할데 대한 원칙이다.

창작방법은 인간과 그 생활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예술적으로 반영할것인가 하는 근본원칙과 관련된 문제로서 어떠한 창작방법을 내세우며 그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것은 문학예술건설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창작방법을 옳게 규정해야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자기의 혁명적이며 로동계급적인 성격을 철저히 고수하고 아무런 편향도 없이 주체적으로 건전하게 개화발전될수 있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문예리론에서는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창작방법은 생활을 그의 혁명적발전속에서 진실하게 력사적구체성을 가지고 묘사하는 것이라고 정식화함으로써 그것을 주로 생활반영의 전지에서 규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창작방법문제를 내용과 형식의 전반에 걸쳐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해명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있는 작품들은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인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의하여서만 창조될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라고 하면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는것을 말한다라는 정의를 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시대의 성격과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을 사회주의적사실주의라고 하시였으며 그의 본질을 명철하게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는다고 정식화하십시오으로써 로동계급의 문학예술,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해결을 기다리던 창작방법문제를 독창적으로 해명하여주시였다.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는다는것은 그 나라 인민이 좋아하고 그 나라 인민의 비위와 정서에 알맞는 전통적인 문학예술형식에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 등 근로인민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담는다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는다는 정의를 내리신데 기초하시여 그것이 우리 시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으로 된다고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 우리 시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으로 되는것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의거해야만 문학예술에서 주제를 철저히 세우고 로동계급적선을 날카롭게 세울수 있으며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옳게 결합시키고 사상예술성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으로 내세워야만 자연주의, 형식주의, 추상파, 미래파, 인상파 등 온갖 반동문예사조의 침습으로부터 문학예술의 사상적순결성을 고수하고 범백문학예술을 극복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옳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유일한 창작방법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훌륭히 구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를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훌륭히 구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오랜 민족적전통을 가지고있는 민족예술형식을 옳게 살려쓰는것이라고 밝혀주시였다.

문학예술의 민족적형식을 옳게 살려쓰기 위해서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평가와 처리를 정확히 하여야 하며 이 분야에서 복고주의와 허무주의의 온갖 편향을 극복하고 민족적형식을 오늘의 현실과 로동계급의 혁명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완성해야 한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훌륭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족적형식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옳게 살려쓰는 동시에 문학예술의 내용을 철저하게 로동계급적인것으로 일관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적내용을 옳게 구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문학예술의 주제를 옳게 설정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시대의 본질과 혁명의 요구를 문학예술에 얼마나 적극 반영하는가, 당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사업을 진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출발점으로 된다.

그러나 선행한 로동계급의 문예리론에서는 주제문제를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의 원칙적요구로 제기하지 못하고 어떤 생활이나 진실하게 묘사하기만 하면 교양적목적을 달성할수 있는것으로 인정한데로부터 문학예술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날카롭게 세울수 없게 하였다. 주제설정을 《자유화》하면서 아무것이나 제멋대로 쓰게 한다면서 사회주의적내용을 옳게 구현할수 없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혁명전통을 비롯한 혁명투

쟁의 주제와 사회주의건설주제를 옹계 병진시켜야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사회주의적내용을 훌륭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온 사회의 혁명화의 요구에 맞게 옹계 설정하는 동시에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공들의 전형형을 잘 형상해야 한다. 혁명작품의 주인공형상에서는 원형을 소재로 하여 전형화하며 정치성과 인민성을 결합시키고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의 합법칙성을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천명하는데 주되는 필봉을 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이 착취사회의 본질에 대한 인식단계, 착취계급과 그 제도에 대한 증오단계를 거쳐 혁명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며 실천투쟁속에서 공고발전되는 사람들의 의식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히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문학예술로 하여금 혁명적주인공의 성격장성과정을 생활의 논리에 맞게 심오하게 해명할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을 훌륭히 창작하기 위해서는 또한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계 결합시켜나가며 생활과 투쟁을 옹계 배합시켜 진실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계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문학예술을 혁명화한다고 하여 예술성을 홀시하고 사상성, 정치성만 절대화하면서 비속사회학에 빠지는 편향을 극복하는 동시에 사상성을 홀시하고 예술성만을 절대화하는 자연주의적경향을 다 극복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적작품의 사명과 혁명적대작에 관한 이론을 내놓으시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본질과 승리의 요인을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분야에 걸쳐 폭넓게 서사시적으로 보여주는 혁명적대작과 함께 당보의 사실처럼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한 아담한 작품창작을 적극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 영화발전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음악, 무용, 미술, 교예, 연극 등 모든 예술종류들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 언어예술의 특성으로 하여 묘사표현적가능성이 비상히 풍부하여 대중교양에서 그 감화력이 클뿐 아니라 자매예술발전의 기초로 되는 문학을 모든 예술종류들에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길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앞에는 새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새형의 인간전형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그를 통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사회주의현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옹은 해답을 주어야

할 과업이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정책 반영과 주제문제, 주인공의 형상과 인간관계문제, 사회주의하에서의 갈등의 새로운 성격과 작품의 양상문제 등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명백히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예술에서 이때까지 결리고있던 가장 어려운 문제인 현실주제작품 창작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시였다.

사회주의현실주제가 빛나게 해결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당보의 사실과 같이 호소성이 높고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근로자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으뜸가는 우월성을 노래하는 시대정신의 고수로 되게 되였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 문학예술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하여 작품창작에서 종자를 바로잡고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방침, 류형성과 도식주의를 없애고 개성화와 독창성의 원칙을 관철할데 대한 방침, 사회주의적내용에 맞는 새로운 예술형식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기록주의와 단순성을 극복하고 철학성을 보장할데 대한 방침을 새롭게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전행정에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고 사상성과 예술성을 철저히 결합시키게 하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유일하게 옹은 창작방법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세상사람들로부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본보기》,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모범》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문학예술을 대중화하는것을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예술을 옹계 발전시키려면 예술을 대중화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방침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근로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문학예술사업에 구현한 독창적문제방침이다.

이 방침은 또한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기초한 방침이며 특히 우리 나라에서 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심화되는 현실적요구를 반영한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이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리신 대중적문제활동경험에 뿌리박고있는 방침이며 모든 사람의 재능이 전면적으로 발전됨으로써 전문가가 따로 없게 될 공산주의사회에 상응하는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문학예술의 대중

화방침에는 근로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에 대한 그의 깊은 신뢰가 구현되어있으며 근로대중을 문학예술의 진정한 향유자로, 창조자로 되게 하시려는 뜨거운 배려가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문학예술을 전민화하고 전국을 예술화해야 한다는 사상을 밝히시였다.

문학예술을 전민화하기 위해서는 문학예술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이 알수 있고 좋아하고 즐길수 있는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내용이 인민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는것으로 되여야 하며 그 형식이 인민대중이 좋아하고 이해하기 쉽게 통속화되여야 한다.

문학예술을 대중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모든 예술가운데서도 대중교양의 가장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 영화를 선차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소설과 혁명적노래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문학예술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이 문학예술의 진정한 향유자로 되게 할뿐아니라 그의 참된 창조자로 되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예활동에서 전문일군분위주의를 경계하고 전민작가, 예술인들의 문예활동과 대중적문예활동을 적극 배합하여야 하며 창작사업에서 신비주의를 마스고 문예소조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문학예술을 상품화하고 문화시설을 도시에만 집중시킨던 자본주의의 후과를 철저히 없애고 사회주의문학예술보급체계를 세우고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문화시설을 끌고루 건설해놓아야 한다.

참으로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은 그 본성에 있어서 한줌도 못되는 착취계급을 위한 반동적인 문학예술이나 몇몇 전문가들을 위한 예술과는 달리 전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근로인민의 문학예술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으며 문학예술창조사업과 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창조적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전면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옳은 길을 밝혀주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예방침이다.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방침이 구현된 결과 우리 문학예술은 참말로 인민대중의것으로 되였으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공장과 농촌은 물론 두메산골과 외진 등대마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서나 생활과 노래, 노동과 예술이 밀접히 결합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대 건설장들은 혁명적량만과 희열에 차넘치고있다.

지난날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의 착취와 압박 밑에서 기쁨과 노래를 모르고 살아온 우리 인민들이 오늘은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을뿐아니라 문학예술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였으니 어찌 그들의 생활에서 춤과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인민이 숨쉬는 모든곳에 노래가 있고 웃음이 있어야 한다는 당의 방침이 구현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노래없는 생활, 예술활동과 떨어진 로력투쟁은 찾아볼수 없으며 유치원 어린이로부터 70고령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문학예술을 즐기고있다. 어제날의 선반공이 오늘은 공훈배우로 되고 오늘의 판매원이 래일은 인민배우로 되는 나라, 문학예술이 이렇듯 생활화, 전민화되고 전국이 예술화되고있는 우리 나라를 두고 세상사람들이 《예술의 나라》, 《예술의 왕국》이라고 찬탄하는것이 어찌 우연타할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지도체계를 좀 고치는것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을 망라하는 연합조직을 만들고 당에서 직접 지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오직 당의 직접적지도를 받아야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하게 구현할수 있고 또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한 혁명적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당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고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는 당적이고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하는가 아니면 약화하고 포기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문학예술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문예리론에서는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예술을 당사업의 일부분으로 틀어쥐고 지도해야 하며 그 방법에서는 당사업의 다른 부문과는 달라야 한다고 했으나 어떤 체제와 방법으로 그것을 지도할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답을 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도록 3위1체의 문학예술지도체계를 내오시고 당의 군중로선을 더 잘 관철할수 있게 지도방법을 고치도록 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유일적이며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가 틀어쥐고 문학예술을 지도하는 주체적인 우리 식의 문학예술지도체계가 철저히 확립되고 문학예술부문 기관, 기업소들의 지도관리체제와 창조체제가 보다 더 강화되였으

며 집체적인 유일심의체계가 바로 세워지게 되었다.

문학예술지도체계가 이와 같이 바로 세워졌을 뿐아니라 정책적지도, 방향적지도를 강화하고 이에 형상기술적지도를 배합하며 계발식지도와 대답성을 키워주는 창작지도원칙을 비롯하여 주체적인 창작원칙과 심의원칙도 철저히 구현되게 되었다.

사회주의본성에 알맞는 이와 같은 새로운 문학예술지도방법과 원칙들은 창작지도에서 유지한 비속사회학을 초래하는 형식주의, 주관주의 등 행정적이며 수공업적인 지도방법을 말끔히 없애고 주체철학의 원리를 구현한 혁명적근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게 하는 공산주의적창작지도방법으로 된다. 이 방법은 창작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훌륭히 구현하여 작품의 사상에 예술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개성화와 독창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는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며 사회주의하에서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지도방법의 본보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령도를 강화함에 있어서 특히 작가, 예술인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각별한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당의 문예정책은 결국 작가, 예술인들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는만큼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지도에서 기본은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지도라고도 말할수 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주체적력량인 작가, 예술인 대렬을 튼튼히 꾸리지 않고는 문학예술에서 주체와 로동계급적선을 세울수 없고 창작에서 사회주의사실주의를 옳게 구현할수 도 없다.

문학예술의 혁명화는 언제나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화로부터 시작되며 따라서 작가, 예술인 대렬을 정치사상적으로 옳게 꾸리는것은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선결문제, 기본문제로 되지 않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 예술인 대렬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속에서 새로운 작가, 예술인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는 한편 오랜 작가, 예술인들을 대담하게 믿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 대렬은 주체교육을 받은 수많은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 세대들로 강화되었다. 또한 작가, 예술인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며 들끓는 현실속에서 단련하는 한편 예술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방침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사상에예술적

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문예전사로 자라났다.

특히 작가, 예술인들을 문학예술창조과정을 통하여 혁명화할데 대한 독창적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문학예술을 혁명화하고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하는 두가지의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 통일적과정으로 다 힘있게 다그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불멸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의 전 기간에 걸쳐 그것을 우리 문학예술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일대번영을 이룩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가운데서도 문학예술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명철하게 해주시고 개별적작품의 제목을 달고 종자를 잡는 일로부터 세부묘사와 문장표현, 대화 하나에 이르기까지 형상기술적지도를 세심하게 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예술은 영화를 선두로 하여 가극, 음악, 무용, 미술, 교예, 연극 등 모든 예술종류들이 다 우리 식으로 전면적으로 찬란하게 개화발전하였다.

우리 문학도 영화와 가극을 비롯한 예술발전을 안받침해주면서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최근년간 장, 중편 소설창작분야에서 양양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가사, 시, 아동문학 창작에서도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것은 다른 예술종류들에 문학을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이 구현된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적문예사상은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문학예술의 창조와 건설 과정에서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실증된것으로 하여 주체시대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유일하게 옳은 위대한 강령으로 된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불멸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꽃피워나가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행복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앞으로도 불멸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깊이있게 연구학습하고 그것을 문학예술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을 온 사회를 혁명화하고 주체사상화하는데 이바지하는 힘있는 무기로, 우리 시대 혁명적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로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차균호

# 당이어, 그대의 숨결을 안고

리동후

시원한 유보도를 거닐며  
한밤중 퇴근길에 오를 때  
레사로이 보낸 하루일에  
내 마음 절로 생각에 젖는다.  
혁명하는 자부를 뿌듯이 느낄수록  
당원증을 품은 이 가슴은 세차게 고동쳐

가로수 잎새에 새여내리는  
저 못별들의 은빛무늬도  
가벼이, 정다웁게 스치는 맑은 바람도  
나를 이끌어  
삶의 환희로 채우는가  
걸음걸음 흘러온 나날이 되새겨져라

젊은날의 애송이 그 시절  
나의 입당청원서의 구절구절에  
맹세의 눈물 감추지 못할 때  
엄숙한 찬성의 믿음으로 나를 받아주던  
당세포여,  
조선로동당원-그 이름을 외우며  
홍분속에 잠 못 이루던 그날 그 밤이어

그대는  
투쟁과 불길속에서  
용맹의 나래를 달아주고  
로당원의 걸음에 이어  
나의 자세를 세워주었나니  
한시각도 잊은적 있으랴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원의 영광을

보람찬 삶과 영생의 기쁨을 안겨준  
그대품에서 나는 자랐다  
불타는 도하장, 화염덩이 격전의 고지  
준엄한 싸움길에 내세워  
다감한 병사시절에  
그처럼 조국의 귀중함을 깨닫게 한 당

불문지 흘날리는 폐허우에 벽돌을 쌓으며  
피의 원한이 서린 신천땅을 부여안으며  
다하지 못한 의무로 사무치는 이 가슴에  
한없는 복수와 분노를 채워주며  
계급의 원썩을 똑똑히 알게 한 당

피로써 수호한 이 땅과 주권이 소중한기에  
황금파도 설레이는 들판에도  
창공높이 흰연기 뿜는 공업의 기지에도  
당이어, 그대는 언제나 함께 있어  
쉽없이 깨우쳐주고 드림없이 이끌어세우며  
얼마나 거창한 시대의 전변을 펼쳐온것인가

아, 그때문에 인민은 운명과 미래를  
영원히 그대품에 맡기고  
그대의 숨결을 안고  
그대의 젖줄을 빨며  
그대의 전사로 한생을 빛내여가는  
끝없는 이 행복이어,

자랑하노라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그날로부터  
눈보라 폭풍치는 혈전의 수천만리-  
간고한 행군과 전투에서 다져진  
혁명전통의 빛나는 터전우에 뿌리내린 당,  
위대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의 품에서 태어난 주체형의 당을!

나는 그대의 아들  
위대한 수령님 품에서  
영원한 정치적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받아안았기에  
언제나 당을 위해선 첫 걸음을 떼는 마음  
그 어디를 가도 어느곳에 있어도  
나날이 더해지는 그 믿음 그 사랑 헤아려도 끝이  
없어  
승엄한 마음 뜨거운 눈물에 젖나니

당원- 이 뜨거운 자각속에  
너무도 평범하게 걸어온 나의 행로를 채찍질하며  
수령님 바라시는 그 높이에  
충성을 고이고 고이리라!

혁명전사의 변함없는 그 자세로  
위대한 태양을 모시고  
무궁한 세기우에 영원토록 흐르는  
티없이 맑은 충성의 별이 되어  
혁명의 전사가 되어

# 길이 빛나라, 혁명주권이여!

림호권

기쁨을 싣고  
행복을 싣고  
설레고 설레이는 벼바다물결우에  
자랑찬 배움의 노래 실려가는가

락원의 강산에  
쇠물은 사품치고  
동해천리 기슭따라  
굽이굽이 수송렬차는 달린다

해방의 감격속에  
민주의 터전을 다지던 그날로부터  
우리는 멀리도 달려왔고나!  
물이라, 바다라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서  
뿌리내리고 꽃피여난 그 모든것이  
얼마나 눈부신것인가  
사회주의조국은 얼마나 강대해졌는가

광풍속에 몸부림치던  
민족수난의 긴긴밤은 언제이더냐  
망국노의 시름안고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을 헤매일 때  
얼마나 안타까이 바라던  
우리의 혁명주권이냐!

명절처럼 흥성이는 거리에서  
북소리 뚝뚝 울리는  
소년단대렬을 바라볼 때면  
가슴에 젖어드는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생각-

자동화의 노래속에  
푸른잎새 설령거리는 구내길에서  
젊은 단조공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눈시울 뜨겁게 가슴치는 혁명주권에 대한 생각-

아, 소중하여라  
그대 어머니조국 우리의 주권이여!  
대를 두고 물려받은  
가난과 뭉매를 쓸어버리고  
민족대번영기를 안겨주었거니...

사람마다 태어나자  
행복을 누릴 모든 권리를 주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주며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내세워주기에  
나의 삶은 이다지도 보람찬것이여라!

새벽에는 그대  
붉은 해살로 나를 깨우고  
로동의 즐거운 하루해가 저물면  
령룡한 별빛 안겨주거니  
우리의 혁명주권이여  
그대는 다시없는 행복의 요람...

추울세라 더울세라  
언제나 살뜰히 보살펴주고  
하찮은 나의 재능이  
푸른 하늘에서 마음껏 내려치라고  
정다운 어머니손길로 밀어주더라!

아, 고마워라  
친근하신 우리 수령님  
반만년에 처음으로  
로동자, 농민의 혁명주권 세워주시고  
끝없는 이 행복 안겨주시려  
찬이슬 눈비를 다 맞으시며  
순간의 휴식마저 잊으신 로고속에  
걸고 걸으신 길 몇천만리라

그 사랑 그 품에서  
나의 꿈은 꽃피어나고  
나의 행복 무르익어라  
한치의 드림도 없이  
언제나 곧바르게 앞으로만 내달아간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여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두려운것 없어라  
세상에 부러운것 없어라

번영하라, 주체의 내 조국이여



산 좋고 물 맑은 이 땅은  
어데 가나 정답고 살기 좋아라  
이 강산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서라면  
아버이수령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리라!  
내 한목숨 기꺼이 바쳐가리라!

우리의 혁명주권은  
우리 행복의 만년초석-  
몸과 마음 다 바쳐 이 주권 길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여  
천년만년 대대로 충성하리라!

## 혁명의 불새들은 초소로 간다

조현동

푸른숲도 키돋움하며 배웅하는가  
산새들도 축포인양 터져오르는가  
쩍 벌어진 가슴들에 구리빛얼굴-  
졸업생들이 학원을 떠난다  
만경봉 넘어, 군가높이 부르며...

백두의 산발을 넘고넘어  
20만리장정의 눈바람을 헤쳐온  
항일선렬들의 성스런 길을 이어가며  
보무도 당당히 초소로 떠나는 일당백대오-

백두의 붉은별이 머리위에 빛나고  
사령부를 지킨 총검 어깨우에 번쩍인다  
그들이 아니냐  
투사들의 뜨거운 피줄을 이어  
이 땅에 가장 빛나는 삶을 받아안은  
혁명의 계승자

아, 그들이 아니냐  
불타는 고향의 풀잔디언덕에  
미제의 총칼에 학살된 부모를 묻던 밤  
피흐르는 그 젖가슴에 매여달려 울더니...  
인민군병사들의 등에 업혀  
잠결에도 어머니를 찾던 그 모습들

몰라보게 성장했구나  
혁명학원의 드넓은 교련장에서  
일당백 장수힘을 키운 그들  
멸적의 기세로 총창을 번쩍이며  
오늘은 조국보위의 초소로 달려가누나

아! 만경대품이여!  
아버이수령님께 아들딸을 말기고

고요히 미소지으며 눈감은 투사들  
뜨겁게 안고간 그 념원, 그 믿음이  
이 세상 가장 밝은 해빛아래서  
붉게붉게 만발한 영광의 언덕이여!

다시 바라보는 맑은 하늘가  
높이 솟아 번쩍이는 은빛지붕  
푸른 창문들과 넓은 운동장  
그 어데나 아버지사랑 깃들어있는곳-  
혁명학원의 정문을 떠나  
초소로 간다

부모의 원한을 못잊기에  
그 원수를 더 푹푹히 기억해온 그 눈들이다  
미제침략자를 천백배 복수하러  
불길로 타번지는 그 심장들이다  
아, 그래서 조국엔 갑절로  
보배롭고 사랑스런 그들이다

백두의 붉은별이 머리위에 빛나고  
사령부를 지킨 총검 어깨우에 번쩍인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생의 숨결로 받아안은 만경대의 아들들  
가장 숭고한 충성의 길로  
혁명의 억센 나라를 펼치며 나아가나니

장엄하여라, 세대에서 세대로로  
끝없이 굽이쳐흐르는 계승자들의 대오여!  
**김일성**원수님의 품에서 자라난 충성의 대하-  
대를 이어 영원히 수령님을 보위할  
오, 친위대, 결사대들에게 영광, 영광이 있으라!  
투쟁의 첫 출발선-만경대를 떠나  
혁명의 불새들이 초소로 간다

# 위대하여라, 주체의 교육강령이여!

리영백

해빛이 웃고  
아이들이 웃는 배움의 창가에도  
가없는 만풍의 들판,  
끝없이 설레이는 기계바다우에도  
소리치며 일어선다,  
환희의 물결, 감격의 파도...

꽃이여, 만발하라,  
기쁨이여, 나래치라  
은혜로운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  
다함없는 사랑으로 높이 펼쳐드신  
사회주의교육체제의 빛발을 안고  
강산도 설레인다, 설레이며 노래한다!

오로지 인민을 위해 한평생  
눈보라 만리, 불길 만리를 헤치시여  
이 강산에  
락원의 꽃바다를 펼쳐주시고  
사회주의교육의 본보기로  
조선을 빛내여주시는 어버이수령님

가슴뜨거이 생각하노라  
가난과 무지와 몽매의 어둠속에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히던  
우리 인민에게  
배움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배움의 권리를 안겨주신 크나큰 그 사랑

아이들의 연필문제를  
인민주권의 첫 의정으로 넣어주시고  
가렬한 전쟁의 그날에조차  
총을 쏜 화선의 전사들을 부르시여  
대학의 책상머리에 세워주시던  
아버이 그 사랑에 끝이 있으랴,

말하라, 학교가 학생들을 찾아가는  
11년제 의무교육의 해밝은 창문들이여,  
말하라, 노을 비낀 공장지구  
로동자들이 들어서는 대학의 전당들이여,  
아버지와 아들이, 손자와 할머니가  
배움의 웃음꽃을 피워가는 불밝은 밤들이여,

아, 끝없는 그 사랑 그 품속에  
온 나라가 그대로 학교로 되고

온 인민이 그대로 학생으로 되어  
한생을 배우며 자주의 삶을 빛내여가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  
이 땅에 밝혀주신 위대한 주체의 교육강령이여!

백두의 설한풍을  
초연 스민 외투자락으로 막아주시며  
혁명의 미래를 키우시던 그 자욱자욱이  
여기에 위대한 진리의 글발로 새겨지고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높으신 뜻이  
여기에 만고의 대전서로 빛을 뿌리거니

지구우에 학교의 문이 열리고  
문명의 력사가 흘러흘러 수천년  
인류는 비로소 받아안았어라,  
그처럼 바라고 바라던  
자주의 인간을 안아키우는 사랑의 품을!  
창조의 삶을 꽃피워주는 은혜로운 해빛을!

꽃이여 만발하라  
기쁨이여 나래치라  
축복 받은 20세기의 하늘아래  
해빛이 웃고  
아이들이 웃고  
온 인민이 웃고  
온 누리가 밝게 빛난다!

테제를 받아안은 우리의 이 행복  
주체형의 공산주의 새인간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충성의 대를 이어 빛나고 빛나라라  
그 빛발 받아안고 끝없이 설레이는  
대륙과 대륙들에도  
신생의 노래, 자주의 노래는 높이 울리리라

아, 위대한 수령님  
주체의 하늘아래 사랑의 해발로 새겨주신  
사회주의교육체제여,  
흐르는 세월과 세월우에 찬란히 빛나라!  
은혜로운 그 빛발을 겨웁도록 안고  
공산주의 새세계의 첫 주인으로 될  
우리의 행복속에...우리의 영광속에...

## 설레이라 벼바다, 강냉이바다여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

설레는 벌이 끝없어  
우리 부르는 노래도 끝이 없고  
물결치는 들이 끝없어  
우리의 기쁨도 끝이 없는것인가

벌을 따라 백리 또 백리  
언덕을 따라 백리 또 백리  
가도가도 끝없는 벼바다  
걸어도 걸어도 끝없는 강냉이바다

동이랴, 서이랴  
바라보고 바라보아도  
천이랑 만이랑 설레고 넘치는  
이삭의 바다, 이삭의 물결

그 어느 마을  
그 어느 길가집에 들려도  
풍년의 이야기  
그 어느 밭머리  
그 어느 이랑을 찾아도  
향기를 실어나르는 풍년의 바람

벌이 설레니  
온 나라에 기쁨이 설레고  
벌이 설레니  
행복에 설레는 강산

이 벌  
이 강산에 내리고 내리는  
은혜로운 햇빛이여  
하늘가득 넘치는 사랑이여

아, 하늘이 마르고  
땅이 말라도  
아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을 안고  
춤추는 금나락이여  
노래하는 은나락이여

온 세상에  
가물과 흉년이 들었어도  
이 땅에만은

세상에 없던 대풍이 왔나니  
풍요한 조선의 가을이여  
우리의 저 끝까지  
끝없이 설레며 노래하라

위대한 아버지 그 사랑을  
위대한 아버지 그 은덕을

### 1

맑고 푸른 하늘  
이슬 뿜는 들길  
깊은 밤 이른새벽  
아버이수령님께서 밟으신 땅이  
이 나라 들판이고 언덕이여라

어깨우에 흰눈을 받으시며  
자옥자옥 옮기시는  
그이의 발걸음  
소문없이 주인을 찾으시는 집이  
우리 농민들이 사는 수수한 농가집이여라

보람찬 오늘이 꽃피고  
행복한 래일이  
하늘처럼 열리는  
환희로운 땅  
어디 기나 행복이 무겁게 실린  
락원의 나라

푸르른 봄날  
물소리 높은 청천강기슭  
새움이 돋는 들길우로  
한대의 승용차가 조용히 달리고있어라

다가서고 물러서는  
푸른 산, 푸른 골짜기  
반기며 마주오는  
산기슭 하얀 문화주택들  
차창에 안겨오는  
논과 밭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님

봄이면 이 땅의 봄이  
 제일 먼저 비끼고  
 가을이면 이 땅의 가을이  
 제일 먼저 어리는  
 그 차창너머  
 조국의 산야에  
 자애로운 눈길을 보내시여라

불어오는 찬바람을 맞으시며  
 끝없이 옮겨가신 그이의 발밑에서  
 눈석임물이 녹아내리는 이 봄날

지구를 말리우며  
 이 땅에 오는  
 무서운 대열파를  
 이 봄에 벌써 헤아리신 수령님

땅을 말리우며  
 강을 말리우며  
 휘몰아오는 사나운 열파를  
 순간에 멈춰세우시는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당중앙전원회의 높은 연단우에서  
 지하수혁명을 선포하신  
 위대한 수령님

천줄기 만줄기  
 땅밑에 흐르는 물줄기  
 천줄기 만줄기  
 땅우에 출렁이는 관개수를  
 밀려오는 왕가물에 맞세우시며  
 현지도의 길에 오르신 수령님

혁명과 건설의 새 로선을 밝히실 때마다  
 언제나 인민의 념원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결심하신 우리 당 정책을  
 이 땅우에 실현하실 그때마다  
 언제나 인민을 찾아가시여라

한마음 당을 따르고  
 한마음 당을 받드는  
 인민의 의지와 용맹이  
 이제 온 나라에  
 지하수혁명으로 끓어번질  
 포전과 포전을 찾아가시여라

강산에 흰눈이 쌓인  
 이해의 첫날부터  
 농업을 주공전선의 하나로 세워주시고  
 그 누구의 생각도 미칠수 없었던  
 낫 한가락, 호미 한가락  
 프락프르대수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농기구를 헤아리시며  
 농업전선에 튼튼한 무장을 갖추어주시더니  
 지하수혁명의  
 위대한 작전을 안으시고 진두에 서신  
 위대한 수령님

이름없는 보부리의 발머리에  
 달리던 차를 멈추시고  
 밤금 물섞인 흙을 파올리는  
 우물앞으로 천천히 다가서시여라

뜻밖에 그이를 뵈옵고  
 쌓아올린 흙무지우에 깊은 자욱을 내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농민들은 감격에 목이 메는데

흙물은 손들을 잡아주시며  
 보부리가 전원회의결정을  
 제일 먼저 받들었다고  
 높은 치하를 주시는  
 자애에 넘치신 그 음성

그리도 기쁘시여  
 그리도 만족하시여  
 흙드레박이 걸린  
 삼발을 잡으시고  
 지심깊이에서 맑은물이 솟구치는  
 우물을 내려다보시는 수령님,

농민들과 함께  
 흙드레박을 내리시여  
 손수 물도 떠보시고  
 봄아지랑이 피는 들에  
 환한 웃음을 보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강냉이그루들을 밟으시며  
 이랑이랑 넘으시여라

이 땅의 한포기 곡식  
 이 땅의 마지막 밭이랑까지  
 자연의 그 어떤 횡포도

감히 다칠수 없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듯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산천에 올리시는 그이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의 결심이요!》

주체의 요구대로 강산을 다스리시고  
주체의 요구대로 자연을 휘어잡으시고  
주체의 요구대로 한랭전선을 물리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을 따라  
주체공업의 강력한 무쇠바퀴들이  
대지를 흔들며 달려왔어라

은금을 캐내고  
쇠돌을 캐내고  
지하의 보물을 캐내던  
강철의 시추기들이  
이 봄엔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천금보다 귀중한 또 하나의 보물을 찾아  
지하수혁명의 장엄한 노래를 불러라

땅이 있어 사람들 거기에 목숨을 걸고  
땅이 있어 목숨 건 씨앗을 뿌려왔건만  
대륙을 휩쓸며  
광란하는 한랭의 태질속에서  
타드는 땅을 안고  
타드는 씨앗을 안고  
아침에 또 저녁에  
숨저간 사람 천이더냐 만이더냐

터지는 눈바람과  
무서운 열파에 휘말려  
계절을 잃은 지구  
지구위에 밀려오는 한랭전선을  
먼저 내다보시고  
하늘도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과학농사, 포기농사

사랑의 주체농법을 이 땅위에 펼치시여  
자연의 무서운 재난앞에서도  
우리의 농업을 끝없이 꽃피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손길이여

그이께서 한번 결심하시면

그것이 만풍년의 가을이 되고  
그이께서 한번 결심하시면  
그것이 기쁨으로 되는 나라

찬바람을 이기고  
해마다 오는 조선의 가을  
왕가물을 이기고  
해마다 오는 조선의 만풍년

이 땅우에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로고  
이 땅우에 주시고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이여

눈바람 찬바람을 맞으시며  
현지지도의 하루해가 저물던  
안주땅의 그 저녁  
색날은 군복을 아직도 입고있는  
제대군인 분조장을 가까이 부르시여라

천천히 밭고랑을 옮겨짚으시며  
군대에서 몇년이나 복무했는가  
다정히 물으시더니  
첫해농사를 짓는다는  
제대군인이 올리는 말을 들으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기도 하시더니

총을 쥐었던 제대군인이  
이제 다루어야 할  
농사의 그 많은 일들을 헤아리시는듯  
믿음에 찬 안광으로 굽어보시던 수령님

이랑우에 수북이 덮인 흰눈을  
한손으로 밀어놓으시고  
또다시 밀어놓으시며  
손수 언땅에 금을 그으시여라  
강냉이영양단지  
포기농사법을 가르쳐주시며-

가슴속 솟구치는  
감격의 눈물이런가  
땅을 짚어가시며  
포기농사법을 배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손우에는  
하얀 눈이 녹아  
물방울이 맺히고...  
수령님을 우러르는 분조장의 눈가엔

뜨거운 이슬이 맺히고...

아, 그 손길이 아니시였던가  
백두밀림의 준엄한 그날  
나라 없는 인민들의 아픔을  
한가슴에 안으시며  
뼈꾸기 우는  
근거지의 발머리에서  
첫씨앗을 묻으시고...

해방의 그해 봄  
이 나라 농민들의 천년소원이었던  
땅을 주시고  
토지개혁의 발머리에  
큰 패말을 박아주시던 그 손길로  
농민들과 함께 첫모를 내시고...

전화의 그 언덕을 넘어  
전진하는 혁명과 함께  
우리 농업을 협동화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던 그 나날  
조합원의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으시던 그 손길

사회주의가 승리한 이 땅  
농촌체제를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신  
그 손길로  
트락토르 기계화의 대군단을  
이 땅우에 떠나보내시지 않으셨던가

크나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따뜻한 손길로  
농촌혁명가들을 키우시어  
이 나라 대지우에 세워주신  
아버이 그 사랑,  
공업화의 푸른 하늘아래  
세기적락후를 벗어던진  
현대농업을 일떠세우신 그 높이신 뜻

오로지 인민을 위하시어  
이 땅우에 내리는 눈비를 다 맞으시며  
우리 혁명을 이끄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부르시어  
농업전선에 세워주시고  
사회주의농촌을 꽃피우신 수령님

인민의 소원이라면  
천만소원을 다 풀어주신 그 걸음으로  
지구우에 휘몰아치는  
한랭전선을 맞받아나아가시며  
이 땅우에 주체의 농법을 꽃피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그 손길

그 손길을 높이 드시어  
천길 땅속의 물을 이끌어  
자연개조 5대방침이 꽃피는  
충충다락밭들에  
철철 생명수를 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이 땅의 오탁은  
연연히 굶이치는 판개의 노래와 함께  
억년 가물을 모르는  
깊디깊은 지하수에 뿌리를 내리였거니

맑은 하늘을 이고  
탐스럽게 여물어가는  
이 땅의 나락은  
위대한 수령님의 그 령도의 손길아래  
사랑의 바다가 되어  
이 땅우에 설레이고 또 설레이는것이여라

## 2

노래를 드리려면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아버이수령님께 드리고싶고  
기쁨을 드리려면  
이 땅의 가장 큰 기쁨을  
아버이수령님께 드리고싶은 마음이여라

베풀어주신 크나큰 그 사랑이  
안겨주신 크나큰 그 은덕이  
설레는 저 벌에 어려있고  
이 나라 인민의 가슴속에  
뜨거운 눈물로 간직되어있어라

온 강산이 꽃으로 피어  
다함없는 축원을 안고  
간절한 마음을 안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4월의 봄명절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이 나라의 끝없는 발걸음들이  
만수대 푸른 언덕으로 굶이치는데

명절의 그날에도 수령님께서  
어깨우에 이슬비를 맞으시며  
청천강기슭  
이름없는 다락밭에 서계시었어라

한줌 흙을 쥐어보시던 그 손길로  
채 젖지 않은 한줌 흙을  
또다시 쓰시며  
물결쳐간 언덕에  
깊은 생각을 엮으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는 수령님

조용히 옮기시는 발자욱  
자욱마다 새기시는 깊은 생각  
옮기시는 그이의 자욱자욱을  
뜨거운 눈물로 적시던 마을의 한 로인은  
목메이는 소리로 말씀드리여라  
《수령님, 오늘 농장원들은 다 쉽니다.》

소박한 로인의 그 진정을  
뜨겁게 안아주시며  
옷섶에 뱉히는 이슬을 털어주시는 수령님  
《로인님, 땅이 합토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습니까.》

아, 농사가 아무리  
천하지대본이라 해도  
이날에야 어떻게  
수령님께서 들판에 서계셔야 하고  
쌀이 아무리 귀중한들  
수령님께서 옷을 적시시며  
찬비내리는 들길을 걸으셔야 합니까,

베푸신 은혜를 받기만 하고  
주시는 행복을 받기만 하고  
수령님께서 쉬셔야 할 이날마저  
포전에 계시게 한 우리이건만  
오시는 때마다  
이러히도 뜨거이 손을 잡아주십니까

길고긴 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면서도  
아버이수령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한 우리였고  
한생을 땅과 함께 살아왔어도  
아버이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다 받들지 못한 우리이건만

하늘이 다 담을수 없고  
땅이 다 받을수 없는  
크나큰 사랑을  
크나큰 영광을  
또다시 안겨주시며  
날저무는 청천강기슭을  
오래도록 걷고걸으시는 수령님

찬바람 부는 정이월엔  
쨍쨍 얼음이 터지는 소리를 들으시며  
새 작전의 생각깊은 자욱을 옮기시던 이 기슭

한잎 두잎 속삭이며 자라는  
랭상모 하얀 박막속에  
손수 온도계를 넣어보시며 걸으시던 이 기슭

뜨락또르운전수들이 갈아엎은  
산골짜기 마지막 밭떼기까지 찾으시며  
랭해를 이겨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걸으시던 이 기슭

낮익은 발이랑  
낮익은 산기슭을 바라보시며  
저무는 산촌에  
노을비낀 청천강기슭을  
아버이수령님께서 걷으시여라

한자욱을 옮기시며  
봄물이 넘치는 들을 생각하시고  
또 한자욱을 옮기시며  
다락밭에 홀려들 물소리를 들으시는가  
걸음마다 깊은 생각을 남기시며  
천천히 걸으시던 수령님

산이 높고 골이 깊은  
이고장 산밭들과 골짜기들을 둘러보시며  
한 관리일군을 가까이 부르시어  
우물은 몇개나 댄가 물어도 보시고  
우물의 깊이는 얼마나 되는가고 알아도 보시더니

철철 관개수 넘쳐흘러  
어디 가나 출렁이는 물결,  
물걱정 없는 그 언덕 그 들에 파놓은  
우물들을 하나하나 헤아려보시는

어버이수령님,

십년... 또 십년...

아무리 큰 가물이 밀려와도  
푸르른 밭이랑, 생명수 넘칠 이 땅

당이 한두해 농사나 잘 짓자고  
우물을 결심한것이 아니라고  
천년 가물을 모르는  
만년대계로 만들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여라

오늘에서 래일을 내다보시고  
이 땅의 천만년 미래를  
오늘에 마련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인민의 기쁨이 실리고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락원의 강산에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마련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혜에 목매여  
지는 해가 안타깝고  
지는 달이 아쉬워  
쌓고쌓는 우물의 한돌기를 남겨두고  
차마 밭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목수건을 태워 화불로 쳐들고  
정성담아 돌을 쌓아가던  
농장원들의 깨끗한 그 마음

그 마음 벌에 넘치고  
그 마음 언덕에 넘치여  
수령님의 높이신 뜻 꽃핀 이 땅

벌이 생겨 땅이 생겨  
그 언제 이 땅우에 펼쳐진적 있었던가  
천리바람도 쉬어서 넘는다는!  
천칠백의 산정에도 우물이 솟아나고  
포전은 포전마다  
굴포와 줄짗을 받아안은적이 있었던가

말하라 하늘이여  
말하라 땅이여  
어느 시대 어느 세월에  
그 밭을 그 밭에서 솟아난 물로

곡식을 가꾼적 있었던가

굽이굽이 연풍호기슭을 에돌아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상서리의 그 포전으로부터  
《만풍년포전》의 화불은 타올라  
벌은 벌마다 《만풍년포전》  
충충다락밭도 《만풍년포전》

설레이라  
충성의 마음을 안고 설레이라  
강녕이바다, 벼바다여  
연백벌, 함주벌, 열두삼천리벌...  
여기서 다 바라보지 못하는 벌은  
그 얼마나 넓은것인가

산기슭을 감돌며 설레는  
강동, 의주, 회령의 다락밭...  
여기서 다 바라보지 못하는 다락밭은  
그 얼마나 많은것인가

인민의 기쁨이 설레는 소리  
인민의 행복이 설레는 소리  
들에 하늘에 넘치는  
이삭의 바다 이삭의 물결을 헤치며  
다시 또 풍요한 들 한복판으로 달리는  
승용차 한대

향기로운 가을바람  
풍년의 노래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가  
벼바다, 강녕이바다를 바라보시며  
차창가에서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수령님

《얼마나 좋소  
들은 벼바다요  
언덕은 강녕이바다요.》  
《풍년이요  
대풍이요.》

들바람을 헤치시며  
물결치는 금나락을 헤치시며  
그리고 기쁘시여  
그리고 만족하시여  
벌에 울리시는 수령님의 말씀

《올해 만풍년을 이룩한



전체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에게  
내가 감사를 보낸다고 전해주소.

아, 눈바람 찬서리를 맞으시며  
온 한해 들에 계시고  
온 한해 곡식을 가꾸시며  
수령님께서 이 땅우에 만풍년을 안아오셨건만

오히려 그 기쁨을  
우리 농민들에게 주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주시는 수령님

한평생 베푸시고 베푸시는  
다함없는 아버이 그 사랑을 안고  
수령님 타신 승용차를 마주향해  
달려오고 달려오는 황금의 파도여  
이삭의 바다, 이삭의 물결이여  
아, 강냉이바다, 벼바다여  
온 한해  
인민 위해 바치고 바쳐오신  
수령님의 그 로고의 자욱우에 설레는  
위대한 사랑의 바다!  
우리의 가슴가슴에 넘치도록 안겨주신  
위대한 행복의 바다!

그 어떤 왕가물에도 흔들림 없이  
그 어떤 찬바람에도 끄떡없이  
한랭이 휩쓰는 지구우에 솟아오른  
주체농법의 위대한 승리어  
설레이라, 설레이라  
무르익는 이삭이 물결치는  
벼바다  
강냉이바다  
위대한 수령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되어 설레이라

\* \*

은혜로운 해빛이 넘치는  
락원의 이 강산에  
해마다 오는 조선의 가을  
해마다 오는 조선의 만풍년

행복의 이 땅  
영광의 이 땅  
인민의 기쁨이 끝없이 설레는 땅으로  
온 세상 경탄의 눈길이 모여온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해와 달이 빛나는  
행복한 락원에 우리 살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금나락 은나락이 차넘치는  
만풍년의 조국에 우리 사나니

노래하노라  
풍년의 북소리 하늘가에 울려가는  
민족의 이 경사여,  
은덕에 사무치는 마음들이  
황금의 파도에 실려  
황금의 나락에 어울려 춤추는  
조선의 가을이여

이 기쁨,  
이 행복을 받아안은 이 가을에  
또다시 오는 해의  
풍요한 가을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이 계시고  
충성스런 인민이 있고  
주체의 대지가 있는 한  
조선의 가을  
조선의 만풍년은 영원한 우리의것이여라

3대혁명의 노율이 찬란한  
이 땅우에 오리라  
장엄한 기계화의 대지우에  
록비로 기름진 대지우에  
또다시 금나락을 펼쳐줄 이 땅의 가을은

가리라  
천만톤의 황금봉우리를 향해  
이 기쁨  
이 영광을 안고  
조선은 가리라

한평생 들길을 떠나지 않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며  
이 땅은 영원히 만풍년으로 설레이라  
아, 세세년년 만풍년의 기쁨속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선은 길이길이 살리라

## 크나큰 믿음을 주시여

《백금산》으로 널리 알려진 룡양광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감동을 안고 돌아간다.

사람들은 으리으리한 공장도 아니고 6천톤프레스나 또는 최신식 대형기계들이 기세 좋게 돌아가는 것도 아닌 마천령산봉우리들이 눈앞에 아찔하게 막아선 여기에 와서 그토록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은 무엇때문이라!

그것은 《백금산》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배려를 누구나 감동없이, 눈물없이는 들을 수가 없기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광부들이 오늘과 같은 기적을 어떻게 창조하고 있는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들을 한 품에 안아 따듯히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신 가슴 후더운 사랑의 역사를 긍지높이 자랑하며 이야기한다.

내가 제대배낭을 이 산정에 풀어놓을 때만해도 광산은 크지 않았고 따라서 그 생산량도 많지 못했다. 설비도 빈약하였던 우리 광산이 주체공업의 위용을 자랑 떨치는 《백금》의 대생산기지로 되기까지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사랑과 높은 덕성에 대하여 이루 다 표현할 수는 없다.

내가 갱구장으로 일하는 《금산광구》만 해도 어버이수령님의 끊임없는 지도와 보살피심 속에서 영웅소대, 《공산주의소대》가 태어났으며 수많은 영웅들과 국가수훈자들이 태어났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백금산》의 7호굴착기영웅소대의 기대에는 영웅메달과 2중천리마메달과 함께 16개의 붉은 오각별이 새겨져 있다. 7호굴착기의 이 위훈의 표식들은 우리 《백금산》의 역사를 잘 말해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벌써 16년전 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산골도 심심산골인 룡양골을 몸소 찾아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하늘을 치받들고 아찔하게 높이 솟은 벼랑바위산을 오래도록 바라보시고 매우 만족하시여 여기에 있는 돌산은 《금산》이며 《돈산》이라고 하시면서 광산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광산의 형편은 발전하지 못했고 광부들까지도 영예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갱에서 캐내는 광석생산량은 얼마되지 않았고 로천채굴장도 변변하지 못하였었다. 이런

형편에서 호랑이도 힘준한 산령을 오르지 못해 《따웅따웅》 하고 울었다는 《금산》을 헐어내려려는 생각은 더더욱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광산의 실정을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 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세계적인 요구와 그 중요성으로 보아 광석을 대대적으로 캐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채굴장도 더 많이 여러곳에 만들어야 힘도 덜 들고 좋다고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운반과 함께 저광사도 더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광석생산을 부쩍 늘려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광부들의 생활에 대하여 크게 심려하시어 국가적으로 잘 돌봐주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채취공업은 생산의 첫공정이며 따라서 이 부문을 앞세우지 않고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광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았다. 그후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들이 캐내는 광석이 백금과 같이 귀중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백금산》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시었다. 우리들은 감격에 목메어 모두 흐느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광산의 발전전망을 두시고 수많은 교시들을 주시었고 대형자동차와 굴착기, 불도젤과 같은 현대적인 광산설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었다.

이리하여 우리 광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백금산》정에다 집을 짓고 갱도 굴진과 함께 로천채굴을 더욱 확장하여나갔다. 우리는 그날로부터 7호굴착기를 산정에 끌어올려 다놓고 16년이란 세월을 한가마밥을 먹고 한이불을 덮고 살면서 광석을 캐내었다.

지금 내가 일하는 《금산광구》만해도 다량의 《백금》을 캐내는 큰 광구로 되었다. 한개의 광구에서 이처럼 많은 광석을 생산한다는것은 아마 세계력사에 없는 기적일 것이다. 우리 광구의 앞장에는 영웅소대 《공산주의소대》인 7호굴착기소대 영웅들이 서있다. 그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열기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광석을 캐

내기 위해 그야말로 전투를 벌이고있다.

그들은 새로운 채광장을 부단히 마련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부속품과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며 기술혁신과 창고고안도 대담하게 받아들여 광석생산량을 부쩍 높이고있다. 그리하여 7호굴착기영웅소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기념일을 맞게 되는 지난 4월 15일전으로 벌써 연간계획을 완수하고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삼가 올리였으며 년말까지는 올래 계획의 3배를 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우리는 이미 통이 크게 일을 대담하게 벌려 30만산, 60만산, 100만산 대발파를 들이대어 해발 1,200미터의 산정을 400미터나 낮아지게 몽청 때내었다.

이처럼 광석을 폭폭 퍼낼 때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간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이 우리들의 가슴속에 더더욱 커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자그마한 성과를 두고 못내 기뻐하시며 그때마다 축하문과 표창장 그리고 여러가지 영예칭호와 귀중한 선물들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우리가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는가. 한일보다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우리들이다. 우리가 일에서 성과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과 크나큰 신임의 결과이다.

그런데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백금산》의 7호굴착기소대 전원에게 한낱한시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여주시였고 분에 넘치게도 《공산주의소대》라는 최고의 높은 영예를 안겨주시였다.

정녕 이 사랑 이 영예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하랴!

우리 광부들에게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많은 선물을 보내주시던 날! 나는 이날을 일생을 두고 잊을수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성대한 모임을 마련하시여 우리 광부들에게 국가수훈의 영예와 함께 귀중한 선물을 안겨주시였는데 그 선물에는 온 가족들의 땀까지 다 있을뿐만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미래들의 땀까지 들어있었다.

친부모도 자식이 생겨야 옷을 해입히는법이다. 지난날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이 생겨도 옷 한벌 해입히지 못해 얼마나 안타까와 했던가. 그런데 수령님께서서는 이렇듯 해빛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신것이다.

16년간을 자연과 싸우면서도 눈물을 모르던 우리들이 귀중한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감격에

목메여 울고 또 울었다.

세상에 행복이 있다면 이런 행복이 그 어디에 있으며 행복하면 우리들처럼 행복한 광부들이 어데 있단말인가. 세상에 우리처럼 고마운 은덕아래 보람찬 로동을 하는 로동계급이 그 어데 있단말인가. 이처럼 우리의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시여 모든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향유하도록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고계신다.

우리 광부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이 고마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대를 두고 길이길이 전해갈것이다.

우리 광부들은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의 바다보다 넓고 깊은 사랑에 적으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백금산》마루에서 광석생산을 위해 투쟁하고있다.

우리는 기준량이란 또는 공칭능력이란 말을 잊은지가 이미 오래다.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를 높이 들고 결심한대로 광석생산성과를 올려놓고야만한다.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위한 우리의 결심이 바로 공칭능력이고 기준량이다. 우리의 심장속에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성하겠다는 그 충실성에 한계가 없는이상 광석생산장성은 끝없이 높일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올해계획도 3배로 해낼것을 결심하였다.

오늘 우리 룡양광산의 로동계급은 영웅소대에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고 온 광구와 광산을 영웅광구, 영웅광산으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처럼 영웅소대, 《공산주의소대》의 범위를 벗어나 영웅광구, 공산주의광구로, 나아가서는 영웅광산, 공산주의광산으로 되기 위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며 모두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해나가고있다.

나는 앞으로도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휘황한 전망을 안고 온 광구를 영웅광구, 공산주의광구로 꾸려나갈것을 굳게 결의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친위대 결사대답게 일편단심 대를 이어 끝까지 충성다하는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을 힘차게 걸어나갈것이다.

**계관근위 2중천리마 룡양광산 금산광구  
광구장 2중로력영웅 김필환**

# 단조공의 노래

배헌평

쿵쿵, 두드린다  
공기함마  
쿵쿵 두드린다  
이내 단가슴

함마소리 쿵더쿵 장단에 맞춰  
집채같은 쇠덩어리 춤추며 돌아가니  
단조장에 튀는것 불꽃만이라  
이내 가슴 넘치는것 기쁨만이라

마음먹은대로 척척  
생각대로 척척  
한번 두드리면 기계의 본틀  
다시 한번 두드리면 갖가지 부속일세

종구나 단조공  
우리네 보배손  
종구나 형단조  
우리네 일터

풍랑세찬 먼바다엔 대형선박 띄워놓고  
황금의 들판엔 벼수확기 옮겨놓네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조국땅 한끝까지  
함마장단 맞추어 행복이 꽃핀다네

힘껏 두드려라  
공기함마  
두드려라  
잘익은 쇠덩어리다

부엌일 덜어질  
너인들의 발걸음 여기서 시작되고  
꽃차에 실려 탁아소 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여기서 울려나네

함마장단 맞추어  
지하천길 막장에 발파소리 높아가고  
단조공의 노래 울려가는곳  
용해장의 장수들 더운땀 식는다네

두드리면 이는 불바람에  
건설의 탑들은 키를 솟우고  
조국의 재부 산처럼 떠실은  
렬차들의 행렬 땅구르며 달린다네

형단조 쿵쿵  
장엄한 우뢰소리  
어버이수령님 가르치심 따라  
진군하는 조국의 발구름소리일세

풀무소리 한숨깊던 야장간자리에  
공기함마 들어놓고 기뻐했더니  
오늘은 쿵쿵 형단조  
기계를 척척 찍어내네

호미 낫 버리던 일  
옛말로 되였듯이  
기계로 깎는 일도  
옛말로 만드세

기술이 새 기술로 바뀌는곳  
사람마다 일숨씨 달라지는곳  
내 사랑하는 단조장  
일하는 보람 끝없는곳일세

쿵쿵 두드리면 기계뿐이라  
우리의 단조장  
크나큰 지붕아래  
조국의 새모습 새기여지네

## 풍년작황의 들판을 거닐며

리광근

황금벌 넓은 들에  
해빛도 따사롭다  
탐스러운 벼포기  
쟁별에 설레어  
나를 불러라  
월 월  
옷단추 열어젖히고  
들길에 나서라  
술렁술렁  
이삭들 영그는 소리  
지평선 저 한끝까지 닿아  
내 마음  
대풍의 가을을 안고  
월 월,  
봄 여름 겨울없이  
들판에 살았어도  
처음으로 들에 나선 마음이다  
어허, 작년 대풍에  
무릎을 쳤더니  
올해의 흐뭇한 이 작황엔  
세상이 들썩하게 북을 울리랴  
맑은 하늘엔  
수리개 한마리  
아득한 들판엔  
내 걸음걸음,  
앞을 보아라  
뒤를 보아라  
늠실늠실  
황금의 벼바다, 강냉이바다  
어디서뇨  
불벌의 가물과 무더기비에  
땅을 치며 통곡하는 아우성소리  
지구의 여기저기  
그침없건만  
이 나라, 이 땅엔  
만풍의 작황 설레임소리  
사람들 마음을 불러라  
오, 한겨울 눈길에  
씨앗을 골라주시고  
왕가물 봄날에  
땅속의 물길을  
땅우에 열어주신  
아버이수령님의 그 손길  
거룩하신 그 걸음걸음이  
강냉이바다, 벼바다로  
끝없이 끝없이만 펼쳐진 내 나라

찬서리 찬바람 속에서도  
이 땅엔 어버이손길  
따사롭게 스미어  
탐스러운 포기포기  
바라보는 이 마음  
뜨거움에 젖어라  
들이라 언덕이라  
알알이 낱알맺힌 이삭이삭  
아름아름 한가슴에  
안아보고싶어,  
영그는 낱알향기에 젖어  
설레는 벼이삭소리에 끌려  
해종일  
들판에 살표은 마음  
걸음걸음 이 벌을  
통채로 안아올려  
누리를 향해  
소리소리 자랑을  
해종일  
웨쳐 웨쳐보라,  
어화, 건듯 열린  
저 하늘  
흐뭇한 작황이 실린  
풍년벌, 조선의 들판이 비껴  
저리도 한껏 푸르리라,  
들판엔 설레는  
만풍의 작황이  
푸르른 하늘엔  
찬란한 해빛이,  
기쁨에 환희에  
들판을 거닐고 거닐며  
다시 또다시 깊어지는 생각  
아버이수령님 뜻을 받들어  
대를 이어 천년을  
이 벌에 살자고  
이 벌에 살자고 흥치며 설레는  
황금들 넓은 벌이  
나를 불러라  
아, 어버이사랑의  
미소를 담아  
따사로운 해벌  
은혜의 빛발이  
들에 퍼져  
가슴에 스미어  
천만년 만풍의 가을이  
이 땅, 이 하늘에 열려라,

# 가을날, 열차를 타고가며

리정술

깃을 치며 령을 넘는 풍년새도  
황금벌 함께 가자 차창가를 에도는가  
내 도무지 창문을 내리울수 없구나  
가도가도 끝이 없는 풍년대지의 훈향이  
가슴에 젖어들어...끝없이 흘러들어...

한굽이 돌아서니  
아득히 물결치는 벼바다...벼바다...  
황금나락속에 파묻혀 웃는  
농장원들의 웃음소리  
내 넋을 앗아가더니

또 한굽이 돌아서니  
구름우에 층층 높이 쌓은 다락밭우에  
춤추며 설레이는 강녕이바다.  
팔뚝같은 이삭을 따들이는 처녀들의 모습  
내 눈길을 이끌어가누나

굽이굽이 령길따라 파도치는 풍년바다,  
흘러가는 은물결도  
마주오는 금물결도  
위대하신 수령님의 그 사랑 못잊어  
천이랑 만이랑 한빛으로 설레며  
해종일 끝없이 속삭이는듯...

아, 어언듯 차창가에 눈시울 젖어  
깊어지는 마음안고 황금들 바라보니  
자애로운 수령님 영상!  
눈내리는 설날의 아침도,  
4월의 명절도  
심려안고 끝없이 걷고 또 걸으시던  
아버이 영상이 가슴에 안겨와 차창은 흐려지고...

불이 일던 피약별을 온몸에 받으시며  
꽃강냉이 한이삭으로 끼니를 에우시며  
별방의 논둑길에  
산간의 포전길에

끝없이 찍어가신 은정의 자욱들이  
이 가슴에 안겨와 목이 메여라.

아, 수천만년 씨뿌려온 세상사람들  
때아닌 눈바람에, 열파에 아우성칠 때  
이 나라에 밀려오는 만년홍수, 천년가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다스리시여  
세세년년 풍년세월 이 땅에 불러주신  
아버이 그 사랑,

그 사랑 못잊어 하늘땅에 설레는가,  
벌 가득 속삭이는 황금벼바다...  
산 가득 춤을 추는 강녕이바다.  
마을마다 넘쳐나는 웃음의 바다...

감사에 젖어 환희에 넘쳐  
내 언뜻 머리를 드니  
차창밖에 밀려오는 은금의 나락도  
조선의 이 가을, 만풍의 대지를  
통채로 들어 온 세상에 자랑하라고  
나를 붙잡고 속삭이는듯

좋구나, 이런 날 열차를 타고  
황금의 바다, 은정의 바다 안고서 가는  
내 마음 얼마나 즐거운가,  
한낮이 지나고 새벽이 와도  
끝없는 대지의 금풍에 젖어  
풍년나라 이 땅의 끝에서 끝까지 가고싶구나,

오, 열차는 또 한굽이 돌아서는가,  
굽이굽이 령길따라  
황금의 쌀산이 마주오는듯  
더 좋을 행복이 웃고있는듯  
길게 울리는 기적소리도  
마치 천만톤 황금산을 실으려가는  
만풍년의 노래처럼 들려오누나,

# 보호자

-한 산림보호원의 수기-

리순우

예전의 마구간은 감방으로 되어버렸다. 천정은 거스름이 낀 우불구불한 서까래가 앙상한 갈비뼈 같이 올려다보이고 말뚝내가 역하게 풍기는 곳이었다.

나는 이 숨막히는 어둡침침한 감방속에 근 열흘째 갇혀있었다. 한줄기의 해빛조차 간절히 그리웠다. 나는 산림보호원이었다. 눈이 비린것을 좋아하는 고양이 눈알같이 노란 미군장교놈이 거의 매일같이 나를 심문하였다. 오래전부터 우리 땅에서 파괴와 약탈을 일삼은놈이어서 조선말을 끝날 지경였다.

《선교사로 명망높던 나의 할아버지는 아름다운 반도땅에서 희생되었소.》

아마 《사만호》를 타고 대동강에 기여들어 오만하게 약탈, 폭행, 살인행위를 하다가 물귀신이 되지 않았으면 《하느님》을 퍼뜨리다 농민들의 호미날에 찍히었을것이다. 대를 물려가는 도적놈 족속이었다.

지금 미군장교놈은 구룡산 《산림자원도》가 어디 있는가를 나에게 캐물었다. 우리 구룡산을 손쉽게 파괴하고 자원들을 모조리 약탈하려는 속심이었다.

나는 입을 봉하였다. 그게 어떤 도면이길래 함부로 내놓을텐가 지금 미군장교놈은 구룡산 《산림자원도》가 어디 있는가를 나에게 캐물었다. 산업국유화법령이 발포된 이듬해 봄부터 우리 산림일꾼들은 3년동안 험한 산밭을 오르내리며 구룡산의 귀중한 자연재부들을 찾아내어 도면우에 정리했었다. 이것을 펼치면 수종이 좋은 림지며, 수십년 묵은 산삼밭, 사향과 록용골짜기... 값높은 재부로 가득찬 구룡산자연세계가 손금같이 환하였다. 인민의 복리증진에 바쳐질 귀중한 도면이었다.

피로 지킨 도면이기도 하였다. 미국놈들이 갑자기 쓸어드는바람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문건들을 수습하느라 뒤늦게 인민무장대로 찾아 떠난 당위원장과 나는 미군장교놈이 거느린 《산림조사대》놈들에게 발견되었다. 놈들의 추적을 피해 산을 넘다가 그만 흉탄에 맞은 당위원장은 배낭속에 소중히 간사한 《산림자원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라는 임무를 맡기고 숨을 거두었다. 나는 야밤을 타서 범골 바위벼랑 밑에 도면을 파묻었다. 이 장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놈들을 달고 산 하나를 넘는데 나는 성공했지만 추격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미군장교놈은 내 입을 열어보려고 악착하게 고문을 하였다. 놈들이 아무리 《산림조사대》를 동원하여 일년동안 구룡산을 들춘다 해도 《산림자원도》가 없이는 귀중한 산림자원들을 쟁그리 약탈하지 못하리라는것을 잘 아는 나는 입을 다물

었다. 악이 치받친 장교놈은 오늘까지 모든것을 실토하지 않으면 총살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내렸다. 나는 그것이 결코 위협이 아님을 잘 알고있었다.

나는 숨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이었다. 구룡산이 더럽혀지는것을 원치않는다. 이것은 나의 량심이였으며 곧 나의 운명이기도 하였다.

나의 눈앞에는 생의 마지막 총화를 해야 할 엄숙한 시각이 다가왔다. 어떻게 하든 《산림자원도》를 믿음직한 손에 넘겨주어야 한다. 나의 마지막 임무였다. 하나 바람조차 스며들기 주저하는 이 감방속에서 도면을 누구에게 맡길단말인가. 모색하고 또 모색했지만 실통한 묘안이 없었다. 생각할수록 가슴만 답답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만간다.

감방안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속에 짓눌려있다. 마가울의 차갑고 쓸쓸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밖에서 갑자기 자지러진 총소리가 들려왔다. 무턱대고 울부짖는 총소리인지, 아니면 어느 생을 빼앗는 총소리인지... 나는 정신을 버쩍 차렸다. 혹 인민유격대가 습격해온것이 아닐가. 며칠전 상촌마을의 군수품야적장이 날아났던데... 나는 방금전에 통신선이 끊어졌다고 소동을 피우며 들락날락하던놈들의 물결이 다시금 눈에 선해졌다.

나는 온몸이 귀가 되어 총소리에 신경을 모두었다. 더욱더 기승스럽게 울부짖던 총소리는 갑자기 푹 멎어버렸다. 또다시 감방속으로 피괴한 정적이 물려왔다. 나의 입에서는 느닷없이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어떤 믿음이 배반당한듯한 그런 기분에 휘말려들었다. 가슴은 허전하고 또 쓸쓸하였다.

바로 그때였다. 감방앞 프락에서 법석 떠들며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딘가 총탄이 맞부딪치는 철그럭소리, 술에 찌들어진 거친 고향소리... 뒤따라 애되고 창창한 목소리가 유별나게 들렸다.

《와요, 이거 와요...》

그 모든 부잡스런 소음을 짓누르는 야들야들한 웨침소리였다.

나는 몸을 기울여 벽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철갑모를 빼뜰썩하게 눌러쓴 미군병정 두놈이 웬 소년의 먹살을 틀어쥐고 마당안에 들어오고있었다.

(무슨 아일가?)

이쪽저쪽 몸을 뒤틀며 용을 쓰는바람에 소년의 얼굴을 알아볼수 없었다.

《이새끼 박새동지가 네 할아버지냐?》

건명태같이 강마른 병정놈이 소년의 먹살을 흔

들며 악을 썼다. 또 한놈은 푸르딩딩해서 소년을 구두발로 걷어찼다. 소년은 몸을 뒤흔치며 먹살을 잡은 손아귀를 쥐어뜯었다.

《이게 어떻게 돼먹은 종자야.》

악이 복받친놈들은 이번엔 소년의 귀를 비틀어 쥐고 마구 흔들었다. 그러자 놈들의 몸뚱이 사이에서 얼핏거리던 소년의 얼굴이 푹푹히 바라보였다.

《아니, 저 애가!...》

나는 저도모르게 부르짖었다. 너무도 낯익은 소년이었다. 뜻밖의 일에 나는 가슴부터 활랑거렸다. 무엇때문에 잡혔을가.

나는 놈들이 소년을 억지다짐으로 끌고 감방과 잇닿은 취조실의 찌그러진 문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밖에 시선을 던진채 움직이지 못하였다.

텅 빈 마당안은 쥐죽은듯 고요해졌다. 거울을 재촉하는 찬바람이 락엽을 몰아다 사방으로 휘뿌렸다.

한참만에 정신이 든 나는 소년이 험하게 취급되는것을 보아 간단치않은 일이 벌어진것으로 단정했다. 나는 소년이 적들을 자극할수 있는 일거리를 상상해보았다. 자동차길에 못을 꽂아놓다 잡혔을가? 아니면 소년정찰병... 물론 사실이 아니더라도 나는 소년을 범상하게 볼수 없었다. 벽에 머리를 기대고 이 생각 저 생각에 몰려있노라니 흘러간 지난날의 추억이 밀려왔다. 모든것이 평화롭고 행복하던 시절이었다...

내가 소년을 처음 알게 된것은 달구지바퀴자리가 깊숙이 패인 동쪽길에서다. 군인민위위원회에 갔다 산에 가던 길이었다. 두 소년이 한창 벼이삭이 무르익는 논밭머리에 서있었다. 개울에서 장난을 했는지 웃이고 뭐고 온통 물에 젖어 말이 아닌데 그 애들은 말다툼을 하고있었다. 벼알이 작년보다 세알이나 더 많이 달렸다느니 작년과 같다느니 하며 제고집을 내세웠다.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럼 꺾어보자. 내 말대루 세알 더 많으론 너 한대 맥일래.》

두눈이 우물갈이 새까만 소년이 종주먹을 상대방의 코밑에다 휘두르며 올려뒀다. 어디서 끌려왔는지 이마에 허물자리가 보통장난군이 아님을 말해주었다. 소년은 바람같이 논밭에 뛰어들었다. 벼 몇이삭은 잘 꺾어올 심산이었다.

《애야 벼를 꺾지 말고 세보려무나.》

나는 급하게 소리쳤다. 논임자인줄 알았는지 두소년은 흠칫 놀랐다. 눈에 띄어든 소년은 힐끔 힐끔 나를 엿보더니 날새게 벼이삭 하나를 뽑았다. 그리고는 겁을 먹은 제동무에게 소리쳤다.

《뛰자! 잡히문 혼나.》

두 소년은 바지피춤을 연신 추어올리며 승벽대기로 도망쳤다. 동쪽길에 먼지가 뽀얗게 서리었다. 나는 멀리 사라져가는 소년들을 바라보며 어이없이 웃었다. 만만치 않은 새까만 눈, 이마의 장난기 어린 허물자리가 눈에 삼삼했다. 선생 속께나 태우겠는걸...

세월이 흘러갔다. 이 땅에는 전쟁의 준엄한 시절이 닥쳐왔다. 우리 인민군대는 질풍같이 남으로 나가고있었다.

이런 때일수록 나는 숲을 위해서 더 성실하게 땀을 흘렸다. 한그루의 나무라도 함부로 다치지 못하게 했으며 승인없이 산에 들어오는것을 엄격히 단속했다. 그때 린근 사람들은 나를 《산범》이라고 불렀다.

어느날, 전쟁의 포연도 스며들기 주저하는 중요한 이 숲속에서 나는 뜻밖의 일에 부닥쳤다. 긴 속회초리를 권 쥔 아이가 거치장스런 나무아지를 마구 꺾으며 소나무우 새둥지로 발발 기어올랐다. 그가 다름아닌 동쪽길로 도망치던 눈이 새까만 소년이었다. 이번만은 나는 가만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애, 너 그게 무슨 짓이냐?》

나는 대뜸 성을 냈다. 나무에서 푹 떨어져 도망칠줄 알았던 소년은 전혀 끄떡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소년은 이 산의 주인이기라도 한듯 오히려 제편에서 역증을 냈다.

《요전날 새둥지에 뱀이 올라왔댔어요.》

새둥지에 한두번만 오르내린것이 아니었다. 만만하게 다를 녀석이 아니다.

《애, 빨리 내려오지 못하겠네.》

소년은 내 속을 어지간히 태우고서야 불이 부어 나무에서 내려왔다. 그 애는 어느 나무에 기어오르다 다쳤을 이마의 상처를 손으로 감추며 다가왔다. 그래도 부끄러워할줄은 알았다.

그러나 나는 승인없이 산림보호구에 들어온것에 대해서 타일려야 하였다.

《너처럼 나무두 망탕 꺾구, 새두 망탕 잡아만 봐라, 산이 무슨 꼴이 되겠니...》

여름의 무더위에 증발하는 흙냄새와 싱그러운 나무잎 냄새가 풍겨왔다. 소년은 코를 벌름거리며 숲속의 온갖 향취를 만족스럽게 들이켰다.

《새두, 나무두 너희들이 몰려뒀을 나라의 재부인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아끼겠네.》

소년은 걱정말란듯이 나를 힐끔 쳐다보았을뿐 귀담아 들으려하지 않았다. 벌써 시선은 날아다니는 새를 따라 이리저리 숲속을 휘젓고있었다.

나는 종시 화가 났다. 내 재간으로 소년을 타일러낼것 같지 못했다. 생각던 끝에 나는 소년을 데리고 학교로 갔다.

담임인 너선생은 동쪽길에서부터 시작한 나의 하소를 주의깊게 들어주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너선생은 방 한쪽구석에 서있는 소년에게 다가가 소년의 헤쳐놓은 웃웃단추를 단정하게 채워주었다.

《학생한테 방학숙제를 내주겠어요.》

너선생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산속에 어떤 새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매일 관찰하고 일지에 기록하세요.》

《.....》

머리를 떨구고 서있던 소년이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방학숙제때문에 실컷 놀지 못하게 됐다는 그런 불만의 표정이다.

《그리고 숲속의 유익한 새들의 보호방법을 연구해서 동무들앞에 발표하세요》

유익한 새들의 보호방법이라. 숲에 대한 사랑을 싹틔워주고, 땅에 대한 자부심을 자라게 하는



훌륭한 숙제였다.  
 《방학이 끝나면 숙제검열을 하겠어요.》  
 작별인사를 하며 정문까지 따라나온 녀선생은 나에게 부탁했다.  
 《학생이 산에 가면 숙제를 도와주십시오.》  
 《숙제라면 나두 말리지 않겠수다.》  
 나는 쾌히 승낙했다...  
 찌그덩-하는 문소리에 나의 추억은 끊어졌다.  
 통나무를 얹어놓은 감방문이 힘겹게 열리며 밝아왔다. 독살스런 손아귀에 떠밀리운 소년이 비칠대며 감방에 들어왔다. 다시 어둠을 몰아넣으며 감방문이 닫졌다. 소년은 한자리에 서서 어둠에 익지 않은 눈으로 사방을 살펴본다.  
 나는 소년을 조용히 불렀다.  
 《야야, 이쪽에 오너라.》  
 소년은 흠칫 놀랐다. 난생 처음보는 무시무시한 감방속에서 울리는 나의 목소리가 그 애를 겁나게 한 모양이다.  
 《...마음놓구 오라는데두...》  
 내가 다시 독촉해서야 소년은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 애는 산림보호원인 나를 인차 알아보았다.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내옆에 풀썩 주저앉았다.  
 《아저썬 왜 잡혔나요?》  
 《그저, 그럴 일이 있었다.》  
 나는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바깥세상의 정갈한 목소리에 구겨졌던 마음이 다소 풀려났다. 소년은 문쪽을 힐끔 쳐다보고나서 나에게 바싹 붙어앉았다.  
 《아저썬 <인민무장대>지요.》  
 엉뚱한 물음에 나는 웃음부터 나왔다. 피투성이가 되어 감방에 앉아있는 내가 그 어떤 영웅이나 책속의 신비스런 주인공처럼 보이는 모양이었다.  
 《넌 왜 잡혔나니?》  
 나는 되물었다. 가슴 후련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소년은 한숨을 푹 쉬었다.  
 《박새둥지에 올라가지 불들렸어요.》  
 나는 그만 억이 막혔다. 보나마나 박새둥지를 털며 흑심한 장난을 치다 놈들의 비위를 건드렸을것이다. 소년정찰병으로까지 소년을 올려세웠던 나의 상상은 허물어졌다. 어쨌든 나는 어제날의 장난군을 그대로 보는것 같아 속이 좋지 않았다. 가슴이 허전했다. 어떤 믿음이 한시에 배반당한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새 설렜었던 해살이 조그마한 창구멍을 더듬다가 인차 스러졌다. 감방안으로 고요와 함께 어둠이 찾아왔다.  
 이윽하여 소년의 숨소리가 고르로와졌다. 어느새 잠이 든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는 마음을 진정키 어려웠다. 어쨌든 일인지 비장한 생각만이 북받쳐왔다.  
 지금은 얼마나 준엄한 시절인가. 땅우에 푸르청청하던 복된 삶이 화약연기에 끄슬리고있다. 하늘에서 여몰어가는 은하수를 바라보며 명석우에 둘러앉아 농사일을 상론하던 모기쭈연기 서린 그 평범한 밤조차 이 땅에서 가셔내려고 원썬들

이 발광한다. 이 엄혹한 시절에 대하여, 인간의 운명앞에 드리운 수난에 대하여 전혀 알길없는 철부지 소년, 감방과 총칼에 대한 개념조차 리해할수 없는 이 소년이 애처롭기도 하고 가슴을 아프게도 하였다. 나는 소년을 불러앉히고 아름다운것이건, 순결한것이건, 그 무엇이건 분별없이 란도질하는 포악성이 이 세상에 존재함을 일깨워주고싶었다.  
 온 세상을 그러안은듯이 네활개를 펴고 소년은 깊이 잠들었다. 수수대에 꽂은 둥그런 쇠줄에 거미줄메워 잠자리를 쫓다가 옷을 입은채로 방바닥에 곤드라졌을 평온하던 그날의 포근한 저녁처럼... 나는 소년의 머리를 바로잡아주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나는 밖에서 들려오는 어지러운 발자국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감방문이 열렸다. 전지불을 번쩍이며 괴물같이 시꺼먼 그림자들이 우르르 쓸어들어왔다. 가죽잡바를 걸친놈이 역한 구두약냄새를 들썩우며 내옆에 멈춰섰다. 진화이전의 야생인을 방불케 하는 험상한 얼굴이 잠든 소년을 내려다본다.  
 《야, 어서 일어나.》  
 《큰 소릴 마오, 그는 어린애요.》  
 어린것을 두둔하는 나의 항변을 목살하듯 그놈은 구두발로 소년을 걷어찼다.  
 세찬 충격에 소년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하품을 하며 놈들을 하치않게 훑어보았다.  
 《감직한놈,... 야, 네 집 창고구석에 틀어박은 통신선두 박새둥지때문에 끊은거야.》  
 가죽잡바놈은 소년의 먹살을 잡아일으켰다. 소년은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금시 어른이 된것처럼 태연해진다. 다만 눈에서는 파란 섬광이 뿜어나왔다.  
 갑자기 소년은 먹살을 쥔 가죽잡바놈의 손을 탁 뿌리쳤다. 먼지가 읊은듯 옷을 툭툭 털며 천연스럽게 문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놀랐다. 놈들이 무력대고 소년을 옥박지르는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소년은 장난때문에 잡혀오지 않았단말인가. 어떤 일일까? 통신선. 설마?... 나는 어쩐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소년의 태연자약한 모습, 새까만 두눈의 푸른 섬광, 옷을 털며 스적스적 걸어나가던 호방한 태도... 모든것을 이미 각오한듯싶은 소년의 모습은 예전에 내가 본 장난군과는 전혀 비슷하지도 않았다. 나는 마치도 꿈속에서 헤매는것 같았다.  
 감방열 취조실에서 악을 쓰는 고탐소리가 연방 날아왔다.  
 《...통신선은 왜 끊었는가?》  
 《.....》  
 《네놈은 빨찌산과 내통했지?》  
 《.....》  
 피비린내를 풍기는 채찍소리가 밤의 적막을 갈갈이 찢어놓는다. 그 채찍은 나의 가슴도 악착하게 물어뜯었다.  
 소년의 신음소리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넌 총살이다...》 하는 놈들의 고탐소리뿐이었다.  
 소년은 피투성이가 되어 감방에 끌려들어왔다. 까딱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얼굴을 말끔히 씻어주었다.

《이 애야, 애야!》

한참 흔들려개워서야 소년은 가느스름하게 눈을 떴다.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피어났다. 점차 밝아지는 소년의 얼굴은 나에게 세찬 걱정을 몰아왔다.

《네가 정말 전화줄을 끊었니?》

《…………》

대답이 없었다.

《전화줄은 왜 끊었니?》

나는 소년의 용감성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저 신비스럽기만 하였다.

《미국놈들이 전화줄을 늘이느라고 산림을 마구 더럽히고있어요…》

힘겹게 말을 옮기던 소년의 얼굴은 금시 이그러졌다.

《…난 참을수 없어 전화줄을 끊어버렸어요.》

나는 정신이 버쩍 들었다. 또 한번 가슴치는 걱정을 느끼며 통신선이 끊어졌다고 불안에 떨던 놈들의 물결이 눈에 선했다. 나는 아름다운것을 더럽히는 간악성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을 읽고 있다. 나는 저도모르게 소년의 손을 억세게 틀어쥐며 부르짖었다.

《네가 진짜 영웅이구나.》

《…………》

소년의 두눈이 스르르 감졌다. 아이들이 칭찬을 듣기 부끄러워하는 때처럼… 아마 소년에게는 영웅이라는 커다란 이름보다 산과 들의 보호자라는 평범한 찬사가 더 구미에 맞을는지 모른다. 아니 그런 훌륭한 이름이 자기에게 차례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나는 소년의 천진성에 말문이 막혔다.

밤은 새벽을 향해 소리없이 흘러갔다. 나에게는 밤이 생의 마지막 밤일는지 모른다. 흘러간 지난날의 추억도 여기에서 끝날는지 모른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최후의 시각에 나는 소년에게 무엇인가 귀중한것을 안겨주고싶어졌다. 무엇을 줄수 있을까? 이제부터 생이 시작되는 이 소년에게 처음으로 나의 앞길을 활짝 열어놓은 해방후 5년의 생활이 가르쳐준 참된 진리의 길에 대하여 이야기해줄것인가…

감방속으로 새벽의 신선하고 짜릿한 공기가 사양없이 스며들었다.

그때 밤의 교요를 흔들며 새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찌뻐-찌, 찌뻐-찌…》

소년은 두눈을 번쩍 떴다. 금시 얼굴에는 생기가 피어났다.

《아저씨 박새가 울어요… 박새요…》

소년은 나의 팔을 흔들며 부르짖었다.

《…지금 새벽이 됐다는걸 알리는거야요.》

소년의 눈에서는 환희의 불꽃이 맹렬하게 튀었다. 마치 짓눌려있던 기쁨이 불시 밖으로 자유롭게 튀어나온것 같았다.

그 어딘가를 헤아려보는 소년의 눈에는 당장 자리를 차고 일어나 숲으로, 강으로 달려가리라는 강렬한 충동이 불타고있었다. 어느덧 나의 마음속에도 정든 산천이 포근히 안겨왔다.

《…박새는 쪼꼬마지만 나무를 파먹는 송충이를 하루에 오백마리 잡아요… 겨울이 오면 뚝 새들은 날아가두 박새는 우리 마을을 떠나지 않거든요.》

나는 불현듯 녀선생이 방학숙제를 내주던 일이 생각났다. 가슴이 뭉클했다. 벌써 소년은 장난군이 아니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인민주권이 베껴어준 사랑이 소년의 작은 가슴에 뿌리가 내려있었다. 나는 여태껏 보지 못했던 신비스런 새싹을 발견한것과 같은 그런 환희에 휩싸여 소년의 손을 꼭 감싸쥐었다.

《난, 아직 방학숙제를 다 못했어요…》

소년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나의 가슴에 또 한번 걱정이 파도쳤다. 소년이 황홀하였다. 박새동지… 통신선절단… 이것은 소년이 대지위에 써놓은 방학숙제였다. 아름다운 래일에 대한 믿음이었다. 이것이 조국앞에 걸릴 밤은 《유익한 새의 보호방법》이었다. 나는 이것을 말하고싶었지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영웅이라는 신비스런 이름이 붙여지는것조차 엄엄해하는, 오히려 장난군이라는 몸에 뱀 이름으로 불렸어야 더 마음이 편했을 이 천진한 소년에게 내가 무슨 말을 더 할수 있으랴. 나는 비로소 소년이 무엇때문에 통신선을 끊었으며, 무엇때문에 피를 흘리며 싸우고있는가를 깨달았다. 상학종소리 울리는 해빛 밝은 창가에서 마음껏 노래부르던 아이, 오직 행복하고 너그러운 그 시절이 생리로 된 소년에게 고향산천을 더럽히는 원썩들이 어찌 송충이때로 보이지 않겠는가.

나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친다. 금지와 자부심이 솟구친다. 결코 원썩들에게 《산림자원도》를 내놓을수 없다. 내가 굴복하면 조국땅 한부분을 잃어버릴것이다. 나는 죽음을 각오한다. 정든 모든것을 위해 바쳐진 생은 언제나 빛나는 법이다. 나는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애야, 명심해라. 범골 바위벼랑밑에…》

나는 소년에게 우리의 기쁨이 있고, 피가 스민 《산림자원도》를 서슴없이 말했다. 가슴이 후련하다.

감방문이 찌그덕 열린다. 시꺼먼 총구가 문안에 나타나며 나를 불려낸다.

나는 감방문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소년은 허리를 쭉 펴고 서있었다. 키가 더 커진듯싶었다. 한 산림의 보호자인 나는 거창한 조국의 보호자로 성장한 소년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대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잔혹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을 거목을 본다. 나는 소년의 신비스런 모습에서 **김일성**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조국의 거창한 모습을 새로운 힘으로 느낀다. 나는 행복하다.

《찌뻐-찌, 찌뻐-찌》

박새는 여전히 새벽을 부르고있다.

## 벼꽃이 피는 밤 외1편

홍현양

유아등불 별처럼 하나 둘 돋는 밤

달빛아래 하얀 머리수건

내 눈시울 더웁힌다

등불을 지켜가는 농장어머니의 모습

그 마음 벌에 스며 향기는 넘친다

어머니의 마음, 내 마음

어찌면 벌에서 다시 만나는가

혁명의 전위로 사는 이 길에서

가는곳마다 함께 서있는 미더운 모습들

그 마음을 알아서 벼꽃은 피는가

잠들수 없는 이 밤에

들길을 걸으며

어머니의 마음을 땅의 훈향으로 받아안으며

불처럼 솟구치는 이 마음

들이여

들이여

포기포기 김을 매고 비료를 준

어머니의 일손씨를 벼꽃으로 피워서

불같은 말의 진정을

속삭여주는 들이여

나의 손목을 꼭 붙잡고

아버이수령님 풍년들에 다시한번 모시자고

들에 살며 말하던 어머니의 그 진정

꽃으로 향기로 벌에 넘치여

이 밤에 벼꽃이 피는 소리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솟구친것이 아닌가

씨를 묻고 난알을 가꿔가는 하루하루

벼꽃이 피는 철은 가을이 오는 좋은 시절

수령님 꽃시절에 모시고싶은 소원

하늘의 별빛으로 이 밤에 내린다

아, 아버지수령님

두렁길을 걸으시던 그날처럼

벼이삭을 뽑아드시고

농민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던

그날처럼

들길을 밟아보는 내 마음

목이 메여 말할수 없다

그날에 땅이 오곡이

위대한 수령님께 아뢰이던 천만마디 말을

나는 이 밤에

어머니의 저 모습에서 다 안을수 있구나

혁명의 전위로 사는 이 길에서

수없이 만나고 헤어지는 농민들의 그 소원

이 밤 어머니의 저 일손처럼 벌에 스며있어

이 땅에 흘러가는 소조원의 하루하루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 영원한 해와 달

아, 들길을 걸으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이 밤에 생각한다  
 혁명의 전위로 사는 내 삶은  
 등불을 지켜가는 어머니의 저 마음처럼  
 사람도 산천도  
 주체의 한빛으로 가꿔가는 삶이 아닌가

잠이 그리우라  
 깊어가는 이 밤에  
 위대한 수령님 모실 그날을 기다려  
 풍년벌 사람들의 심장이 불타는 소리  
 아, 벼꽃이 다투어 피어나누나  
 벼꽃이 달빛아래 피어나누나

## 땀흘린 권리로 이 모든것 바라볼 때

흐르는 땀을 씻으며  
 흙무지우에 삽을 박고 하늘을 본다  
 날아드는 기러기무리  
 물결우에 부서지는 저녁노을은 곱다

백양나무아지우에 불빛이 번들거리고  
 쌓아온 백리 긴 제방우에  
 싱그러운 바람이 어리광친다  
 건설자들의 어깨우에 난알향기를 실어주며  
 땅에 대한 살뜰한 정을 익혀주며

물결을 차며 날아오르다  
 맴돌며 땅우에 다시 내려앉는다  
 나래퍼고 울어에는 기러기무리  
 땅이 좋아 물이 좋아  
 끝없이 찾아드는 소리

기쁨은 이런 순간을 위해 있었던가  
 배고동소리 향토의 정서를 불러주며  
 울려가는 저 하늘가에 저 물결우에  
 기쁨처럼 희망처럼 퍼져가는 웃음소리  
 남의 팔이 어깨에 얹히는것도 잊고선 행복감이여

아, 첫 삽을 박으며 저 산기슭에서 바라보던

물새의 무리, 해빛에 번뜩이는 그 나래를  
 이처럼 가까이에서 쳐다보는 기쁨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바쳐가며  
 흘린 땀, 짙어가는 개척자의 발걸음만이  
 생활의 먼곳도 이처럼 가까이 났을수 있구나

짧은 휴식의 한때여  
 푸릿한 담배연기를 한껏 들이키며  
 생각한다, 이 좋은날 이 좋은 순간에  
 허리치는 감탕속은 어떻게 헤쳐으며  
 밀려드는 강물은 무엇으로 막았던가

기러기떼에 불같은 눈길들이 합쳐졌으니  
 충성의 땀을 바친 사람들의 마음속  
 기쁨과 환희, 하고싶은 간절한 말을  
 그대로 아름다운 풍치로 그려놓았구나  
 부르며 찾으며 날아도는 기러기떼!

아, 물보라를 일으키며  
 내려앉는 새무리, 반짝이는 해빛이여  
 이 모든것 땀흘린 권리로 바라볼 때  
 조국은 아름다움, 피를 뚫여주는 사랑!  
 이 아름다움 이 사랑을 위해  
 건설자들은 새 땅에 발자국을 찍는구나

## 행복

박효준

## 1

혁진은 기차가 다음역에 가서야 겨우 객실안에 까지 비집고들어갔다. 좌석은 말할것 없고 통로에도 콩나물시루처럼 사람들이 박혔다. 악취가 코를 찔러 숨을 쉴수가 없었다. 퍼런 미국제가빠 천과 얼룩이 진 일본산 냄마들로 찢은 보통이와 짐짝들이 사처에 널려있다. 남은 공간을 뽀얀 먼지와 담배연기가 자욱하니 채우고있는데 기승스레 보채는 어린애의 울음소리로 하여 차간은 더욱 비좁고 답답해보였다.

혁진은 상을 찡그리며 한숨을 후- 내쉬었다. 언제면 이놈의 차간이 웃음으로 밝아보이는지... 그는 금시에 피로를 느끼며 좌석의 등받이를 짚고 선채 눈을 감아버렸다. 기차는 여전히 굼뜨게 달려간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니, 차간은 또 왜 이리 봄빈대여-어?》

차가 몇자 어미가 늘어진 충청도사투리가 오르기 시작한다. 혁진은 맥없이 눈을 뜨고 밖을 내다보았다. 열차가 추풍령을 넘어서고있었다.

문득 개울 건너 비탈밭에서 발걸이를 하는것이 눈에 띄었다. 조그마한 아이가 코투레를 잡고 이끈다. 그런데도 까만 암소는 좁체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 아래 최폭길로 두엄을 진 사람이 올라가는데 바람만 불어쳐도 엎어질듯 기맥이 없다.

(북에서는 오래전에 농촌에서도 기계를 쓴다는 데-)

불쑥 누구한테선가 들은 말이 생각나며 당국자들에게 대한 불만이 가슴을 채웠다. 듣고 보는 모든것이 인생에 대한 모독같기만 하여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귀도 막아버렸으면 싶었다.

그러나 인생이란 발사된 총알과도 같았다. 한번 태어난 이상에는 좋건 싫건 살만치는 살아야 끝장이 나지 마음대로는 죽게도 되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가능한껏 랑심에 큰 상처나 안주고 살아보기 위해 애를 쓰는데

그마저도 마음대로 안되였다. 도대체 씨앗을 묻을만한 땅때기도 얼마 안되는데 가을이면 다 빼앗기고 손털고 나았기가 일쑤이다. 요즘은 계딱지같은 집마저 헐라고 야단질이다. 군수공장을 그 아근에 세운다는것이다. 무슨놈의 세상이 이리도 험악한가? 기가 찰노릇이다.

지금 서울로 가는 일만 해도 그렇다.

서울에는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아가는 형수가 있다. 형수가 혼자손에 딸아이 공부까지 시키자니 그 교생이 오죽했으랴. 혁진은 단 한푼이라도

그들을 도와주자는 생각을 한시도 버릴수 없었다. 하지만 제 입에 풀칠이 바쁘고보니 이렇다는 말한마디 해본적이 없었다.

(내가 이게 무슨 사람이란말인가?)

자책으로 하여 늘 마음이 괴로왔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퍼일 날이 없었다. 생각던 끝에 그는 그런대로나마 형수네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같이 살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러면 비록 죽으로 끼니를 에울망정 육신은 편안히 해줄수도 있지 않을까? 집이 걱정이지는 하나 아무려면 한데서 나기야 할텐가? 그래서 그는 단호한 결심을 하고 떠난것이다.

생각하면 가공한 형수였다. 그의 눈앞에는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1949년도 초봄.

난생처음 서울에 올라온 혁진은 형 육진이와 함께 어떤 골목길을 걸어가고있었다. 래왕이 별로 없는 호젓한곳이었다. 마주오던 한 처녀가 형을 보고 반색을 했다. 혁진은 형을 흘끔 쳐다보았다. 형의 눈에도 반가움이 어리였다. 혁진은 혼자 얼마간 더 가다가 형을 기다렸다. 형은 처녀와 몇마디 이야기를 하더니 그를 도로 불렀다.

《인사를 하고 지내라. 혹시 필요한 때도 있을지 모르니까...》

형이 하는 소개말이다. 혁진은 그제야 형의 애인인 림순정을 친근하게 살펴보았다. 치마저고리에 가는 흙스뺨 춘추외투를 날씬하게 입고있었다. 머리는 파마를 하였다가 다시 잘록하게 묶었는데 첫눈에도 직업녀성임을 느끼게 했다. 이마가 넓고 눈이 그윽하여 인상이 펍 좋았다.

형이 가정교사로 있을 때부터 안 처녀인데 부모들이 그들의 결합을 반대하였다. 육진이네가 의지가없는 가난뱅이이기때문이었다. 순정은 부모들의 뜻을 어기고 집을 뛰쳐나왔다.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교원으로 들어간 그는 학부형네방 한간을 얻어 자취생활을 하고있었다.

혁진은 그 뒤로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가을이 짙어서였다. 오랜만에 형수한테서 기별이 왔다. 형수는 그에게 이야기하였다.

형은 그동안 적들의 헌병대에 갇혀있다가 동지들의 도움으로 탈주해나오기는 했으나 놈들의 횡탄을 두군데나 맞았다고 하였다. 육진은 건강이 회복되어 대오로 돌아가면서 순정에게 들렸는데 그 뒤에 다시 체포되어 학살되였다. 육진의 죽음은 순정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순정은 교편을 놓고 혁진이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 근근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시골로

내려갔다. 그가 딸 향숙이를 낳은것은 이듬해 봄이었다.

모진 세월 흘러 향숙이는 벌써 여섯살에 잡혔고 순정은 볼썽없는 농사꾼이 되었다. 넓고 희던 얼굴이 까맣게 그을려 조그마해졌다. 너털이 난 고무신쪽에 찢찢한 벼옷차림이 보는 사람을 딱하게 했다. 굵던 손이 터지고 마디까지 쪼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혁진은 가슴이 터지는것 같았다. 원쑤들에 대안 분노와 함께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의무감이 불같이 치밀군했다.

그러던 어느날 혁진은 순정과 조용히 마주앉았다.

《아지매요, 내가 이런다고 섭섭히 여기지는 마소. 아지매가 형님을 생각하고 향숙이를 생각하고 우리 집을 생각하는것은 고맙습니다.》

혁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여기까지 말했다. 그러나 다음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와의 정의를 끊는다는 생각을 하니 쓸쓸함을 금할수가 없었다. 더구나 비단결과 같은 순정의 마음씨가 가슴속에 더욱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순정의 청춘을 위해 모진 말을 해야 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아지매를 위해 이런 말을 합니다. 통분한 일이지만 죽은 사람이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향숙이는 내가 말하 키울테니 아지매는 이제라도 생각을 달리...》

혁진은 말을 맺지 못했다. 순정이라도 눈물을 머금었다. 그윽하고 이그러질줄을 모르던 그 얼굴에 슬픔이 자오룩이 실렸다. 그러나 순정은 인차 눈물을 거두면서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위해주는 도련님의 심정은 고마워요. 나를 아껴주는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어머니님랑 도련님과 같이 무던한분들의 사랑속에서 향숙이를 키울 결심입니다. 나는 우리 모녀때문에 고생하는 도련님을 대하기가 도리어 미안해요. 도련님이 형님을 대신하여 부모를 섬기느라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독학으로라도 공부를 하세요.》

말마디에 힘을 주어가면서 다정하게 일러주는 순정은 가벼운 웃음까지 짓고있었다. 혁진이라도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해 가을에 순정은 불현듯 서울로 올라갔다. 향숙이 공부를 시키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교편을 잡았으나 오래 가지 못했다. 그 마음은 제약공장 노동자에 편직공장, 제사공장을 거쳐 나중에는 세탁소 세탁부로서 고된 일을 해가면서도 끝내 향숙이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게 했다.

그런 형수는 지금도 역시 일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 나이 50고개에 올라섰으니 집에 앉아있어도 힘이 들겠는데 막일까지 하자면 얼마나 고될것인가? 그래서 혁진은 가난한데로나마 형수를 데려다가 육신이나 편하게 해주자고 가는길이었

었다.

혁진이 몰라보게 늙었을 형수를 눈앞에 그리고 있는데 기관차가 《부-ㅇ》하고 기적소리를 낸다.

또 어느 정거장엔가에 멎을양이다. 짐보따리를 이고 진 사람들이 부산스레 차문쪽으로 나간다. 그들도 역시 일자리를 찾아, 아니면 자기와 비슷한 그 무슨 연고를 속에 품고 고행의 길을 걷고 있으리라 생각하니 점점 험악해만지는 최악의 인생고를 개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해가 가고 세월이 흘러 세상은 문명해진다건만 우리 생활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쪼들기만 하는지? 그 화근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기로서도 처음일듯 이런 생각을 하고보니 절로 놀랍고 기가 막혀 한숨만 새어나왔다.

## 2

서울역 개찰구는 립추의 여지조차 없었다. 차간에는 서글픈 모습의 시골사람들이 태반인것 같았었는데 개찰구에 물려선것은 거의 모두 미끈한 양복쟁이들이다. 1, 2등과 침대차를 타고 온 신사들이 먼저 나온 모양이었다.

제일 눈에 띄우는게 키가 꺾둑하게 큰 양교배기들인데 노랑머리를 덜미까지 길러내린 놈들이 많고 베테모를 쓰기도 했다. 너편네들은 형형색색의 모자를 썼다. 그런 인간들이 사향내와 노린내를 풍기면서 돌아친다. 《하오리》에 《기모노》를 두른것들도 많다. 귀에 선 일본말이 게다썩소리와 함께 비위를 거슬린다.

혁진은 퍼그나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개찰구를 빠져나왔다. 지계군과 구두담기아이들, 여러가지 물건 파는 소년들이 소매에 매달린다. 그들을 떼어놓고 광장까지 나온 혁진은 곧바로 서대문을 향해 걸었다.

오랜만에 보는 서울은 아주 눈에 설었다.

《닛상지점》(일본산자동차회사지점)이니 《기무라도끼이》(시계점이름)니 하고 일본말로 써붙인 간판들이 드문하게 눈에 띄운다. 한 건물앞에 이르자 간드러진 일본노래소리가 고막을 아프게 자극한다. 혁진은 머리우를 쳐다보았다.

《빠-요꼬하마》라는 영문자의 네온간판이 필기체로 비스듬히 갈겨써붙여졌고 그 옆에 《요꼬하마》라는 일본글도 걸렸다. 2층에서 왁자하니 떠드는것도 허썩부라진 일본말이다. 혁진은 그 어느 이국에 온것 같기도 하고 해방전이 련상되기도 했다.

《허 이거, 이놈의 세상이 원.》

혁진은 나직이 개탄했다.

서글픈 심정으로 걸어가던 혁진은 저도 몰래 얼핏 뒤를 돌아보았다. 방금 그의 옆을 지나쳐간 녀인이 어딘가 낯익어보였기때문이다. 그는 저만치 걸어가는 녀인의 뒤편모습을 그냥 지켜보았다. 흰철하게 키가 큰데 걸음걸이도 펴 낮익었다.

(저게 혹시 형수 아닌가?...그렇다면?)

혁진은 고개를 기웃거리면서도 천천히 그의 뒤

를 따르기 시작했다. 끼끗하게 차려입은 연한 회색 세루치마저고리가 아주 잘 어울리는게 인품이 있어보인다.

나이는 50전후라 할가? 하고보면 자세도 좀 굽을사한것만 같다. 무엇인가 흰 종이로 쓴 물건을 안고간다. 배개통만이나 할가? 그런데도 가볍게 안고가는걸 보면 아이들 경대같은것을 사가지고 가는지도 모른다.

값진 옷차림과 상냥하고 의젓한 기상으로로는 도저히 형수라고 믿을수 없다. 생활에 쪼들리고있을 형수로서야 어떻게 것처럼 의젓할수 있는가? 형수는 도저히 그런 값진 옷을 해입을수 없을것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비슷한 나이에다 머리를 쪽진것이라든지 자세와 걸음걸이며 몸전체에서 느껴지는 인상은 어쩌면 그렇게도 형수와 비슷한가.

결년도 팔지 않는 녀인은 점점 더 멀어져서 저만치 사람들속으로 사라져가고있다.

(거 참, 따라가서 알아보면 될 일을 어쩌서 꾸물대고있단말인가?)

주적주적하던 혁진은 갑자기 걸음을 재촉했다.

거리가 가까와졌다. 그런데 혼연하니 걸어가던 녀인은 문득 길에서 옆으로 나서더니 그옆에 몇어있는 자동차옆으로 갔다. 그리고는 운전수와 몇마디 건넌더니 승용차안으로 들어가는것이였다. 자동차는 인차 미끄러져달리였다.

(허 참, 내 눈이...)

자동차의 뒤모습을 바라보던 혁진은 고쳐생각하며 쓴웃음을 짓고말았다. 생활에 시달리고있을 그의 형수는 절대로 승용차를 탈만한 팔자가 아니라는것을 확신한때문이다. 하고보면 세상에는 모색이 비슷한 사람들도 많다 싶었다.

되돌아선 혁진은 걸음을 재우쳤다.

서대문 가까이에까지 이른 때였다. 십자로앞에 이른 혁진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안전신호가 켜지기를 기다리였다. 그의 눈은 바른편 차도쪽을 살피기에 바빴다.

그 순간이다. 갑자기 《끼-익!》 하고 쇠붙이를 물어뜯는듯한 다급한 금속성이 울리는것과 함께 《아마나! 저걸, 저 일을 어떡하나?!》하는 여러 녀인들의 비명이 울리였다. 혁진은 깜짝 놀라면서 주위를 분주히 살피였다. 포장한 왼편쪽 횡단로우로 많은 사람들이 황황히 뛰어가는데 그앞에 흰옷 입은 사람 하나가 던져진 보리자루처럼 나뒹굴었다. 혁진이라도 급히 그리로 달려갔다. 자동차에 치운게 분명한데 사람들이 겹겹으로 둘러서 있어 안을 들여다볼수가 없다.

사람들은 다친 사람을 보기 위해 저마다 안으로만 파고들어가지고 한다. 누구나가 생명을 걱정하고 사고를 낸 운전수에게 증오와 저주를 퍼붓는다. 잠시후였다.

《어떻대요? 심하게 다치진 않았어요?》

《생명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번죽에서 에돌던 녀인들이 안에서 나오는 청년에게 묻는 말이다.

《모르지요. 병원에 가봐야 알기는 하겠지만 적재함으로 들이쳐와서 골이 깨진것 같답니다. 이마가 많이 터졌는데 코와 입으로도 피가 흐르는군요...》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은 끔찍한 모양으로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다.

《아니 이렇게 떠들기만 하면 어쩐대?》

《그럼 병원으로 빨리 실어가야지.》

모두 걱정들을 하는데 모여선 사람들이 물러나자 누군가가 다친 사람을 업고 나온다. 두 청년이 좌우에서 거들고 간다. 그 뒤로 또 가방이며 보따리를 든 사람들이 따른다.

《오라질놈같으니 눈깔은 두었다가 무엇하자고 신호등도 보지 않고 차를 몰겠나?》

《자식들이 우리 조선사람쫘 사람으로 보거나 하जे?》

《글쎄말이지. 그러기에 사람을 받아놓고도 그냥 내빼지 않소?》

흘어지는 사람들이 다시금 저주를 퍼붓는다.

똑똑히 본 사람이 사고의 전말을 이야기했다. 기다리던 사람들은 안전신호를 보고 급히 횡단로를 건넜다. 그런데 멀리서 달려오던 미제침략군 화물차가 신호에는 아랑곳도 안하고 같은 속력으로 사람들을 헤치고 달려갔다. 그러면서 지나가던 사람을 받아넌겼다.

《사고다!》

《사람 깔렸다!!》

사람들은 고래고래 소리치며 자동차를 서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침략군놈은 본척도 하지 않고 그냥 내빼가고말았다는것이다.

《죽일놈들같으니라구!》 모두들 한마디씩 저주를 퍼붓는다.

혁진은 가슴이 무겁기만 하였다. 남의 일과 같이 않았다. 함부로 모욕을 당한것만 같기도 하고 까닭없이 불따귀를 한대 맞은것도 같았다.

제 나라 제땅에서 왜 이리도 구박을 받아야만 한단말인가? 자기 고향에서는 군수공장을 짓는다고 집을 허물라더니 여기서는 백주에 사람들을 마구 깔아몽겐다.

우리는, 우리 조선사람은 그래도 하소조차 해볼데가 없단말인가!

그는 허위허위 걸음을 옮기였다. 왜 그런지 제 걸음같지 않았다.

### 3

전에 왔을 때보다 산중턱으로 더 올라간데 집이 있었다. 주소부터가 산2동이다. 께짜같은 판자집인데 문바깥이 바로 행길이였다.

《향숙아, 향숙이 있니?》

이름을 부르면서 기척을 하자 형수가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아지매요!》

《아니 이거 아주버님이!》

두사람은 불러놓고 서로 우두머니 바라보기만 했다. 반가움과 슬픔이 너무하여 다른 말이 나가지지 않았다. 혁진은 흐려지는 눈을 슬쩍거리면서도 형수를 놓칠세라 찬찬히 지키었다.

순정의 눈귀에도 이슬같이 맑은것이 맺혔다. 머리는 쪽졌는데 검은 오리는 헤일만큼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넓고 시원하던 이마에도 굵은 주름이 내천자로 깊이 패웠고 눈확이 움푹하니 꺼졌다. 다만 동자속에 남아있는 날카로운 빛만이 지난날의 흔적을 잊지 않게 하였다.

《경숙이는 잘 있겠지요? 새댁의 병은 요새 어떤지?》

이윽하여 순정이가 먼저 물었다. 경숙은 혁진의 딸이었고 새댁이란 그의 처였다.

《우리는 늘 그저 그만합니다.》

《집에 우환이 없어야 하겠는데 걱정이구만... 자어서 들어갑시다.》

순정은 혼연한 기색으로 바뀌면서 방으로 들어간다. 혁진도 그의 뒤를 따랐다. 천장이 지내 낮아 기다실이 하였다. 키 큰 사람은 발도 못치고 누울만큼 좁기도 했다. 순정은 서둘러 아래목에 깔린 담요를 겹다.

《편찮은걸 일어나잖습니까?》

《아닙니다. 잠이 좀 모자라서 누웠댔어요.》

미안쩍어하는 혁진의 말에 순정은 가볍게 대꾸한다. 하고보면 그의 눈에는 피로가 실려있다. 혁진은 안된 생각이 드는대로 방안을 휘- 돌아보았다. 걸은 판자집인데도 도배와 장판을 깨끗하게 하여 밝고 아담하였다. 문앞에는 대패질만 한 자그마한 책상이 놓였는데 그우의 책꽂이에 몇권의 책이 관형별로 규모있게 꽂혔고 그옆에는 장난감과 같은 조그만 경대까지 놓였다.

혁진에게는 피땀 상기되는것이 있었다. 거리에서 만났던 그 녀인이 안고가던 물건이었다. 그 녀인도 아마 어린 딸이 있어 저런 정도의 조그만 경대를 사가지고 갔으리라 짐작되었다. 하고보면 한창 피어나는 처녀로서의 향숙이가 눈앞에 그려지기도 했다. 생활이야 더할나위없이 구차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꽃같이 피어난 처녀인데 왜 저런것을 갖고싶지 않으랴!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향숙에게 줄 분 한팩도 들고 오지 못만 자신이 뉘우쳐했다.

이번 일이 안해와 합의된것은 어제 저녁이었다.

《제 입에 풀칠도 바쁜 주제에 늙은이를 모셔다가 무슨 고생을 시키작고...》

안해는 이러면서 내내 반대하였었는데 이번에는 어찌된노릇인지 선선히 찬성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떠나려 하자

《이제는 모셔오겠으니 닥할것은 없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찾아가면서 빈손으로야 무슨 낮으로

가요.》 하면서 쌀도 두어되박 싸주고 생선 서너마리 싸서 주었다. 아침 일찌기 장마당에 다녀왔거나 이웃에서 꾸어왔을것이였었다.

혁진에게는 안해의 그 심정이 고맙게 안겨왔다. 늘 제것만 제것이라고 움켜쥐는 벽창흔줄 알았는데 인정이 전혀 없는것도 아니구나싶었다. 그래서 혁진은 안해를 대견하게 여기면서 그냥 나와 차를 타고말았다.

이제 그 아이를 만나면 이 못난 사람을 그래도 삼촌이라고 손을 잡고 짱충짱충 뿔지 모르는데 그런 애를 어떻게 빈손으로 만난다는말인가? 로자가 바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점심만 한두끼 번저도 되겠는데 생각을 못한것이 잘못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용렬한건 안해보다 자신이 더한것만 같기도 했다.

혁진은 쓴웃음을 지으면서 다른쪽 구석으로 눈을 주었다.

거기에도 대패질만 한 조그만 책장이 놓였는데 그우에 트렁크며 고리짝과 이불 등이 두부와와 같이 가끈하게 얹혀있어 쓰고 사는 사람들의 절제있는 성품을 엿보이게 하였다.

그처럼 보고싶고 하고싶은 말도 많던 혁진이었다. 한데 정작 만나고보니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해알지 반가움과 정다움만 앞섰다.

《향숙이는 아직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몰라보게 늙은 형수를 바로 볼수가 없어 향숙이 이야기를 꺼냈다.

《네, 그 애는 아직...》

순정은 가볍게 대답하면서 한쪽 벽을 쳐다보았다. 벽시계의 분침이 여섯시를 향해 올라가고있었다. 형수는 무엇인가를 잠간 생각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배개를 내려주며 말했다.

《고단하겠는데 좀 누워 쉬시오. 내 좀 나갔다가 오겠으니까...》

저녁장거리라도 보러 나갈 눈치다.

《참 여기 집에사람이 무얼 넣어주나봅디다.》

혁진은 비로소 너털이 난 제 가방을 가져다가 안해가 싸준것을 꺼냈다.

《아니 원, 이런거야 집에서 아주버님의 상에나 놓을게지...》

형수는 찢것을 펼쳐들고 혼자말로 중얼거린다. 그러더니 그것을 무릎앞에 내려놓고 고개를 쳐들면서 생각에 잠겨든다. 어느 하루도 끼니걱정을 놓지 못할 동서네일것이였었다. 그런데도 자기를 생각해서 바른것을 보냈으리라는 생각으로 동서를 생각하고있으리라 하는것이 짐작되었다.

형수는 인차 그것들을 치우더니 고리짝을 내려놓고 그속에서 수수한 나들이옷을 꺼내들고 부엌으로 간다. 역시 저자에 다녀올 모양이다. 짐작을 한 혁진은 그도 같이 가자고 했다. 그러나 순정은 탄일이 있노라며 그를 만류했다. 저자바구니를 든 순정은 총총히 비탈길을 내려간다. 혁진



은 멀리 사라져가는 형수의 뒤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고있었다.

불현듯 그전에 왔던 일이 상기되었다. 추운 겨울이었다. 순정은 그때도 세탁소에 다녔었는데 종일 나가 일하고도 집에까지 일감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밤도와 빨래를 했다. 혁진은 그가 얼마나 고되겠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었다. 늘 빨래만 하다나니 손이 붙어나다못하여 통통 붓고 헤어진데다 손등은 얼어터져 차마 볼수 없었다.

《좀 험한 일자리를 구해야지 내내 그렇게야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괜찮아요. 이런 일도 얻어하기가 어렵답니다.》

보기가 딱해서 하는 말에 순정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윽하여 돌아선 혁진은 부엌문을 열고 안을 기웃하였다. 저편 구석에 커다란 양철대야가 놓였는데 지금도 빨래감이 담겼다. 그걸 보면 형수는 지금도 그 고역을 하고있는것이 분명하였다.

(이제부터야 어떻게든 편안하게 해주어야 할게 아닌가?)

형수는 한시간이나 실히 지나서야 돌아왔다.

혁진은 반갑게 그를 맞았다.

《향숙이가 왜 이리 늦어집니까? 일이 몹시 바쁜가?》

《늦어지고는 해요. 늘 작은아버지이야기를 하했는데...》

형수는 목침같이 네모지게 쓴것을 방안에 들여놓으면서 말한다. 처녀시절에 보던 그런 은근하고 다정한 미소가 어려있다.

그는 옷을 갈아입더니 부지런히 저녁준비를 한다. 혁진은 허물어진 벽체와 추녀끝의 널판지도 고쳐주었다.

두사람은 오랜만에 한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나물국과 된장찌개에 그가 가지고 온 생선토막밖에 없었으나 혁진은 더없이 만족했다. 이제부터는 내내 이처럼 한데 모여살리라는 생각을 하니 그의 기쁨은 한결 더했다.

《아지매요. 정말이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혁진은 비로소 얼굴이 환해져서 이렇게 말머리를 꺼냈다. 이제껏 지고있던 빚을 벗는다고 생각하니 자연 마음에 여유가 생기였다.

《원, 동기간에 그런 말은 왜 해요. 넘려말고 어서 많이 들어요.》

그의 속을 알 까닭이 없는 순정은 전과 같이 찬을 권한다.

《아닙니다. 정말이지 나는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았어요. 향숙이한테도, 아지매한테도... 근본은 이놈의 세상탓이지만 나도 생각을 잘못된게 있지요. 내 형편이 조금이라도 편이거든 아지매를 모셔가자고 하였으니 그게 억년간들 뵈덕이 있습니까?...》

심중에 품고있던 고백이었다. 순정도 무엇인가 느낀것이 있는듯 진지하게 듣는다. 혁진은 계속했다.

《나도 이제는 세상을 알았습니다. 인젠 생활이 더 편이기를 바랄것이 아니라 형편되는데로 살아가야지요. 그래서 집에사람과도 의논했는데 이제는 짐을 싸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삽시다. 향숙이도 언제까지나 붙잡고만 있을수는 없잖습니까? 그걸 키우노라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보고싶을 때면 언제든지 볼수 있도록 가까운데 출가를 시킵시다... 그리고 아지매는 집이나 보아주면 죽이나마 밥술이야 놓겠습니까? 이제는 년세도 늙았는데...》

심정을 털어놓고나니 속이 후련하였다. 그런데 순정은 무엇인가 무거운 생각에 잠겨든다. 혁진은 이상했다. 지금까지 그는 할 도리를 못했고 이제부터라고 신통한 수가 있어 같이 모여살자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같이 살아보자던것은 량쪽이 다 바라마지않던 일이 아닌가? 그런만큼 형수도 그의 말을 무등 기뻐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의 태도는 의외에도 담담하고 천연스러우니 어떻게 된 일인가?

지난날에 대한 노여움이 있어서인가? 앞으로의 생활이 미타해서인가? 하기는 전부터도 자기 감정을 경솔하게 내비치지 않는 형수였었다. 언제나 행동에 앞서 생각부터 하는 그이기는 하였다. 하지만 그런데도 혁진에게는 그 태도가 의아쩍고 섭섭하게 여겨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이윽토록 상념에 잠겨있던 순정은 생각난듯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여덟시가 방금 지났다. 순정은 불현듯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내 급히 좀 다녀올데가 있는데 한참 기다려주시지요. 이야기는 잦다와서 합시다.》

혁진은 불만이 있었지만 별수 없었다. 순정은 혼연히 일어나더니 책보를 펼쳐놓고 벽시계를 벗겨서 쏘다.

《그건 왜 고치자구요?》

《웬걸요. 좀 그럴 일이 있다우.》

순정은 의미있게 웃어보이기만 하였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나가더니 이번에도 옷을 바꿔입고 들어오는데 그를 쳐다보던 혁진은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연한 회색 세루치마저고리를 늘씬하게 차려입은 형수는 어찌면 아까 거리에서 만났던 그 녀인과 그리도 비슷한가?

《아-니 아지매요, 아까 정거장앞쪽으로 간적이 없어요?》

《정거장앞쪽이에요? 그리로도 더러 가지요.》

의아쩍어하는 혁진에게 순정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리고 시계를 틀더니만 급히 나간다. 혁진도 따라나가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았다. 웃은 말할것 없다. 걸음걸이와 시계를 안은 그 자세까지 틀림없는 아까의 그 녀인이다.

혁진에게는 모든것이 수수께끼 같았다. 시계가

낫기는 했다. 그러나 못쓰게는 되지 않은듯한데 고치지도 않는다면 어쩌서 싸가지고 가는가? 빌려다 쓰던것을 돌려주러 가는가? 하다면 그렇다면은 이야기는 왜 안하는가?

모를 일은 그뿐만이 아니다. 집꼴이랑 먹고 사는 형편은 그전이나 조금도 다름없이 구차하기만 한데 저런 값나가는 옷가지는 어디서 생겼으며 승용차까지 타고다닌다는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혁진은 전혀 종잡을수가 없어 한참동안이나 멍청히 서있기만 하였다.

#### 4

순정은 열시가 지나서야 돌아왔다. 궁금한 마음으로 누워있던 혁진은 기척소리를 듣고 몸을 벌떡 일으키었다.

《모처럼 오셨는데 기다리게 해서 안됐습니다. 적적했지요?》

순정은 웃으면서도 진정 미안해했다. 그의 너그러운 얼굴을 보자 혁진이라도 속이 쑥 내려갔다.

《내 돌아오던길에 향숙이한테도 들렸었는데 작은아버지가 오셨다니까 무척 반가와합디다. 정말 어쩔줄을 모르더군요.》

순정은 비로소 향숙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들은 시계를 도로 벽에 가져다 건다. 시간은 짐작으로 맞춰놓은듯한데 다시 제각제각 잘 간다.

《아니 그 애는 그럼 아직 돌아오지 못해요?》

향숙이 이야기가 나와서 물었다. 형수는 인차 대답을 하지 않고 목도리를 벗어 건 다음 그의 앞으로 마주 와 앉으면서 손을 썩썩 비빈다. 무던히 바빠 돌아온 모양 숨이 약간 차했다. 그런데도 그는 조금도 힘들어하는 기색이 아닐뿐아니라 얼굴이 아주 밝고 기분이 좋다. 혁진은 급한 마음으로 대답을 기다렸다.

《그 애는 일이 몹시 바쁘답니다. 수태 안타까와하면서 이걸 주더군.》

형수는 이러면서 품속을 뒤지더니 조그맣게 접은 종이쪽지와 담배 한갑을 꺼내주었다.

《자, 그저 주인이 몹시 딱딱한가보구만.》

향숙이가 방직공장에 다니는걸 알고있는 혁진은 서운함을 느끼면서 쪽지를 펼치었다.

《작은아버지!

모처럼 오셨는데 가서 뵈옵지 못하는 향숙이를 리해해주세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경숙이도 잘 있고 작은어머니도 병세가 그만하다니 다행이야요. 작은아버지가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가 하는것은 우리도 잘 압니다. 저도 어머니도 아마 작은아버지의 그 은정을 절대로 잊지 않을거야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서울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 사정을 여기에 다 쓸수는 없어요. 그 이야기는 어머니한테서 직접 들어주세요. 그러면 작은 아버지도 꼭 저희들과 같이 가난속에서도 행복을 찾을거야요.

시간이 없어 길게 못 씁니다. 작은어머니랑 경

숙이가 보고싶어요. 저와 어머니는 우리가 한데 모여 행복하게 살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날은 오래잖아 올것입니다.

작은아버지!

우리 걱정일랑 조금도 마세요. 그리고 모처럼 오셨는데 며칠 쉬어가세요.

작은아버지가 무척 사랑하시는 조카 향숙이 씬.》

바쁘것이 사실인 모양 좀 흘려썼었다. 그런데도 글줄이 번듯하고 남자필적같이 굵직굵직한 글씨가 아주 의젓하였다. 혁진은 몇해전에 보았던 그의 모색을 상기하였다. 글씨도 형을 닮아 희여 멀쑥하게 생긴 제 모색과 같아싶었다.

향숙은 이름까지 쓴 다음 그 아래다

《작은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담배를 한갑 보냈니다. 저를 만난걸로 아시고 피워주세요.》라고 덧붙였었다.

《하 참, 그게 나이는 들었어도 아직 아이처럼 구는군.》

혁진은 담배갑을 가져다가 보며 허거픈듯 웃었다. 미쁜 생각이 들면서 한결 더 보고싶기도 했다.

《무슨 일을 하기에 그렇게도 바쁘답니까?》

혁진은 아무래도 아수하여 그 까닭을 물었다.

《조금만 기다려요. 내 잠깐 나가보구요.》

순정은 동의를 구하면서 바깥으로 나간다. 부엌문 여닫기는 소리가 나더니만 다시 조용해졌다. 혁진은 또 어디로 가려는가싶어 귀를 기울이었다. 순정은 밖에서 그냥 서성거리더니만 인차 되들어왔다. 그리고는 습관처럼 시계를 쳐다보았다. 열한시를 지난지가 오래다.

《궁금했겠는데 이제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순정은 웃는 얼굴로 허두를 땀다. 그리고는 조용조용 이어나갔다.

《향숙이 편지에는 무어라고 썼는지 모르겠습디다만 우리 모녀는 작은아버지의 그 심정을 아주 고맙게 여깁니다. 구차한 살림에 새댁은 앓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었는데 우리 생각까지 하자니 아주버님의 속이 오죽하였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나도 향숙이도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데 그런 때면 작은아버지네를 생각합니다.

가까이 가있으면 의지가 될것 같아서지요...》

순정은 마치 회고담이라도 하듯 담담히 말하면서 혁진을 쳐다보고 웃는다. 혁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녀의 이런 심정을 알아줄 사람은 작은 아버지뿐일거웁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같이 모여 살자고 하니 무어라고 해알지 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던 형수는 문득 눈길을 떨구면서 더 말을 잊지 못한다. 어조며 얼굴표정에 진정이 느껴졌다.

《남남끼리처럼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혁진은 저으기 먼구하여 나무라듯하여놓고 계속하였다.

《사실 말하면 나도 형편이 너무 딱하니까 그렇지 웬만만 했더라도 오늘까지 그냥 있진 않아요… 가부간 이제는 우리한테 잡시다. 가보아야 형편은 편하지만 그래도 육신이야 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형수가 지내 어려워하는것 같아 혁진은 장담까지 해보였다. 순정은 또 잠깐 바깥동정에 귀를 기울이더니만 말한다.

《아주버님, 그러면 다 더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향숙이 편지에도 있었겠는데 우리는 지금 서울을 떠나지 못할 형편입니다. 아주버님도 잘 알지만 향숙이 아버지는 의로운 일을 하다가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 집에서는 내가 시골로 가는것을 반대했습니다. 레식도 울리지 않은 사람인데 무엇때문에 가느냐는게지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내려가서 향숙이를 낳았습니다. 그 뒤에는 아주버님이 나를 보고 생각을 달리 해보라, 말하자면 팔자를 고치라고 했지요.

내가 만일 일신의 안일이나 바랐다면 그렇게 했을수도 있었을것입니다. 그랬다면 육신이야 편안하게 살아갈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나는 고생을 각오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아주버님도 알겠지만 형님은 참 좋은분이였었습니다.》

순정은 여기까지 말해놓고 또 바깥으로 귀를 기울여본다. 밖에서는 가끔가다 봄바람이 설렁설렁 불어갈따름으로 다른 기척이 없다. 낮에는 악마구리 끓듯하던 서울도 한밤중은 무덤속과 같은 정적에 잠겨있다. 갑자기 시계소리가 커진것 같다. 순정은 습관처럼 시계를 돌아본다. 혁진이라도 이끌리듯 벽을 쳐다보았다. 한시를 지난지가 오래다.

순정은 문쪽에 눈을 주고 굳어진듯 상념에 잠겨있다. 머리는 반백이 지났지만 허리를 한껏 편 그 자세는 아주 혼연하고 의젓하였다. 낮에 거리에서보던 그 기상 그대로다. 침묵이 흘러간 다음이다.

《헌병대에서 탈주하여나온 형님이 상처를 치료해가지고 대오로 돌아가던 그날이였습니다. 형님은 제게 들렸습니다. 전에없이 펴 다정하게 굴면서 저녁도 같이 먹고 밤 늦도록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마침 짬이 났으니 당신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이렇게 시작한 형님은 남북련석회의 때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을 뵈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이를 몸가까이 뵈옵고보니 조선사람으로 태어난 자랑으로 가슴이 뛰더랍니다. 내외정세에 대한 예리한 통찰과 과학적분석, 거기에 기초하여 제시하시는 조국통일의 정당한 방침, 그것은 오직 **김일성** 장군님이 아니시고는 그 누구도 생각할수 없다는것입니다. 그이께서는 또한 내외

에서 모여온 각양각색의 정치인들을 드넓은 한품에 안으시는 도량을 지니셨다는데 대해서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은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조선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살며 싸워야 한다, 우리는 싸우다가 죽을수도 있을것이다, 그렇다고 목숨을 아끼며 진리를 저버릴수야 없지 않은가? 우리는 진리를 위해 생활을 위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땀땀이 싸우다가 죽어야 한다라고 깨우쳐주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상봉이였었는데 나는 그 말을 가슴깊이 새겼습니다.》

순정은 이야기에 매듭을 지으면서 또 바깥동정에 귀를 기울인다. 50을 넘은 나이, 머리털에 흰오리가 더 많고 주름이 깊은 얼굴, 그것은 그가 걸어온 길이 탄탄하지 않았다는것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자기 한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일을 회상하는 그는 궁지와 자기민족에 취한듯했다.

여느때는 무심하게 보이던 긴 속눈썹도 쌍가풀도 그때를 방불하게 상기시켜주는듯했다.

혁진은 숨엄한 감정에 잠기였다. 그들의 사랑은 결코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였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맹세다졌고 원쑤와의 싸움에서 생에 대한 보람을 찾은것이 분명하였다. 그러기에 순정은 꽃같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아무런 동요없이 가시덤불길을 헤쳐온게 아닌가?

순정은 계속했다.

《그런데 나는 것처럼 다짐하던 형님의 뜻을 그대로 잇지는 못했습니다. 향숙이를 어엿하게 키워서 아버지의 뜻을 잇도록 하자. 나는 이런 생각에만 골몰했어요. 스스로가 할 일은 뒤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고달플수밖에 더 있습니까? 안하던 로동을 하자니까 몸이 지치고 거기다 끼니걱정이다, 아이의 수업료다하는것으로 마음편할 때가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발버둥을 치다가야 생각이 웅켰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향숙이께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와 맹세다진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마침 구원의 손길이 미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걷고있어요.》

순정은 또 매듭을 지었다. 혁진은 놀라움에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넓은 그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있다. 혁진은 굳어진듯 앓은채로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런 사정으로 시재 당장은 서울을 못떠납니다. 우리 걱정은 조금도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무척 행복합니다. …우리가 딱 한집안에 모여살아야만 행복하겠습니까? 몸은 비록 헤어져살더라도 뜻만 같다면야 더 바랄게 뭐가 있어요. 단둘밖에 없는 형제간인데 아주버님도 형님이 념원하고 싸우다가 가신 길, 그 길을 같이 걸어

갑시다.》

순정은 이야기를 끝내면서 혁진을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50줄에 들어섰어도 조금도 빛을 안 잃고 생기있게 움직이는 그의 눈에는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가 담겨져있다.

고생으로 등이 휘인 형수다. 늙은 몸에 막로동을 하자면 얼마나 고달프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는 지친 그늘이란 꼬물만큼도 찾아볼수가 없다.

만사에 혼연하고 의젓한 자태, 허리를 펴고 어깨를 살군 그의 기상에서는 쪼들린 그림자라 하기보다도 도리어 근엄하고 도고한 그 무엇을 느끼게 했다.

혁진의 눈앞에는 《유한담》같은 버젓한 차림으로 승용차를 잡아타던 형상과 함께 려엽집부인처럼 벽시계를 안고 나서던 그 모습이 엇갈려 떠올랐다.

(혁진은 경대와 벽시계에 문건을 넣은 비밀함이 만들어져있다는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이 성스러운 그의 일에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있는것이라 짐작했었다.)

혁진은 충격으로 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형수를 지켜보기만 했다.

## 5

밤이 어느때나 되었는지 알수 없었다.

잠을 깬 혁진은 눈이 둥그래졌다. 어제밤 늦도록 이야기를 한 형수는 분명 담요 한장을 덮고 새우처럼 문앞에 누웠었는데 어느새 일어나 저편 구석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있다. 담요는 앞문에 쳐서 불빛을 가리웠다.

그의 앞에는 탁상등이 쟁반만큼 동그랗게 밝혀져있고 그 둘레의 거뭇한 그늘에는 알팍한 소책자들이며 책가위들이 무드기 쌓여있다. 형수는 책가위를 썬우는데 정성을 쏟아붓고있다. 문득 그의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걷고있어요.》

어제밤에 형수는 이런 말을 했었다.

그는 지금도 바로 그런 일을 하는것이 아닌가? 하고보면 그전에 형 육진이라도 저렇게 남의 눈을 피하여 책을 읽었었다. 혁진은 이불을 슬며시 밀어내리고 상반신을 일으키었다.

《불을 켜놓아서 잠이 안와요?》

조용히 하노라고 했는데 어느새 돌아보며 안되어한다.

《아니요. 불이야 무슨...》

심상하니 얼버무린 혁진은 부엌쪽 문을 통해 바깥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앞문이며 그 둘레를 살펴보았다. 불빛은 새지 않는다. 그는 약간 마음을 놓으면서 행길쪽과 이웃집들까지 살펴보았다.

주위가 어슴푸레하게 알려지는데 인적은 없다. 뒤뜰로 천천히 돌아갔다. 거기다 피피하다. 다시 앞뜰로 나오던 혁진은 갑자기 어안이 병병해졌다.

분명 바로 옆집 부엌문이 빠끔히 열려져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발견하는것과 동시에 닫아버린것이다.

(무슨 김새라도 말은것이 아닌가?)

가슴이 무섭게 뒹다. 그는 불안함을 느끼면서 그쪽을 응시했다. 다시는 기척이 없다.

(잘못보지는 않았겠는데-)

그는 이런 생각으로 조용조용 그앞까지 다가가 보았다. 그래도 조용하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다. 돌아선 그는 급히 방으로 들어간다.

《고단하겠는데 어서 쉬세요.》

마침 형수가 쳐다보고 이른다.

《이 옆집에 사는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혁진은 형수보다도 더 목소리를 죽이면서 물었다.

《누가 내다봅니까?》

《그러찮구요. 부엌문을 빠끔히 띄워놓고 보다가 내가 나오니까 감쪽같이 닫는데-》

《그렇습니다. 망을 보는게니 안심하세요...》

형수는 가볍게 웃으면서 밝힌다. 혁진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비로소 가슴이 내려갔다. 얼마동안 침묵이 흘러서다.

《그럼 어서 일을 해야 하지 않아요?》

혁진은 야릇한 호기심에 팔리면서 재촉을 했다.

《해야지요. 나도 곧 자겠는데 먼저 쉬어요.》

형수는 좀 주저하는 눈치다. 부쩍 더 호기심이 동한 혁진은

《무슨 일인지 나는 좀 보면 안됩니까?》 하고 어린 아이같이 열적게 웃으면서 형수를 쳐다보았다.

《왜 안돼요? 누구나 다 보자고 하는 일인데 더군다나 아주버님이야...》

형수는 마치 기다리고있었던듯 쾌히 받는다. 혁진이라도 기뻐다. 형수도 역시 그를 살붙이로 여겨주기때문이었다.

《그럼 같이 합시다. 아지매랑 향숙이가 하는 일이라면야 나도 같이 해서 나쁠리 없을테지요...》

혁진은 좀 들떠하며 탁상등앞으로 나앉았다. 형수도 마다않고 불빛앞에 다가앉는다.

쌓여있는 책을 한권 집어들던 혁진은 그만 눈이 둥그래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일본정치리론잡지 <새까이> 편집국장과 하신 담화》

혁진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며 몇번이고 제목글을 읽어보았다.

이윽고 그는 조심스레 책장을 넘기며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구절구절 가슴에 뜨겁게 맺혀오는것이였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의 고매한 인품이 안겨왔다.

《아니, 이런 글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단숨에 다 읽고난 혁진은 형수를 놀랍게 바라보며 물었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은 우리 민족의 태양이십니다. 우리도 따사로운 태양의 빛을 따르는 해바라기들이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형수의 얼굴에는 자랑과 긍지가 넘쳐나고있었다.

혁진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고생살이에 찌들리어 가공하게만 여겨지던 형수의 그 얼굴이 의젓해보였다.

《우리는 지금 주체사상의 위대한 해발을 안고 정의로운 투쟁의 길을 걷고있어요.》

형수는 자부심이 넘치는 얼굴로 이렇게 말하며 표지뒤등에 풀을 묻혀나간다. 그리고는 정성껏 그 표지를 덧씌우는것이였다.

이윽고 그것을 지켜보던 혁진은 결심이 비낀 목소리로 《풀칠은 내가 하겠으니 아지매는 그다음을 하이소.》하고 속삭이며 책가위들을 자기앞에 당겨놓았다.

혁진은 여간만 조심스럽지를 았았다. 그러나 자기도 형수네와 함께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길을 걷는다 생각하고 정성을 기울였다. 형수는 일손을 놀리면서 소곤소곤 이야기한다.

《입에 풀칠을 하는데만 정신이 팔려있을 때는 몸이 고달프고 속이 말라 무슨 일에서나 짜증만 났었지요. 그러니까 모든것이 역겹고 고통스럽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한 뒤부터는 나도 나라와 겨레를 위해 적으나마 일한다는 자부심이 생기고 생활이 즐거워지지 않아요. 인간의 행복이란 역시 육신의 안락에 있는것이 아니라 정신적안정에 있는가봐요.》

달콤한 회고담이라도 하듯 이렇게 소곤소곤하는 순정은 진정 그 어떤 황홀경에 빠진 사람같았다. 혁진은 문득 고개를 쳐들면서 정면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등갓에 가리워져 밝지는 았다. 그런데도 이마가 넓고 목이 기름하게 생긴 그의 자태는 진정 자기 일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만이 가질수 있는 그런것이였다.

《우리함께 형님이 걸어가던 그 길을 걸어갑시다. 미국놈들은 지금 일본놈들까지 끌어들여서 이 땅을 제멋대로 짓밟고 돌아가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싸우기만 한다면 그놈들을 몰아낼수 있어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모두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도란도란 이어가는 순정의 이야기는 끝날줄을 몰랐다. 혁진의 눈앞에는 아까 거리에서 보았던 저주로운 풍경에 엇갈리어 눈부신 통일외 광장이 안겨오기도 했다.

그의 가슴은 점점 더 부풀었다. 이제야 사는것이 고달플것 같지 았았다. 사는것이 보람차고 즐거울것 같았다. 군수공장을 세우겠다는 미국놈들

때문에 집을 헐리우리라는 사실쯤 녀두에도 없었다.

두사람은 새벽녘에 가서야 하던 일을 끝냈다.

《이제는 눈을 좀 붙이세요. 통금해제만 되면 나는 곧 좀 나갔다가 와야 합니다.》

일을 거두고난 순정은 친동생에게나 이르듯 다정하게 말한다.

혁진은 잠자코 그의 말을 수긍하였다.

## 6

밤차에 오른 혁진은 다행히 창문옆에 자리를 잡을수가 있었다. 차실안은 역시 사람들로 빼곡하였다. 덧쌓인 짐작과 보따리들, 사람들의 입에서 뿜겨지는 악취와 담배연기, 그것은 어제 올라오던 때와 똑같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는 어제 품고있던것과는 전혀 다른 기쁨과 자랑이 간직되어있었다. 그는 가끔 허리를 살구면서 알릴가말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르끼레해진 그 얼굴에도 화색이 도는 것만 같았다. 그는 조용히 상념에 잠겨든다.

그는 형수네를 돌보지 못한것으로 하여 뼈아픈 자책을 느꼈었다. 그리고 늦게나마 그들을 도움으로써 도리를 얼마간이라도 지키리라 생각했었다. 그리고 형수네는 그것을 기뻐할줄 알았다.

그런데 형편은 그와 전혀 달랐다.

형수는 말했었다.

《진정한 인간의 행복, 그것은 육체의 안락에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먹고 사는데서 행복을 구한다면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야 아무도 행복할수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들 가운데도 제왕이 부러워하리만치 정신적으로 여유있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지요.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유층들이 가지지 못한 숭고한 정신적재부를 소유하고있기때문입니다...》

그의 뇌리에는 밤을 새워 일하면서도 조금도 지쳐하는 기색이 없이 또박또박 자기를 깨우쳐주던 형수의 모습이 깊이 뿌리박혀있었다. 밝고 희망에 찬 톰름하고 의젓한 모습, 그것은 진정 삶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데서 온것이였다.

그는 슬며시 가슴우에 손을 얹어보았다. 포근한 물체의 촉감이 안겨왔다. 형수가 소중하게 간직해준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의 로작들이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 그것은 결코 육체의 안락에 있는것이 아니다.

그는 비로소 자기 앞길이 우련하게 보이는것 같았다. 그것은 혹시 가시덤불길일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길은 보람있고 영광에 찬 길이며 광휘로운 탄탄대로임이 틀림없었다.

기차가 《부-오》 하고 기적을 길게 울린다. 어느새 추풍령을 넘어선 모양 속도가 빨라진다. 동녘이 휘뵈히 밝아온다.

혁진은 어깨를 한껏 펴고 의젓하게 고쳐았았다.

# 남녘의 시인들이여 그대들은 승리하리라!

리 맥

시인,  
참된 량심을 지닌  
그 고귀한 이름으로  
그대들은  
암흑의 땅  
숨막히는 남녘을 두고  
분노를 터뜨렸다

두려움을 모르는  
그 녀를 불태우며  
참을수 없는것은  
더는 참을수 없다고  
의로운 그 목소리  
애국의 그 웨침으로  
그대들은  
항거를 호소하였다

삶의 권리,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민주주의의 권리로,  
터갈린 손에  
마치를 들고 낮을 진  
근로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남편을 그리는 녀인,  
억눌려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스승의 이름으로  
제자들의 이름으로  
그대들은  
박정희피괴역적을 규탄하였다!

눈을 가지고도  
바라보는것이 금지된  
최루탄으로 흐려진 남녘의 하늘  
입을 가지고도  
말하는것이 억제되고  
붓을 가지고도  
글을 쓰는것이 감시당하는 총칼의 땅

견자하여도  
걸어갈 한치의 제 땅이 없고  
숨 쉬자하여도  
숨을 들이쉴  
한조각의 푸른 하늘마저 빼앗긴 생지옥

때없이  
아닌 밤중에도  
잡아가고  
가두어넣고  
잔인하게 살인하는  
박정희독재 《정치》  
그놈의 《유신》 체제를 두고

오오,  
그대들은 침묵끝에  
피를 뱉는듯  
교형리들에게  
스승을 빼앗기고  
동창들을 잃은  
그 울분을 호소하였고

호화주택의  
높은 다락에서  
민생고의 신음소리를  
거문고의 춤가락에 타는  
오적의 무리들을 저주하였고

외세에  
나라를 팔고  
있지도 않은 《남침위협》 떠들며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인민의 반역자  
사대매국의 민족의 역적들을 규탄하였다!

물노니  
파연 어찌하여  
손을 묶이고  
발을 묶이고  
눈과 입마저  
가리워버리고 막히워버린

노예의 세상에서  
《노예수첩》을 쓴것이 죄가 되고

체포  
투옥  
살륙의  
탄압의 선풍속에서  
피에 젖은  
수난의 역사를 연구한것이  
형벌을 받아야 할 죄로 된단말인가

박정희,  
바로 인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놈은 네놈,  
네놈은 사람의 탈을 쓴 흡혈귀  
인간량심의 원쑤  
죄악의 화신  
지옥의 교형리,

역사는 말한다  
총칼로써는  
인민의 노래를 막을수 없고  
철쇄로써는  
투쟁의 노래를 묶을수 없나니

오오, 장하다 남녘의 시인들이여  
그대들이 웨친 삶의 노래  
그대들이 지핀 투쟁의 불길  
남녘의 하늘땅을 흔들며  
사람들의 가슴을 친다

자유와 권리 없이  
바람과 공기만으로 살수 없고  
나라의 통일없이  
갈라져서는 겨레가 살아갈수 없는  
분열된 조국땅을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없는  
민족의 이 념원  
남녘의 이 고통을  
피타게 웨친 그 노래,

흘리는 눈물과 침묵만으론  
끝장낼수 없는 수난의 역사에  
항거와 투쟁으로  
종지부를 찍으며

높이 쳐든 애국의 그 불길

오오,  
그 노래 철창속에서 울려퍼지고  
그 불길 항쟁의 거리우에  
투쟁의 해불로 타오른다.

그대들의 심장은  
인간의 존엄과 량심으로 고동치고  
사무친 인민의 원한  
그대들의 가슴속에 서리였거니  
그대들의 뉘를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어라

그대들의 목소리에  
북녘의 노래를 합치고  
그대들의 웨침소리에  
강산도 설레이거니  
남녘의 애국시인들이여  
변함없는 그 념으로, 그 신념으로  
시인의 분노를 터치라!

오오 그대들은 결코  
철창속에 갇힌몸 아니다  
그대들의 노래는 끝나지 않았나니  
그 투쟁의 노래 부르며  
어두운 남녘땅  
항쟁의 거리우로  
지금 이 시각에도 그대들은  
머리를 쳐들고 도도히 걸어가고있구나

남녘의 시인들이여  
민족의 태양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통일의 광장에서  
우리 서로 노래를 합치고  
우리 서로 목소리를 합치며 열싸안을  
영광의 그날  
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굴함없이  
굴함없이 싸워나가자!

**(남조선 애국적문학인들에 대한 박정희  
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만행을 규탄하는  
평양시문학예술인성로모임에서 읊은 시)**

## 첫 로동생활을 돌이켜보게 하는 길동무

-단편소설 《나의 수기》를 읽고-

잡지 《조선문학》 1977년 5월호에 실린 단편소설 《나의 수기》(김성관작)는 먼바다어로공들의 생활을 흥미있고 생동하게 그려낸 현실주체의 작품으로서 이채를 띠고 있습니다.

소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주인공 리영호가 항해사가 될 끝없는 포부와 희망을 안고 창포수산사업소 원양프탈선 53호에 배치되어 취사원으로 일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의 성장과정을 인상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취사원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소설은 선장 박대범과 무전수인 《작곡가》 배창수, 조기장 의준이의 형상을 그들의 각이한 식성과 결부시키면서 매우 밝고 명랑한 필체로, 그들의 개성적특질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매운것을 좋아하는 사람, 짭짤한것을 즐기는 사람, 빨리 먹는 사람, 데리러 가야 식당에 오는 사람 등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똥똥보 무전수 배창수는 설것이가 다 끝난 다음에야 손푹금을 땡땡거리며 식당에 나타납니다.

직무에 영예감이 없는 취사원은 불이 잔뜩 부어 식사를 내주었는데 인차 배식구로 빈 식기가 불쑥 들어옵니다.

소설은 그다음,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물었다.

<생선국 한그릇 더!>

<없어요.>

사실 너무 늦게 왔으니 국이 더 있을려 없었습니다.

<하, 이 친구 처음이 돼서 잘 물렸구만! 나는 말이야, 국 한그릇을 먼저 먹고 다음 그릇부터 밥을 먹어. 알았지?>...》

조기장의 형상과 관련하여 소설은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기장 의준동무는 무전수와는 판판 달랐다. 그는 맨밥 한그릇에 짭짤하게 절구어 구운 이면수 한토막이면 그만이었다...》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이런 대조적인 묘사를 통하여 《똥똥한 몸에 너부죽한 얼굴과 서글서글한 눈과 덩실한 코로 하여 인심이 후해》 보이는 무전수와 몸집은 체소하나 《세모진 눈으로 한번 쏘아볼 때에는 참대가시로 얼굴을 콕콕 찌르는것 같은》 조기장의 성격을 눈앞에 방불히 그려볼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로공의 모습을 생활그대로 생생히 보는것 같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었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소설은 바다생활을 다양하게 그리면서 그속에서 어로공들과 친숙해지며 단련되어가는 주인공 영호의 형상을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먼바다생활을 통하여 주

인공은 우리 어로공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주인공 영호는 귀중한 동지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조국을 사랑하는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것을 보람찬 로동생활의 현실속에서 절실히 체득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여러가지 소리와 음향들을 주인공의 내면세계와 밀착시켜 그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는데 능숙하게 복중시키는 훌륭한 솜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밥짓는 일보다 항상 고기잡이에 정신이 팔려있는 주인공이 고기가 뗏다는 웨침소리를 듣고 갑판으로 달려나가려고 할 때 《못나가, 못나가, 못나가.》하며 취사복을 붙잡듯 단김을 뿜으며 밥이 벌렁벌렁 끓었다고 한 묘사라든가 주인공이 비판을 받고 부아가 올라 누구든지 붙잡고 화풀이를 하려고 할 때 시콩시콩하며 돌아가는 기관소리가 마치도 《참아, 참아》 하며 권고나 하듯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고 한 대목들을 그 실례로 들수 있습니다.

저는 단편소설 《나의 수기》를 읽으면서 자기의 첫 로동생활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저도 주인공처럼 고등학교를 얼마전에 졸업하고 산악같은 기계를 운전해보고싶은 남다른 꿈을 안고 벽찬 현실에 뛰어들었습니다.

안전교양과 견습기일이 끝나자 저는 뜻밖에도 천정기중기 운전공의 직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조립공들의 신호에 따라 물체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단조로운 일이 갑갑하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겠다고 때도 써보고 공연히 애꿎은 기대공들과 조립공들에게 짜증내기도 했습니다.

몇달이 지나면서 무엇이라고 딱 짚어 말할수는 없었으나 저는 확실히 그 무엇인가 잘못생각하고있다는것을 어렵듯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이 소설에서 찾았습니다.

《나의 수기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취사원이다. 나는 아직 조국이란 무엇이며 그 사랑의 품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다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조국의 진정한 일꾼으로 될수 있는가 하는것을 초보적이나마 깨달을수 있었다. 그것은 두말할것 없이 동지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동지들의 기쁨과 아픔을 자기의것으로 느낄줄 알며 거기서 진정으로 조국을 느낄줄 아는 그런 참된 인간이었다.

일꾼이 되기전에 이런 참된 인간이 되라!》

이것이 소설의 종자이자 이번에 제가 찾은 생활의 진리이며 대답입니다.

저역시 아직 기증기운전공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기의 직무에 대한 높은 영예감을 안고 보람찬 로동의 나날을 수놓아가렵니다.

**평양건설기계공장 승강기직장**

**기증기운전공 오영숙**



## 따로외우고싶은 시

윤승홍

책장에 꽂아놓은 여러가지 책들과 잡지들중에서 내가 자주 뽑아보는 몇권의 《조선문학》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조선문학》 1974년 1월호이다. 여기에 짙막한 서정시 《금강의 가을》이 실려 있다.

금강의 단풍잎은 한껏 붉어서  
옥류동 맑은 물위에 어리광치고  
바위위에 굴러가는 억만 구슬도  
가을하늘 비끼어 더욱 푸른 진주알

이 시가 발표된지 몇해가 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읽어보게 되고 여러번 읽고 랑송해보는 과정에 나도 모르게 이제는 따로외우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추상적이며 무미건조한 구호를 라렬할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산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구체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화하여야 합니다.》

시 《금강의 가을》의 서정은 옥류동의 흰바위위를 구슬져 흐르는 수정같은 샘물처럼 맑고 깨끗하며 거울같은 물위에 비친 빨간 단풍잎처럼 열렬하고 절절하다.

시행마다 감미롭고 우아하며 향기롭고 아름다운 금강의 산 서정이 풍만하게 넘쳐흐르고있으며 구체적이며 생동한 시적형상이 황홀하게 눈앞에 펼쳐진다.

아쉬워, 흐르는 진주구슬도 못흘러가고  
비바람에 천만년 다듬은 일만련봉 제모양  
드려내며  
엷은 안개 헤치고 키를 솟구는  
아아, 금강의 가을, 기다리는 가을!

이 시에는 설명이 없다.

독자들앞에 한폭의 선명한 수채화가 있다면 이 서정시처럼 극명하고 생동하게 금강의 가을을 그려낸 수채화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아름다운 금강에도 극치의 가을에》 온 나라 인민들을 《아름다움의 상상봉에 다 안아세우시고》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 험한 농장길과 공장 구내길을 걷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는 열렬한 흥모의 감정을 맑고 뜨거운 서정으로 노래함으로써 이 시는 사람들에게 잊을수 없는 강한 인상과 여운을 남기고있다.

이 시를 읽노라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가슴에 솟구쳐올라 우리의 눈굽에는 저도 모르게 금강의 목란꽃잎에 맺혀흐르는 맑은 이슬인양 뜨거운것이 구슬져흐름을 어찌할수 없다.

나는 자주 이 시를 놓고 서정의 구조와 정서의 빛갈, 서정시의 운율과 시어의 배열을 생각해본다.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인 풍부한 서정성을 떠나서는 서정시를 도저히 생각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인이 탐구하고 창조해낸 서정이 얼마나 개성적이고 서정의 밀도가 얼마나 함축되어있으며 그것이 종자와 어떻게 형상적으로 밀착되어있는가에 있다.

서정시에는 서정시마다 그에 고유한 서정이 있다.

금강산에 대한 서정도 시인마다 느끼고 감수하는 측면이 다르며 금강산에 대한 시도 서정이 같을수 없다.

이런 면에서 시 《금강의 가을》은 우리 시인들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서정시 《금강의 가을》에는 이 시에만 있을수 있고 또 이 시에만 있어야 하는 고유한 서정이 풍만하게 넘쳐흐르고있다.

이 시의 서정을 금강산에 대한 다른 시에 옮겨놓으면 빛나던 서정이 빛을 잃게 된다.

서정이 독창적이고 개성적이며 그것이 진실할수록 그 시는 음악적이며 탄력이 있다.

내가 시 《금강의 가을》을 자주 읽고 사람들앞에서 즐겨 랑송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시는 읊고싶어야 하며 따로외우고싶어야 한다. 나는 이 시를 사랑한다!